



7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7호

(루게 429)



◆◆◆◆◆◆◆◆◆◆ 차 례 ◆◆◆◆◆◆◆◆◆◆

산촌의 행복	4
김정일동지 그이는 조선의 미래	5
그이께 축하를	5
시계는 간다	6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리를 깊이있게 보여준 진실한 형상	7
영원한 충성으로 당중앙 받들리	10
출항의 날에	11
값있게 살리라 순간순간을	19
전승의 축포오르던 밤에	20
참된 삶	22
월미도의 해당화	25
리서기장	26
해방된 거리에서	36
해빛은 남해끝까지	45
여름밤의 이야기	55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61
위대한 역사를 반영한 독창적인 구성형식	64
가을밤에 느낀바 있어	68
고향을 지나며	68
102자루의 총을 메고	69
사랑의 불빛 (외1편).....	70
그물을 낚네	70
씨앗을 뿌려간다	71
시를 탐구하고 운률을 살리는것은 시창작의 본성적요구.....	72
우리의 출근길	78
친선의 다리	80

산촌의 행복

정영호

층층 하늘가 다락밭에
어버이수령님 오시니
산촌의 기쁨을 드리고 싶어
강냉이구름바다는 늠늠늠
이삭마다 터쳐올리는 향기

불수록 탐스럽다고
한이삭 벗겨보시는 수령님 앞에
우리가 벗겨드리겠다고
분조장치너 한결을 나서도
그이께선 웃으시며 이삭을 마주잡으시었네
이 풍년기쁨 우리 함께 나누자고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에 만풍년을 마련해주시었는데
이 기쁨 우리가 받아안다니...
그이를 우러르는
분조장치너의 눈가엔
쏟아지는 더운 눈물

산이 높아도
골이 깊어도
농사야 사람의 마음에 달린거라고
다락밭 층계를 오르시며
흙도 비벼보신
그 사랑 그 손길이 아니던가

한겹 또 한겹
오사리를 마주 벗겨드시고
알수도 세어보시며
그이께선 어깨를 두드려주시네
금년농사를 참 잘 지었다고

새 품종을 보내주시던
그 은정을 생각하며
동창이 밝기도전에 더기로 오르면서도
밤도와 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면서도
우리의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려는 기쁨이었고

부식토를 안아내자고
부영산의 눈길을 헤치면서도
언 땅을 까헤치며

다락밭 더기바다 불길을 열면서도
우리의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려는 기쁨이었나니

우리의 그 마음
그 진정어
알알이 영어
무겁도록 실린
탐스러운 만풍의 이삭

그이께선
토실토실 알찬 이삭을
몸소 안고 가시겠다고
몇번이고 살펴보고 어루만져보시네
이 산촌의 기쁨을
온 나라에 보이시겠다고

인민을 위하시는 그 마음에서
크나큰 기쁨을 안으시고
겉쌓이시는 피로를 푸시며
그이께선 걷고걸으시는 길우에
해를 맞고 달을 지우며
한평생을 다 바치시거니

말없이 가슴을 치는
인민의 그 마음은
온 나라에 설레이는 만풍의 기쁨
어버이수령님께 다 드린다 해도
우리의 소원 어찌 다 이루랴

그 마음 다함없건만
산촌의 기쁨을
온 나라에 안겨주시려
그이께선 풍년이삭을 안으시고
굽이굽이 령을 넘어 떠나가셨거니

아, 우러르며 따라서며
더운 눈물 짓는 산촌의 마음
해마다 수령님께 드리자던 기쁨을
우리가 다 받아안고 살아
세월이 갈수록 목메이는 행복이여라
세월이 갈수록 목메이는 인민이여라

김정일동지 그이는 조선의 미래

씨이디 마썸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향도의 별
그이는 진정한 조선의 아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위업의 계승자
이시여라

그이께서는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희망을 안겨주시고
찬란한 앞날을 마련해주고계시나니
그이는 휘황한 미래의 상징

항일성전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부터 뛰어난 예지를 지니신 그이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 높이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나니
공산주의위업은 빛나는 승리로 줄달음쳐라

그이는 령도예술의 위대한 천재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열정과 완강한 전개력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고매한 덕성은
당과 인민을 승리로 이끄는 추동력이여라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인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인민들을 기적과 위훈으로 불러주시나니
진정 그이의 령도밑에
공산주의 새날은 밝아오리라

오, 자주시대의 걸출한 령도자이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성실성과 혁명에 대한 충직성
을 지니시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 위해 쌓아올리신
그 빛나는 업적
만민은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전하리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는 소리높이 웨치노라
인류의 태양이신 **김정일** 동지 만세!
그이의 향도의 빛발은 우리의 먼 앞길도 밝게 비치
리

(필자는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학생임)

그이께 축하를

아브돌 라와프 기탈 후기야니

영웅적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만민의 자랑
그이의 탄생일에 축하를 드리노라

김정일, 그이는
인민들의 생활을 깊이 헤아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과 그이
인류의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계시여라

그이는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혁명의 기수

그이는 언제나 인민의 념원을 꽃피우시려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시고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인자하신 성품을 체현하고계시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의 사랑속에 계시는
희망의 등대이시며
행복의 품이시여라

그이는 조국통일의 념원을 안으시고
인민들의 투쟁을 이끄시여
영광을 펼치게 하시여라

인류의 평화와 조선통일의 상징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인민의 커다란 자랑
진보적인류는 충성의 마음 안고
그이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노라

(필자는 아프가니스탄 민족조국전선
기관지 《아니스》 부주필임)

시계는 간다

백의선

정갈한 일신학교 교실 담벽에
오랜 벽시계 하나
무엇을 말하느냐
새겨두었느냐
어느 때 어느 시간이었던가
감옥살이 모진 상처 가지지 못한채
조직을 살리시며 새 투쟁을 펼치시며
청수동 천리길 찾아오신 김형직선생님
여기서 강연을 시작한것은

시계는 먼 세월 지나왔어도
색바랜 조선지도며
고요히 서있는 풍금과 등잔...
교실의 모든것 그날의 그 시간속에 있는듯

저 소박한 연탁앞에 서계시던 선생님
지시봉으로 짚으시던것은 지도가 아니라
짓밟힌 조선의 마을들과 산야들
피를 뚫이며 듣고있던 청중은
온 나라 온 겨레였더라

높이들었던 그이의 주먹앞에
악착한 왜놈통치의 밑뿌리는 흔들리고
불같은 그이의 목소리 강산에 퍼져
독립의 성전에 삼천리가 뚫었거니

말하라 시계여
끊어져가던 국민회의 숨줄을 이으시고
이슬같이 스러지는 조선의 넋을 살리던
그이의 거센 사랑의 숨결을
그 어느 시간에 간직하고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듣고있다
거룩한 뜻을 지닌 선생님의 강연을
조선을 다 안은 그 사랑의 뜨거움과
조선의 새벽을 부른 그 숭고한 정열...
우리의 심장에 받아안고있다

창밖에는 화창한 봄빛
하늘가에 솟아오른 새 《일신학교》
교실마다 어버이수령님 품속에 꽃핀
사회주의락원을 수놓은 지도들...

하나 선생님은 연탁에서 내리지 않으시였다
선생님의 강연은 끝나지 않으시였다
시간을 멈춰세울수 없는것처럼
여기에 세대와 세대는 이어서리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억세게 떠밀어주신 력사
그날의 그 시간은 간다
어제처럼 오늘도 시계는 간다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리를 깊이있게 보여준 진실한 형상

오정애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관한 문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원형창조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관한 문제가 혁명적수령관의 첫째가는 근본요구로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의 기본핵을 이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딪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중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는 시대와 혁명적문학예술이 제기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락원기계공장에 갇든 력사적사실을 예술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이 지녀야 할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혁명적신념, 마음의 기둥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1,2부)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로동계급의 주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인 혁명적신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준데 있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의 간고했던 그 나날에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침체와 담보를 모르며 억척같이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던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전대미문의 파괴가 휩쓴 이 땅, 재더미밖에 남은것이 없는 불바다속에서도 공장을 지키고 생산을 계속할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날게 하였는가. 그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드팀없는 신념이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장군님만 받들어모시고 살아가오.》

이것은 직장장 근삼이가 계급적원썹들의 총탄에 맞아 숨지는 마지막 순간에 안해인 정순에게 남긴 말이다.

근삼의 이 짝막한 대사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자기들의 행복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하며 싸워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이 담겨져있다.

마음의 기둥, 그것은 곧 혁명전사들의 가슴속에 무쇠기둥처럼 든든히 자리잡고있는 혁명적신념이다.

락원의 당원들이 지닌 이 마음의 기둥은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확고부동한 결의의 표시로서 신념의 최고정수를 이룬다.

영화는 간고했던 그 나날에 주인공 정순을 비롯한 락원의 당원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것처럼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낼수 있었으며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억척같이 전진할수 있었는가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줌으로써 로동계급의 성격창조에서 중요하게 나르고있는 혁명적신념에 관한 문제를 훌륭하게 일반화하였다.

영화에는 첫화면부터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10명 당원들의 불같은 투지를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들이 펼쳐진다.

적의 맹폭격, 그속에서 용선로를 지켜내기 위해 모래가마니로 방탄벽을 쌓는 당원들, 련속 솟구치는 불기둥, 적탄에 맞고 파괴되는 용선로, 그를 가슴아프게 바라보는 당원들…

소개지가 건설되는 기간 수류탄생산을 중단하지 말것을 결정하고 남은 그들이였으나 하나밖에 없던 용선로까지 파괴되고보니 앞이 캄캄하였다. 게다가 수류탄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갖은 방해책동을 다하는 안대식놈… 그러나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락원의 당원들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직장장 근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수류탄생산을 하루빨리 다그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화벽돌을 구하려 떠나며 정순은 남편이 목숨바쳐 구해온 내화벽돌로 용선로를 쌓고 끝내 수류탄생산을 보장한다.

남편을 잃은 모진 슬픔을 안고도 눈물을 삼키며 용선로복구에 일떠선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은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 계시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능히 뚫고 나갈수 있다는 우리 로동계급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발현이며 드팀없는 신념의 표시이다.

특히 영화에서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주인공의 충실성은 미제의 야수적폭격만행으로 또다시 용선로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현지도 오시여 장군님께서 숨죽은 공장을 보시고 가슴아파하실것을 생각하고 그처럼 안타까이 모대기는 장면에서 참으로 감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땅속에 뼈죽이 박힌 시한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앞에서 부지배인 병수에게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들만이 아니지요. 전쟁인데 어떻게 희생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이겨가는 우리모두의 마음의 기둥이 뒤틀리게요... 우리에겐 장군님께서 계시고 당이 있기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불행은 다 순간의것이고 이 순간만 이겨내면 장군님을 모시구 다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난앞에서도 시련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거예요.》

순간에도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오직 주인공의 가슴속에 뜨겁게 흐른것은 장군님께서 계시고 당이 있음으로 하여 이 모든 곤난과 시련은 일시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만 한다는 크나큰 믿음이며 확신이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락원의 당원들은 한목속 바쳐서라도 기어이 수류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시한탄을 제거하고 용선로를 살려낸다.

락원의 당원들의 이 영웅적행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이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며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사는 혁명전사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의 발현이라는것을 영화는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영화는 주인공을 비롯한 락원의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마음의 기둥,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신념은 그들의 지난 생활에 대한 체험에 기초하여 심어진것이며 그렇기때문에 그렇듯 견결하고 확고부동한것으로 될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그의 성격발전의 생활적기초와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할수 있었다.

주인공 정순은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다. 다른 모든 녀성들이 그러하듯 그도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자식을 사랑하며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

을 찾을줄 아는 다정한 안해였고 인자한 어머니였다.

그러하던 그가 미제 공중비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속에서도 자기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육탄이 되어 용선로를 지켜싸웠고 전후 재더미속에서 칼바람을 헤치고 얼음을 깨내며 용선로 동체를 끌어올릴수 있었던것은 오직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하였기때문이었다.

지난날 의지가지할데 없던 그들 남매를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믿음직한 로동계급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그들은 비로소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주인공은 해방전 뼈저린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해방후의 보람찬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을 한몸에 안아 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수령님의 사랑의 빛발아래에서만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수 있었다.

주인공이 체득한 이 귀중한 진리는 그의 가슴속에 억년 드눌지 않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할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은 그러한 신념에 배치되는 온갖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낳게 하였다.

영화에서는 계급적원수들과의 대결장면을 통하여 주인공 정순의 이러한 성격발전의 논리를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있다.

계급적원수들이 수류탄 오작원인을 정순에게 들썩우려 하며 대형양수기생산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하도록 강박해나서는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정면에서 놈들과 맞서 싸우는 정순의 투쟁모습은 정순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언제나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만을 따르고 받들어나가며 그 길에서 추호의 드팀도 없는 우리 로동계급의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사상예술적성과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숭고한 의리, 깨끗한 량심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1,2부)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커다란 감화력의 하나는 또한 우리 로동계급이 지닌 숭고한 의리, 깨끗한 량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준데 있다.

의리, 량심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참됨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의리가 없는 참된 인간이란 있을수 없다. 애국자, 혁명가들은 언제나 뜨거운 의리를 지니고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참된 인간이었다.

영화는 주인공을 비롯한 락원의 로동계급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로동계급이 지닌 숭고한 의리야말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깨끗하고 순결한 사상감정으로 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사람이 의리를 몰라서는 절대로 안된다. 너무 험한 세상에 정식이 하나 데리구 헤매다가 해방을 맞아 장군님 품속에 안겨서야 제이름 석자를 배웠구 당원이 돼서 처음으루 사람이 사는 보람도 알았다. 행복이 뭔지두 알구... 그래서 남편을 잃구두 눈물없이 살아간다. 자나깨나 천대받던 이 몸을 당원으로 키워주신 그 은덕에 의리루 보답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루 모진 고통두 슬픔두 다 이겨가며 이렇게 살아간다.》

철공소집 딸 영혜가 아버지의 강요로 공장에서 나가려고 할 때 그에게 하는 주인공 정순의 말이다.

주인공 정순의 이 대사에는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주인공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아름답게 비껴있다.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주인공의 이 말은 그의 순결한 당적량심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고결한 의리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원래 의리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적의무이다.

의리를 지킨다고 할 때 주로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참다운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동지의 사랑과 스승의 가르침, 부모처자의 사랑에 보답하는것은 다 사람들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의리로 된다.

의리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혁명전사의 의리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수령과 혁명전사의 관계는 정치적생명의 은인과 그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공산주의자, 인민들 사이의 관계로서 가장 친근하고 혁명적인 관계로 되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수령과 혁명전사 사이에는 참다운 사랑과 숭고한 의리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화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주인공을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 서로 믿고 아끼는 당원들 호상간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숭고한 의리, 깨끗한 량심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영화에서 주인공 정순의 높은 충성심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혁명적진념과 함께 그를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당원으로 키워주신 아버이 수령님께 대한 전사의 의리를 다하려는 깨끗한 량심에서 우러나온것이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순이 남매를 구원해 주시고 키워주신 생명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세상에 태어나 일찌기 부모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불쌍하게 자라난 정순이 남매가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보람을 알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으며 당원으로 자라나게 된것은 해방 후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서부터였다.그들 남매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실수 없으며 따라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로서뿐만아니라 량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살아간다.

영화에서는 남편을 잃고도 눈물없이 살아가며 수류탄생산과 대형양수기생산과정에 오직 천대받던 자기들을 당원으로 키워주신 그 은덕에 의리로 보답하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오직 고통도 슬픔도 다 이겨가며 살아가는 주인공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이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특히 빈터우에서 모든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대형양수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받기 위해 제의서를 가지고 성에 올라갔던 직장장 정순이가 되돌아와서 당원들 앞에서 하는 대사는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주인공의 깨끗한 량심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우리까지 손을 내밀면 복구건설은 넘려 말라고 맹세는 잘하더니 막상 곤난에 부닥치니 제일먼저 주저앉았대구... 우리 수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허전해하시겠어요. 사람이 죄중에두 맹세를 저버리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데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구 갔대어요.》

《...저마다 맹세는 맹세대루 다 해놓구 막상 실천에서는 저마끔 저 하나 편안히 일할 궁리만 한다면 그 많은 제의서들을 일일이 봐주시구 하나하나 풀어주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편히 주무시겠나요.》

정순의 이 대사에는 순간이나마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릴번한 자기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담겨져있다.

벽돌 한장, 못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대형양수기를 생산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요구한다고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 수령님께서 직접 강제 한톤, 세멘트 한톤을 배정하신다는것을 들을 때 수령님께 손을 내미는것과 같은 행동은 당원들이 차마 할수 없는 일이라고, 그것은 수령님께 드린 맹세를 저버리는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것처럼 피로와한것이였다. 누가 보건 말건 스스로의 량심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들의 순간적인 과오를 놓고 것처럼 뼈저리게 뉘우치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맑고 깨끗한, 가장 뜨겁고 숭고한 의리를 지닌 참다운 로동계급들, 참다운 당원들이였다.

바로 이러한 깨끗한 량심, 의리를 지녔기에 그들은 수령님께 드린 맹세를 지켜 강반에 얼어붙은 용선로 동체를 꺼내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힘겨운 전투를 벌리는것이다.

영화화면을 통하여 볼수 있는 미끄러운 얼음길, 발에 새끼를 감고 용선로 동체를 옮겨나가는 주인공들의 미더운 얼굴들, 밀다가는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한자국 두자국 앞으로 전진해나가는 그 매 장면 장면들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그날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락원의 당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화폭이였다.

영화에서는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혁명전사의 고귀한 혁명적의리뿐아니라 동지들 호상간에 오가는 순결한 혁명적의리에 대하여서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숭고한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지켜지는 높은 도덕적의무감이며 그에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을 최대의 수치와 죄악으로 여기는 도덕적량심이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동지들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지 못하며 동지들의 사랑에 보답할줄 모른다.

오직 동지들의 사랑에 보답하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는 사람만이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바칠줄 아는 깨끗한 량심을 지닐수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 정순이가 개인기업가의 딸인 영혜를 혁명동지로 믿고 꾸준히 교양하고 돌봐줌으로

써 끝내 그를 로동계급으로, 당원으로 자라게 하며, 신념이 약하고 우유부단하여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주저하는 부지배인 병수를 오래동안 혁명투쟁을 같이 해온 혁명동지로 믿고 도와주어 끝내 자기의 결함을 고치게 하는 장면들은 주인공 정순이가 지닌 혁명동지에 대한 믿음,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들이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서로 위하는 마음, 당원들이기때문에 백번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당원인 시엽의 사소한 잘못을 두고 그렇듯 가슴아파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심정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발현인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 이러한 의리를 지닌것으로 하여 그들은 인간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깨끗한 량심을 지닌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으로 되는것이다.

의리를 위해 살고 의리를 지켜싸우는 참된 인간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영화는 그토록 우리들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으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는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준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관한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반영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영원한 충성으로 당중앙 받들리

오상홍

백두의 정신으로 총련일 펼쳐가라
혁명의 성산 백두에 세워주네
천지의 맑은 물도 우리 마음 씻어주니
티없는 충성으로 당중앙 받들리

불멸의 혁명정신 심장에 새겨가리
항일의 자옥들을 한눈에 안겨주네

그날에 높이 날린 붉은기를 어어놓고
불타는 충성으로 당중앙 받들리

백두에서 떠난 걸음 끝까지 이어가리
저 멀리 구름덮인 남녘하늘 보여주네
주체의 혁명가로 자주통일 앞당기며
영원한 충성으로 당중앙 받들리

출항의 날에

최용규

먼바다작업선 《학두봉》 호의 출항준비로 김학준지배인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길지 않은 출장을 떠나려 해도 학습노트요, 담배요, 면도칼이요, 양말과 빨래비누요 하면서 한참씩 부산을 피워야 하는데 하물며 만리 배길의 먼 어장에서, 그것도 물을 몇달동안 밟지 못하는 원양물고기잡이 준비임에라.

《학두봉》 호에 실어보낼 필립때문에 군영화보급소에 갔던 김학준지배인이 자기 없는 동안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없는가 하여 출항준비로 봄비는 부두에 나타났을 때였다. 배전에 기대여 아래를 굽어보고있던 한 청년이 지배인이 눈에 뜨이자 배전에 드리운 사다리를 구르며 부두로 내려왔다. 범의 눈을 련상케 하는 시꺼먼 눈썹과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간물과 해풍에 절은 철색얼굴을 가진 갑판장 리영섭이었다. 과도가 배전을 훌훌 뒤흔기하는 사나운 날에도 커다란 장화를 신은 두발을 집게처럼 버티고 서면 물고기잡이에서 누구나가 마음을 놓는 걸싼 배사람이었다. 영섭갑판장은 급히 내려올 때와는 달리 발바닥이 부두에 닿은 후에도 선뜻 움직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바람때문인지, 성냥때문인지 그는 잠시 신고해서야 담배에 불을 붙이였다.

그를 지켜보던 학준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뭐 새롭게 제기되는것이 있소?》 하고 학준지배인은 어떤 문제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출항준비엔 이상없습니다.》

《그럼 이상있는건 뭐요?》 출항준비에 완벽을 기했다고 여긴 학준에게 있어서 영섭의 말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영섭갑판장은 그답지 않게 망설이며 선뜻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학준의 의문은 수평선의 뭉게구름처럼 자라오르며 불안을 안기였다.

《말못할 문제요?》 하고 학준은 영섭의 입을 지켜보았다. 이때 갑판장 영섭이를 대신하여 대답을 하는것처럼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왔다. 정거장에 들어서는 평양발 청진행 급행열차의 기관사가 기적을 당긴 모양이었다.

영섭갑판장은 기적소리가 들리자 성급히 자기의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아무래도 한가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물을 떠나면 여러달동안을 허허 난바다에 나가있을 동무들인데 아무것이나 다 제기하오.》

《갑판장자신이 지배인동지의 지시를 어기게 되어 그러합니다.》

《뭔데?》

《한시간동안만 정문밖에 나갔다 왔으면 해서 그러합니다.》

김학준지배인은 출항시간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아침 먼바다로 떠날 전체 어로공들에게 오후 1시 이후에는 누구든지 배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던것이다.

《외출하겠단말이지...》 사업상 제기되는 문제인가 하여 긴장했던 학준의 마음은 김빠진 공처럼 되여버려 말꼬리를 길게 끌었다.

자기의 제의를 시답지 않게 여긴다고 느껴서인지 갑판장 영섭은 서둘러 12시~1 시사이에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동무가 있어 그런다고 귀를 달았다.

《출항의 날에야 부두에서 만나야지 정문밖으로 약속할게 뭐요. 사람두...》

《그 동문 우리가 오늘 출항하게 되리라는것을 모르고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한것보다 출항준비를 사흘이나 앞당긴것이 동무의 <상봉>에 문제를 제기했구만. 허허허, 가까운 동무요?》 하고 학준지배인은 빙그레 웃으며 영섭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한다.

영섭갑판장은 좀 친한 동무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며 눈길을 피했다.

김학준지배인은 영섭의 대답을 듣지 않고도 그와 약속했다는 동무를 알만하였다.

(지배인 지시 한마디로 젊은이들의 기쁨을 눌러서야 안되지.) 학준지배인은 그에게 선장에게 보고하고 외출하라고 반송낙을 한후 그자리를 떴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학준은 밤빛 데트론천으로 지은 작업복저고리를 벗어 말코지에 걸었다.

이때 누구인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였다.

학준의 대답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은 후방공급과장이었다. 그는 어로공들의 생활을 책임지고있는데 어선대가 먼바다로 한번씩 떠날적마다 오금에 붙이 일게 뛰여다녀야 하는 일군이였다.

《제기된 파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아보려던 참인데 마침 잘 왔소.》 하고 학준은 과장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결에 자리를 잡았다. 후방공급과장은 계획외에 통성병맥주까지 더해결해서 배마다에 몇상자씩 싣게 했다고 서론을 퍼면서 삼면차크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그안에서 종이 몇장을 꺼내어 학준의 책상우에 내놓았다.

《지배인동지 말씀대로 편지지와 봉투까지 다 구해서 방금 실어주었습니다.》

《상점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하던데 용케 구해다 왔습니다.》 하고 학준은 공급일군들의 수고를 헤아렸다.

공급과장은 시름이 놓인다는듯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문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학준은 연필을 들고 공급명세서를 더듬어내려갔다. 쌀, 콩, 팥 그리고 당과과 같은 주식으로부터 시작된 품종은 간장, 된장, 시금치를 비롯한 남새류, 주류, 사과와 당과류, 편지지에 이르기까지의 생활필수품 등 200가지가 훨씬 넘었다. 마지막 종이장까지를 넘기고나서 다시 처음부터 물품명세를 더듬어가던 학준의 붉은 연필이 한 물건이름우에 멎었다. 그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밑에 줄을 뿔-하고 그었다.

《이 많은 물건을 꺼들이느라고 수고했소.》 하는 말을 듣게 되리라고 여기며 담배를 구수하게 태우고있던 과장이 쏘파에서 급히 엉덩이를 들었다. 지배인의 결으로 다가온 그는 어깨너머로 종이장을 굽어보았다. 밑줄은 《성냥》이라는 글밑에 그어져 있었다.

후방공급과장은 영문을 알수 없어 눈을 치뜨며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하루 한갑 기준으로 실었으니 모자라지는 않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학준지배인은 밑줄을 그은 글자우에 연필그루를 동안뜨게 박으며 잠시 말이 없었다. 저런 끝에는 반드시 어떤 파업이 떨어진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과장은 마른침을 삼키며 지배인의 입을 지키고있었다.

《과장동무, 아무래도 상업관리소엘 한번 더 다녀와야겠소... 라이타돌이 있는가 알아봐주시오.》

《성냥을 자그만치 두상자나 실었는데 불쏘시개를 하지 않은답에야 그계면 충분할겁니다.》 과장의 의견이었다.

학준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급과장을 커다란 해도가 걸려있는 벽앞으로 불렀다. 여러가지 푸른 색으로 그려진 해도우에는 한줄기 가느다란 붉은 줄이 표시되어있었다. 그것은 어선대의 이번 배길이었다. 화살끝은 《ㄱ》라는 해구에 닿아있었다.

《과장동무, 이번에 우리 동무들이 찾아가 작업할

어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고 태평양서북부의 한바다를 지시봉끝으로 짚어보였다. 조국의 령해를 벗어진 다음에도 두개의 바다. 두개의 해협, 대양에서의 항해... 해도우에서 보기만 해도 《조국으로부터 멀긴 멀구나...》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곳이었다.

그런데 어선대의 먼바다 작업해구와 라이타돌사에 어떤 련관이 있는지 과장은 해도앞에서 물려서면서도 선뜻 알아차리지 못했다.

학준지배인은 해도를 등지고 돌아서며 《하지》 절기에 왜 담배에 곰팡이가 끼는가고 물었다. 너무나 뻔한 일을 가지고 묻는 바람에 과장은 《그거야 누기때문이지요 뭐.》 하고 중얼거리었다.

《먼바다엔 가면 <하지>한철이 아니라 일년내내까지 누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마를 사이 없는 사람이 어로공들입니다.》

《지배인동지, 그만하십시오. 성냥이 체구실을 못한다는 말인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과장은 벗어지기 시작한 이마를 문지르며 난처해했다.

《성냥공장 지배인을 뒤욕먹이지 말고 담배불을 우리가 책임집시다. 물을 떠나 물우에 뜨고보면 하찮은 담배불에도 신경이 간답니다.》

《후방공급일군 20년에 못들은 소리가 없지만 담배불까지 책임지라는 말은 지배인동지에게서 처음 듣습니다. 허허허.》

《알아들었다니 반갑습니다. 그럼 내 상업관리소 소장동무에게 전화를 걸어줄테니 올라가보시오.》 학준지배인은 말을 마치며 송수화기를 집어 들려했다.

공급과장이 황급히 그것을 만류했다.

《라이타돌 몇알을 해결할수 없어 내가 지배인동지의 힘을 빌게 되는 때면 자리를 스스로 내놓겠습니다.》

두사람은 마주보며 높지 않은 목소리로 꺾꺾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누르며 전화종이 요란히 울렸다. 평양에서 내려오는 시외전화였다. 학준지배인은 책상우의 일력을 자기앞으로 잡아다리며 전화를 받았다.

《포진수산 지배인입니다. 국장동지십니까. 우리야 다들 건강합니다. 먼바다 출항말입니까? 네, 네, 계획에 없던 병맥주까지 좀 실었습니다. 하하하, 공급을 잘 조절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학준에게서 먼바다어선대의 출항준비정형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다 듣고난 원양수산관리국장은 무엇이 더 제기 될것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학준지배인은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먼바다가공모선에 《원양우편소》 같은것을 하나 조직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그가 물고기잡이와는 양
청같은 우편통신문제를 제기하는데는 그럴만한 사
연이 있었다.

지난해 학준이가 운반선을 타고 승선지도 나갔을
때였다. 그는 떠나면서 그래도 지배인의 승선지도
인네 빈손으로 가셔야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여느때
보다 식료품을 꾸집히 실게 했다. 방금 딴 복숭아와
추리, 청신한 물오이, 배풍뎡이 맥주통, 러과담배
상자... 물이 아득한 먼 바다어장에 나타나면 모두
들 두손에 떠받들리울것들이었다. 그러나 운반선에
몰려온 작업선의 어로공들은 학준이가 탁 터쳐놓
은 그것들보다 편지자루와 신문포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학준은 그들에게서 뺨을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얼
굴을 붉혔다. 그는 그때 만리 먼바다에서 바라는것
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학준은 조국으로
돌아오자 먼바다로 나가는 배가 있기만 하면 가족
들과 학교애들(이들의 학부형은 거의나 어로공들
이었다.)에게 꼭꼭 편지를 씌워 실어보내곤 하였던
것이다.

시외전화를 끝낸 학준지배인이 송수화기를 내려
놓자 후방공급과장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능
청스러운 눈으로 학준을 바라보며 라이타돌을 구해
오면 또 어떤 과업이 제기되겠는지 궁금하다고 한
마디 뭉을 던졌다.

김학준지배인은 의사등반이에 몸을 젖히며 웃음
보를 터뜨리었다. 밝은 미소가 활짝 피였으나 그의
얼굴은 부석부석하였다...

《과장동무, 한 과업이 끝나면 반드시 새 과업이
또 뒤따르지요. 그러나 이렇게 바빠 살 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랍니다.》

《내 지배인동무 방문력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한
숨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한것이 정말 어리석었습
니다. 허허허.》 하고 과장은 성큼성큼 걸어 방을
나갔다.

전화로 자재과장을 찾아 배들에 기름과 먹을 물
을 실은 정형까지 료해한 학준지배인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30분전 1시였다. 그는 급히 책상우의것들
을 간중그러놓은 다음 노트를 들고 방을 나섰다. 승
용차 《경쟁》이 현관앞으로 굴러왔다.

《군당으로 가겠소,》 차에 오르며 학준이 운전수
에게 말했다. 군당이 자리잡고있는 읍거리까지는 1
0분 차길이였다.

정문을 빠져나와 잠시 읍거리를 향해 달리던 승
용차는 슬그머니 오른쪽으로 돌아 사택마을길로 접
어들었다.

《차를 어디로 몰아가오?》 하고 학준이 놀란 눈

으로 운전수의 옆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 아직 조반전입니다.》 차를 어디로
몰아가야 하는가를 안다는 투의 대답이다.

그제야 학준은 새벽별을 이고 항갈령너머에 있는
과수농장을 다녀온 일과 현장을 돌아볼 때 가슴이
몹시 쓰리던것이 생각되었다.

《그러구 보니 내가 식량을 한끼 절약한 셈이군
허허.》 운전수의 고집을 잘 아는 학준은 이렇게 어
리손을 치며 일을 보고 와서 식살 하자고 했다.

운전수는 머리를 저었다.

《위병 환자는 식사를 제때에 하는게 기본입니
다.》

《또 그 소리로군.》

《지배인동지, 어서 운전대를 놓으십시오. 제격
식살 하시고 올라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운전수
가 더 안타까와했다.

《밥은 후에 먹어도 되지만 당에 사업보고 하러
가는 걸음이야 지체하면 안되지. 어서 차를 돌리
오.》 학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순간의 지체
도 허용않는 힘이 있었다.

운전수는 더 이상 자기 고집을 세우지 못하고 차
를 돌려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사품함을 열고 먹음
직한 시뻘건 사과 한알을 꺼냈다. 과수농장에 갔을
때 몇알 얻은 모양이었다.

《속을 너무 비우지 말고 한알 잡수십시오. 잘못
하다간 위를 더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관심해주어 고맙소.》 학준은 사과를 어루만지
며 슬그머니 시선을 차창밖으로 돌렸다.

얼마후 학준의 차는 군당정문앞에서 멎었다. 차
에서 내려 접수실로 향해가던 김학준은 《아버
지!》 하고 부르는 귀에 익은 처녀애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길건
너 사진관에서 나온 애 둘이 그에게로 달려오고있
었다. 학준은 두팔을 벌리고 그들에게로 마주 향해
갔다.

《너희들이 웬일이냐?》

《아버지, 우린 방금 엄마랑 함께 사진기앞에서
찰칠했다. 두번씩이나.》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막
둥이딸이 나비리봉을 한들거리며 해해거렸다. 뒤미
처 트레머리에 진밤색비로도 치마저고리차림의 안
해가 애들 뒤에 다가왔다.

그제야 학준은 며칠전 군대에 나가있는 딸딸에게
서 편지가 왔었다는것과 동생들이 보고싶다는 구절
을 읽고 안해가 가족사진을 한장 보내자고 하던 말
이 문득 생각키웠다. 그런것을 자기가 종내 시간을
내주지 않으니까 애들을 앞세우고 사진관을 찾은
모양이었다.

《그래 사진을 곱게 찍었나?》 학준은 안해의 기색을 훑쳐보며 딸애에게 말을 건네었다. 그의 말꼬리를 안해가 붙들고 꾸념을 했다.

《당신이 없다구 사진이 안되겠어요...》

《영희야, 어머니 뽀 났구나.》 하고 학준은 딸애의 엉두처럼 빨갭게 익은 불을 다독여주며 능청을 부렸다.

《당신이야 어디 우리 집 세대주예요? 손님이지...》 안해는 한마디 더 했다.

《못하는 소리...》 학준은 정색했다.

집안에서나 해야 할 잔소리를 외인이 있는, 그것도 길거리에서 지껄이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 학준의 안해는 《아버지 바쁘신데 어서 돌아들가자,》 하고 애들을 돌려세워가지고 황급히 떠나갔다.

김학준지배인은 멀어지는 그들을 지켜보며 사진한장, 시간 일이십분때문에 이처럼 부부간에도 다룰수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다. (이게 생활이란게지.)

김학준지배인이 군당에 들어가 먼바다출항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나왔을 때 해가 머리위에 높이 떠있었다.

정문을 나서며 학준은 팔목시계를 보았다. 어로 공들앞에서 할 출어식 보고도 몇자 굵적거리야 했고 라이타돌이 해결되었는지 다시 알아보아야하고... 할 일은 아직도 많고많은데 그에게 차례진 시간은 이제 2시간밖에 없었다.

그는 조금해지는 마음을 안고 세워놓은 승용차앞으로 다가갔다. 차는 비어있었다.

《이사람이 어델 갔나?》 하고 학준은 사업노트를 차안에 집어넣으며 길거리를 둘러보았다. 운전수는 얼마전에 안해와 애들이 들렀던 사진관앞에서 웬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학준은 그를 부르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언제나 일군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다보니 길에서 가까운 동무들을 만나도 고개나 한번 끄떡하며 지나쳐야 하는것이 승용차운전수라는데 생각이 미쳤기때문이었다. 학준은 의자에 올라앉아 담배 한대를 꺼내들었다.그것을 천천히 다 태우도록 두 청년의 이야기판은 끝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그들은 도간도간 사람들로 불비는 유보도 좌우를 살피군하였다.

(누굴 기다리는 모양이군.) 학준은 그들의 《친구》가 나타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줄수는 없어 잠시 더 기다려주다가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운전수가 동무와 급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 길을 건너 뛰어왔다.

《나오신지 오랩니까?》 하고 그는 서둘러 차에 오르며 지배인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승용차운전수

들이 제일 웅색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때이다.

《방금 나오는길ियो.》

운전수는 안도의 숨을 쉬며 점화스위치의 열쇠를 돌렸다. 승용차는 길우에 하얀 배기가스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김학준지배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에 홀로 남은 청년은 팔목시계를 힐끔 내려다보고는 가로수에 등을 기대이고있었다. 기다리기에 지친 모양이었다.

《어데 있는 동무요?》 몸을 바로잡으며 학준이가 운전수에게 물었다. 그는 승용차를 타고 오가는 길에서 운전수와 담화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이런 시간에 지배인의 방에선 좀처럼 들을수 없는 사업박의 생활이야기를 적지 않게 얻게 되기때문이다.

운전수는 달리는 길우에 눈길을 박은채 지배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학두봉의 영섭이?...) 학준은 다시 뒤를 돌아보았으나 사진관앞의 가로수만 어슴푸레 보일뿐이었다. 외출, 가까운 동무, 사진관... 학준은 영섭갑판장의 외출목적을 어렵곳이 짐작할수 있었다.

김학준지배인은 운전수의 입을 통하여 지금 영섭이가 초조히 기다리고있는 사람은 수산기계설계사업소의 너기사 최은경이라는것과 그들은 지난 겨울 명태잡이전투때부터 사귀고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먼바다로 떠나는 날을 기념해서 사진을 한장 박는단말이지! 좋은 생각이야.) 학준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영섭이네가 어제쯤 사진관을 찾지 않은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지금 찍으면 아무리 속성으로 한다고 해도 가지고 갈수는 없었기때문이었다.

물에서는 별랑게 보고 말 사진까지도 먼바다에선 사람의 손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학준이었다. 3년전 일이지만 《학두봉》 호와 기관 조기수가 뜻밖에 쌍둥이 아버지로 되었다는 축하전보가 날아오고 뒤따라 윤반선이 애들의 사진을 실어왔을 때 배전밖에선 을씨년스러운 얼음장이 떠돌고있었지만 어선대는 얼마나 흥성거렸는가.

《해일이, 해남이 이름이 좋구만.》

《고만 보구 넘기라구.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낫소. 아마 씨보다 딸이 더 좋은 모양이야 하하하.》

《아들 없는 사람 부러워 살겠나.》

《부러워할게 있나. 해남이, 해일이 사진을 공동선실에 척 걸어놓으면 될게 안야. 사진아래엔 <먼바다의 미래의 아들>이라고 써붙이고.》

무슨 소리인들 없었으랴. 밤은 깊어갔으나 그들

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다음다음 사진은 배전들을 넘었으며 작업선의 모든 선실마다를 거치였다. 종주먹을 땀뿌며 병글거리는 해남이와 해죽거리는 해일이의 복스러운 얼굴은 사진을 보는 이곳 사나이들에게 불밝은 고향집을 안아보게 했고 떠나온 고향포구와 숨결을 느끼게 했다. 허기에 그 들은 사진을 넘기면서 《자 한물 해보지.》 하고 풍파사나와도 닳을 울렸으며 얼음산과 맞다들었을때에는 《애들이 웃겠소. 까짓거 밀고나가지요.》 하면서 샷대를 들고 배머리에 나섰었다. 학준지배인은 그때의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곤하였다.

승용차는 덤비지 않고 달리었다.

학준지배인은 의사등받이에 몸을 누우며 영섭이와 나란히 선 처녀를 그려보았다. 은경이라는 이름으로 보아 성격은 유하고 섬세할것이다. 그리고 얼굴은 가름하고 살결은 맑을것이다. 그러한 얼굴엔 쌍까풀진 눈과 초생달눈썹이 어울린다. 물론 처녀의 코는 납작해서는 안된다. 몸이 부하지 않다고 보면 양복보다 길지 않은 통치마에 저고리가 어울릴것이다. 상상을 이처럼 굴리고보니 이제는 은경이라는 산 처녀가 학준의 눈앞에 얼른거리기 시작하였다.

차바퀴가 돌뿌리를 찢는지 경충 뛰었다. 맹랑한 생각에 빠졌다가 천반을 받은 학준지배인은 자기로서도 어처구니가 없어 허허 하고 혼자 웃었다.

기아변속을 하던 운전수가 웬 영문인가 하여 그를 쳐다보았다.

(영섭이 그 사람이 시간은 지켜야겠는데...)

학준의 들뜬 기분은 승용차가 사업소 정문에 들어설 때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

《학두봉》호를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돌아보고 부두로 내리던 김학준지배인은 보행교중간에서 영섭청년과 마주쳤다.

《잘 찍었나?》 학준지배인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알은체를 했다.

고개를 떨구고 지배인의 걸을 지나치려던 영섭이의 걸음이 멈추어졌다.

《수산기계공장에서 무슨 소식이 왔었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물음이었다.

학준은 영섭이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온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갑판장의 기색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입은 꼭 다물려있었다. 웃음이 피고 코노래까지 흘러나오는 때에는 입술은 언제나 버그려져있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만나보지 못했소?》 하고 학준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배인동지, 허락받은 시간내에 돌아왔습니다.》 영섭갑판장은 지배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고는 우로 올라가버렸다. 자기 선실로 멀어져 가는 영섭이의 후줄근한 모양을 오래도록 지켜보던 학준지배인은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와 송수화기를 들었다. 마침 수산기계설계사업소 실장이 전화를 받았다.

학준지배인은 최은경이라는 녀기사가 출장에서 돌아왔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류를 타고 들러올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가슴은 은근히 긴장되었다.

설계사업소 실장은 수산사업소에서 자기 직원에 대하여 캐묻는것이 의아했던지 대답은 주지 않고 오히려 왜 그러느냐고 되물어왔다.

학준은 처녀의 숨은 생활 (아름답기는 하지만)을 드러내놓을수도 없고 해서 진땀을 뺐었다. 사공 배머리 돌리듯하는 재간을 못가진 학준이었다. 그는 한동안 진땀을 뺐은 《값》으로 정수기설계도면을 가지고 관리국에 올라갔던 최은경기사가 오늘 12시 급행차로 돌아왔다는것과 출장보고를 하고 그동안 밀린 문제들에 대한 소장의 설명을 듣느라고 점심시간이 펍 지나서야 정문을 나갔다는것을 알아내었다. 그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구 보면 최은경이가 눈치를 모르는 자기네 소장실에서 조바심치고있을 때 영섭이는 사진관 앞에서 죄없는 담배를 한갑이나 태운것이였다. 사진관에서의 약속이 어그러지고 수산사업소의 어선대가 오늘 먼바다로 떠난다는것을 모를수 없는(수산사업소 사택마을은 물론 읍지구에서까지 부두에 환송나오게 되어있으니)은경이로서는 심분 부두가로 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질수 있었다. 이러한 사연을 알지 못하는 영섭이고 보면 불이 부어 보행교를 오를만도 했다. 그러나 이제 처녀가 나타나 《잘 다녀와요.》 하고 바래워주기만 하면... 옳지, 이때 그의 뇌리에는 정채로운 한 장면이 떠올랐다. 김학준지배인은 눈귀에 얹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과 마주앉았다.

《예 선장동지십니까? 그 오늘 출어식에 사진 몇장 찍읍시다. 예, 꼭.》 송수화기를 놓은 김학준은 출어식에서 연설할 원고 몇자를 적기 위해 필을 들었다.

출어식은 간단했다.

지배인 학준이가 보고를 하고 어선대를 대표하여 《학두봉》호 선장이 결의토론을 했다. 뒤이어 대렬보고들이 있었다. 대렬이 흘러지자 바래우려 부두에 나온 종업원들과 가족들, 동무들이 어로공들과 어우려져 돌아갔다. 어선의 사진사로 불리우는

기계사는 언녕부터 사진기를 척 메고서서 학준지배인의 눈치만 힐끗힐끗 엿보았다.

학준지배인은 먼길을 떠나는 어로공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영섭갑판장에게 다가가는 낯선 처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에게 자주 눈길을 보낼뿐 사진에 대해선 감쪽같이 잊은것만 같았다.

등에 업은 애의 얼굴을 남편에게 내보이며 무엇이라고 속살거리는 조기수의 젊은 안해, 마다하는 아들에게 커다란 사과구력을 쥐여주며 어서 배에 오르라고 손짓하는 머리 흰 어머니, 가슴에 매달리는 막둥인듯싶은 아들을 번쩍 머리위로 들어올렸다 내려놓으며 《10점짜리 시험지들을 아버지에게 보내야 한다.》 하고 병글거리는 중년 어로공, 부탁받은 소설책인가싶은것을 종이꾸레미에 싸들고 누구인가를 찾고있는 도서보급원치녀, 정박의 밤에 심심치 않게 가지고 놀라고 자기의 하모니카를 넘겨주는 공무직장의 선반공청년... 대렬보고 이후 가공직장치녀들이 떠나는 어로공들의 가슴에 꽃묶음을 안겨줄 때 뺑동직장의 지게차 운전수이며 사업소의 꾀꼬리로 알려진 처녀가 영섭이와 잠간 마주했을 뿐 낯모를 처녀는 종시 보이지 않았다.

《승선!》 하는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떠날 사람들은 방금 받아안은 꽃묶음과 꽃목걸이들을 머리위에 흔들며 배에 오르기 시작했다. 기계사도 자기의 사진기술을 자랑하지 못한채 뒤더수기만 급적이며 어선에 올랐다.

《종철이, 올해도 솜씨를 보이고 돌아오라구.》

《만선소식만 전파에 실어보낼테니 기다리게.》

《물건강들 하세요.》

《치녀동무들, 건강할테니 운반선편에 종종 편지들이나 한장씩 보내시오. 하하.》

갑판에 오르는 어로공들과 물에서 손을 저어주며 봄비는 사람들사이에 마지막 인사들이 오가고 있었다. 서편으로 기운 해가 부드러운 해발로 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고있었다.

영섭이를 살피고있던 김학준지배인은 어로공의 마지막 사람들이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게 되자 팔목시계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금색의 가느다란 초침은 훌쩍훌쩍 뛰면서 시침을 3시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학준지배인은 못볼것을 본 사람처럼 급히 팔소매를 내리었다. 그러나 《땀을 올렸!》 하고 출항을 명령해야 할 《3시》라는 수자는 눈에서 지워지지 못했다. 그는 동무들이 다 오후에도 잠시 부두에 머뭇거리고있는 영섭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섭동무, 3시가 다 됐소...》 학준은 입술끝으로 속삭이듯 말했으나 영섭이는 흠칫하고 놀래는듯

싶었다.

인사를 하고 보행교를 치달아오르던 영섭갑판장은 중간계단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정문밖을 보았다. 미련이란 참으로 집질긴것이다.

정문밖의 길우에는 갈매질을 하며 뛰어다니는 누렁이 두마리가 있을뿐이었다.

(허 랑패로군.) 학준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사다리를 오르는 영섭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리었다. 어선대의 첫출항을 두고 성수가 나있어야 할 그의 마음은 이 순간 납덩이를 안은듯 무거웠다. 자기생각에 빠진 김학준은 배의 선장과 부두의 일꾼들이 시계들을 보며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지령장이 그에게 다가와 출항시간이 되었다고 조용히 귀띔했다. 그제야 학준은 자기로 돌아왔다.

어선대의 마스트우에서 빙빙 감돌던 갈매기들이 출항밖으로 훨훨 날아가며 《끼룩-끼르룩-》 하고 울고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어서 떠나자요. 어서요.》 하고 재촉하는것 같았다.

학준지배인은 다시 정문밖을 살펴보았으나 거리는 여전히 비어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나서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배전과 부두엔 순간 모든 음향이 멎었다. 지배인의 쳐들린 저 손이 내리워지면 배고동이 울릴것이고 땀을 올린 어선대는 부두를 떠날것이다.

김학준은 손을 뻗하고 내리려다 말고 배전에 나와 선 영섭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갑판장동무, 내 만나서 편지하도록 이야기하지.》

영섭이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필요없습니다...》

학준지배인은 영섭이의 대답이 진심의 말이 아니라는것을 알면서도 더 다른 말을 잊지 못했다. 천마디 위로의 말보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것이 너무나 명백하기때문이었다.

김학준은 영섭에게서 눈길을 돌리며 올렸던 손을 내리웠다.

《붕-》

출항의 배고동이 항구를 흔들며 울리었다. 선원들이 부두에 드리웠던 계류삭들을 거두고 권양기가 땃사슬을 천천히 감기 시작하였다.

부두에서 봄비던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투며 끌어들 밀려나갔다. 남편과 아들을 바래우러 나온 가족들은 남보다 앞에 나서려고 결사투의 신발을 밟는것도 모르고 덤빈다. 사람의 물결에 파묻힌 한 아낙네는 안아들었던 어린애를 자기의 어깨우에 높이 앉히며 《아버지 보시게 손을 흔들려라.》 하고

발돋움을 한다...

그래서인지 부두를 떠난 배들도 선뜻 방과제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항구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한바퀴, 두바퀴... 어머니의 부드러운 젖가슴에서 차마 손을 떼지 못해하는 젖떼기 어린애의 심정과 같다고 할가.

김학준지배인은 계획에 없는 항구만에서의 회전 항해때문에 항해시간이 지연되는데 대하여 조금도 나무람하지 않았다. 만약 배들이 닻을 올리는 걸음으로 쪽 빠져나갔다면 오히려 물을 쉽사리 등지는 그들을 두고 섭섭해했을것이다.

부두안에 커다란 물원을 세개나 그려놓으며 신흠안해의 눈굽까지 축축케 한 《학두봉》호는 서서히 방과제박으로 배길을 잡았다.

어신대의 배들이 한척, 두척 항구를 벗어나가기 시작하자 사업소 선전대악사들은 갈매기들을 놀래웠고 가공반처녀들은 손나발을 해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소리들을 쳤다. 개중에는 《호-》하고 남모르게 어깨숨을 쉬는 처녀도 있었다.

방과제박으로 배머리를 내미는 배들을 지켜보며 손을 흔드는 군중들은 이때 자기들의 등뒤에 웬 처녀가 나타나 발을 구르고 있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승용차에 발동을 걸려고 뒤로 돌아서던 운전수였다. 《지배인동지.》하고 그는 학준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아다려 뒤쪽을 가리켰다.

운전수의 손길을 따라 눈길을 돌리던 학준지배인은 꽃묶음(학준은 그렇게 보았다.)을 안고 부두를 떠난 배를 멍하니 지켜보고있는 후리후리한 키의 처녀를 보았다. 콘색스카트에 붉은 모세타, 가는 실눈섬밀의 맑은 눈... 옷차림이나 얼굴생김이 차안에서 자기가 그려낸 처녀와는 판판 달랐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학준은 첫눈에 짐작했다. 처녀를 지켜 살피는 지배인의 눈확연 불만의 쓴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문을 나섰다는 시간이 언제야 나타남. 발이 짧기란...참.) 학준이는 항구를 벗어나간 어선대를 바라보며 입을 다셨다. 그는 욕이 나가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최은경동무라 부르지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우리 갑판장의 숙을 누가 것처럼 태우는가 했더니 바로 동무였구만.》

김학준지배인의 목소리에선 질책보다 안타까움이 더 진하게 풍겼다. 고기떼를 찾아 물을 떠날 때가 가까운 사람의 얼굴이 부두가에 언뜻하고 한번만 보여도 가슴 흐뭇하던 젊은 시절을 가지고있는 학

준이었다.

《내 수산사업소 지배인인데 한가지 물어보지요. 어데 갔더랬소?》

《.....》 은경이는 고개를 들고 멀어져가는 배들을 안타까이 지켜볼뿐 선뜻 사연을 토설하려 하지 않았다.

《먼바다라는곳이 마을들이 다니는 이웃도 아닌데 한발 먼저 찾아와 배래워주면 못쓰요? 더우기 약속까지 한 처지에.》

처녀는 가슴에 안고있는 꽃가지에 얼굴을 비비며 《후-》하고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김학준지배인은 때늦게나마 나타난 어린 처녀를 너무 나무람하는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처녀를 주의깊이 살펴보았다. 신에 게발린 시누런 진흙, 옷설에 매달린 술검불 그리고 가슴에 안고 있는 진달래, 송글송글한 땀방울로 화락하니 젖은 앞머리칼... 김학준지배인의 눈길은 처녀의 젖은 이마에서 다시 미끄러져 진달래꽃가지에 와 멎었다.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레사로운 꽃묶음인줄로 여겼었다. 그런데 지금 찬찬히 보니 그것은 푹푹가지를 꺾어 묶어든것이 아니라 뿌리채 정성스레 따서 화분에 담아들고 온것이였다. 진달래꽃묶음이 아니라 진달래화분이 처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학준은 때늦게야 그것을 알아본 자신을 꾸짖으며 은경이의 꽃화분을 조심히 받아들였다. 꽃나무는 공원의 고양나무처럼 키는 낮으면서도 가지들이 호합지게 생긴것인데 배불리게 맺힌 꽃봉오리 몇은 발가우리한 꽃잎을 벌리고있었다.

철이른 시기에 이만한 진달래를 뜨자면 술꿀언덕에 올라야 한다는것을 아는 김학준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진달래꽃송이를 이루만졌다.

《산에 갔었던말이지!》

《저는 배들이 오늘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두르느라고 했는데 그만...》 하고 은경이는 자기가 산에 가게 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경이가 관리국으로 떠나던 날 그를 배래우려 역에 나왔던 영섭이는 은경이에게 조선화 《조국의 진달래》를 사다달라고 부탁하며 먼바다 어로공들은 진달래꽃모양마저 잇을것 같다고 뜻깊게 한마디 했던것이다.

웁은 말이였다. 1차어선대를 타고 물을 떠나는 사람들은 거의나 조국의 산발에 아지랑일 앞세운 연두색 봄아씨가 어떻게 찾아왔다가 언제 가버리는지를 모른다. 첫교대로 돌아오는 경우예조차 그들은 연분홍 진달래를 보기 힘들다. 《삐죽-삐죽-》하는 산새의 울음소리를 신기하게 여겨듣는것도 이러한 사연때문이었다.

《은경동무,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소. 망망한 먼 바다위에 조국의 진달래가 핀다! 얼마나 뜻이 깊소.》 학준지배인은 자기의 감동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쏟아놓았다.

《이 한송이 진달래꽃은 먼바다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대신할수 있소.》 하고 학준지배인은 꽃화분을 높이 쳐들어보였다. 그리고는 선대를 일렬종대로 맞추고있는 방파제밖의 배들을 지켜보며 운전수에게 지령실에 달려가 빨리 무선대화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잠시후 대화기를 받아든 학준지배인은 은경이를 가까이 오게 하면서 그것을 쳐들었다가 전원을 넣고 말했다.

《<학두봉> <학두봉> 나 <남대천> 1번이요. 내말을 듣소?》

《<학두봉> 들읍니다. 선대는 잠시후 전속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장은 부두를 떠난 어선대의 항해정형이 궁금하여 찾은것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선장동무, 전속항해를 시작하기전에 다시 부두에 들어왔다가야겠소. 지체 말고 배머리를 돌리시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선장은 불안해했다.

김학준지배인은 귀밀을 간지럽히는 실바람을 안고 한들거리고있는 연분홍 진달래를 이윽히 지켜볼뿐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참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부두는 순간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해졌다. 암벽을 어루만지는 잔물결소리만이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지배인동지 들습니까?》 하고 선장이 대답을 재촉했다.

《듣고있소. 선장동무 입항하면서 마스트의 1호 기중기를 준비하십시오. 운전공 자리엔 집관장 리영섭동무가 앉게 하고 사진사동무는 한카트찍을 준비를 하고 대기하십시오 복창하십시오.》

최은경녀거사는 숨을 죽이고 배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감격의 해일로 마냥 설레고 눈빛은 숏볼처럼 타올랐다. 은경이는 한송이 진달래꽃을 값높게 사주는 지배인 김학준을 지켜보며 뜨거운것으로 눈귀를 적시었다.

만속으로 달리려던 《학두봉》호는 지배인의 지령대로 서서히 배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배길위에 앞서 날던 갈매기들이 머루알같은 까만 눈알을 때룩거리며 영문을 몰라 갈갈질광했다.

《지배인동지, 저 화분 하나때문에 정말 배를 돌

려세웁니까?》 하고 학준의 뒤에 다가와 대화기소리를 듣던 후방공급과장이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배에 한 다리만 올려놓아도 멀미를 하는 후방공급과장은 목을 움츠리며 슬그머니 한발 물러섰다.

《학두봉》호가 잔물결을 일으키며 부두앞으로 다가왔다. 항구만에 떠돌던 고불통 물오리들이 황급히 자맥질하여 길을 내었다.

1호기중기 운전실에 앉아있는 리영섭집관장이 무슨 영문인가 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부두를 더듬어보고있었다. 10톤급 1호기중기가 들어올릴 짐이 어떤것인가 하고 하는 모양이었다.

학준지배인은 은경이의 가슴에 진달래를 다시 안겨주며 잔등을 떠밀었다.

《어서 부두끝으로 나가오. 영섭동무가 저렇게 두리번거리고있지 않소.》

재촉에 못이겨 은경이는 첫날 색시의 걸음으로 배마중나갔다. 한걸음, 두걸음.

환송군중들의 앞을 나선 그를 때늦게 알아본 영섭집관장은 용수철에 튕긴 사람처럼 기중기운전실에서 후닥닥 뛰어나와 배전에 매달렸다, 찰칵 이때 멋진 사진기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들었다.

《은경동무!》 《영섭동무!》 하고 목메여 서로 부를줄 알았는데 웬걸 두쌍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친채 움직이지 않을뿐이었다.

학준지배인은 그래도 좋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사이에서는 침묵으로써도 천만마디의 말을 할수 있다는것을 아는 그였다.

그는 배우를 쳐다보며 기중기 활차를 내려보내라고 신호했다. 팔뚝같이 실한 쇠바줄에 매달린 활차가 부두우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은경동무. 활차고리에 진달래화분을 매다오.》

학준지배인이 다시 귀땀했다.

은경이는 자기 손에 받들려있는 화분과 거인같은 기중기를 번갈아보며 말했다.

《저렇게 큰 기중기에 화분 하나를...》

《나는 더 키높은 기중기 팔이 없는것이 오히려 유감이요.》

《지배인동지, 고마와요.》

《원 누가 할 소리...》 학준은 눈을 슴벅이었다.

진달래화분은 서서히 공중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히 붉어보였다.

영섭집관장은 진달래가 배전앞에 이르자 운전을 멈추었다. 순간 배와 부두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가 터졌다. 깊은 감동에 자기를 잊고있던 선전대 대장이 지휘봉을 높이 쳐들며 악사들에게 소리쳤다.

《동무들 환영곡! 힘차게.》

영섭이는 한손을 들어보인후 다시 기증기를 움직였다.

《지배인동지, 저 진달래는 눈속에서도 피게 되겠지요?》 처녀의 잔걱정이다.

《은경동무, 진달래는 먼바다에서 필거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의 봄을 안겨주며말이요. 내 말이 맞소?》

《아이... 지배인동지 생각이 올겠지요 뭐.》 처녀는 귀뿌리를 파리처럼 붉히며 수태를 머금었다.

김학준지배인은 손을 쳐들어 보였다.

《붕-》

두번째 출항의 배고동이 다시 울렸다.

학준지배인은 가벼운 마음을 안고 쳐들었던 손을 내리웠다.

《지배인동지, 만선의 전과를 기다리십시오.》 하고 진달래를 머리우에 높이 쳐든 영섭갑판장이 부두를 굽어보며 소리쳤다.

김학준지배인은 영섭이의 작별인사가 누구에게 가는것인가를 알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은경이를 보며 미소했다.

《학두붕》 호는 사람들의 환호속에서 서서히 부두를 떠났다.

부두의 사람들도 흩어져갔다.

은경이를 바래우고 사무실로 향하는 학준의 곁으로 후방공급과장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한동안 묵묵히 따라 걸었다. 흩어지는 군중의 물결

도 얼마간 성기여지고 곁에 사무원들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지배인을 부르며 걸음을 멈추었다. 학준이는 그와 마주섰다.

《지배인동지, 나도 먼바다 바람을 좀 얻어맞고 와야겠습니다. 생각되는 점이 많습니다.》

학준은 과장이 무엇을 녀두에 두고 자기의 속심을 헤쳐보이는지 첫마디에 알아들었다. 근심은 외곽으로 오지 않는다더니 기쁨도 그런가보다.

《잘 생각했습니다. 먼바다를 다녀오면 조국의 흠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귀중한지를 심장으로 알게 됩니다. 다음 어선대에 올라 함께 다녀옵시다.》

《진달래가 기증기에 달려 올라가고 환영곡이 울리고 할 때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눈곱이 뜨끔했습니다.》 과장은 차마 이 말은 못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과장동무, 먼바다 배길에 나서기전에 어로공 가정들에 구멍탄을 모두 공급해야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 다리 쉽 할 짬도 없게 한다고 욕하지 말라구 허허.》

두사람은 소리내여 크게 웃었다. 앞서 걸어가던 종업원들이 뒤를 돌아보며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었다.

김학준지배인은 담배 두대를 꺼내여 과장에게 한대를 권하고 자기도 붙여물었다.

학준은 폐장깊이까지 연기를 끌어들었다가 천천히 내불리우면서 과장에게 말했다.

《오늘 담배맛은 류달리 구수한데요!》

가사

값있게 살리라 순간순간을

김정호

이 땅에 흐르는 평범한 날에도
그 어이 한시인들 헛되게 살라
귀중한 매 순간 빛내여갈 때
그 삶은 충성의 꽃으로 피리
아, 우리당 받들어
값있게 살리라 순간순간을

한별을 우러러받든 전위들
한생을 다 살아 빛난것이라
투쟁의 길에서 순간을 살아도

영생의 발자취 남겨야 하리
아, 우리 당 받들어
값있게 살리라 순간순간을

값없이 흘러간 순간이 있어
먼 후날 때 늦게 후회하랴
혁명의 길에서 찾은 진리를
영원한 삶으로 빛내여가리
아, 우리 당 받들어
값있게 살리라 순간순간을

전승의 축포오르던 밤에

김원중

나는 오늘까지 수많은 명절들을 맞이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 탄생 기념일과 당창건기념일, 공화국창건기념일, 그리고 당대회를 경축하는 뜻깊은 명절들...

나는 그 명절의 밤마다 하늘가에 꽃으로 피여오르는 축포를 보았다.

축포! 그것은 행복과 기쁨,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다.

축포가 올라 밤하늘을 천만송이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꽃보라가 되어 내릴 때 나는 황홀경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내 언제부터였던가. 그 어떤 황홀감보다도 실로 승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것은,

그것은 아마도 전승의 밤에 오른 축포에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연을 알게 된 때부터였으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가렬치절했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조국산천에 총포성은 멎고 포연이 서서히 걷히었다.

장마칠치고는 보기도물게 맑게 개인 날씨였다.

승리한 이 시각, 모든 사람들은 조국을 지켜낸 인민군용사들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가슴을 열어제끼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것은 온 세계를 진감하는 승리의 함성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불과 2년도 못되는 요람기에 우리 조국을 없애려던 미제는 자기의 추악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15개추중국가군대들까지 합쳐 막대한 병력과 기술기재들을 동원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세균무기,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썼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자신을 파멸에서 구원할수도 없었다.

110여차례의 해외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조선인민앞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것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두고 세계가 들끓었다. 무수한 전파가 우주공간을 메우며 영웅조선의 승리를 축하하고 미제의 참패를 조소하였다.

세계를 경탄시킨 우리 인민의 승리는 오직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당, 전국, 전민을 미제를 쳐부시는 정의의 싸움으로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에 이룩된것이였다.

1953년 7월 28일,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영웅도시 평양에서는 전승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광장을 뒤흔드는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군중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끝없는 환호로 설레이는 전승의 광장에 높이 서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으로!》**라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열광적인 환호! 환호!

그 환호속에는 3년간의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끝없는 영예와 긍지, 크나큰 자부심과 함께 그이께서 잠시라도 쉬실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영광의 광장에서 우리 인민과 전승의 기쁨을 나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석단에서 내리시는 그 걸음으로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강남벽돌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무더운 삼복더위도 마다하지않으시고 나무그늘밑에 잠시 쉬실 사이도 없이 새 소성로를 세울 자리까지 일일이 다 잡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둠이 짙어서야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귀로에 오르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승용차가 폭탄구덩이가 들끓는 성 그대로 있는 대동강의 험한 뚝길을 달려가고있을 때 평양의 밤하늘에는 승리의 축포가 오르고있었다. 축포는 오르고 올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영광의 꽃보라가 되어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건만 수령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이 시각,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시고계셨다.

전체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여 올리는 축배잔을 받으셔야 할 시간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험한 길우에서 우리 인민이 삼가 올리는 축원의 꽃다발마냥 밤하늘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축포를 보시였던것이다.

전승의 축포 오르는 이 시각!

그 얼마나 기다리고기다리던 시각이며 눈앞에 그려보고 그려보던 축포였던가.

원췌를 짓부시면서 남으로 남으로 노도와 같이 진격해나가면서도 준엄한 눈빛인 태백산줄기를 주름잡으면서도 불타는 고지에서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여 그렇게도 바라고 그려보던 이 시각이었다.

모진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승리의 광장, 축포오르는 광장에 높이 모실 이날 이 시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온 우리 인민이었다.

바로 이 시각을 눈앞에 그리며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은 미제의 5만대군과 맞서 싸워이겼으며 피어린 락동강전투에서 부상당한 인민군지휘관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생명의 마지막 15분을 연장해 달라고 절절히 웨쳤으며 한 인민군녀전사는 마지막 당비를 부탁하며 우리걸을 떠나지 않았던가.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승리의 보고를 마련할 영광의 이 시각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웠던가.

하지만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이 력사의 시각에 조차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올리는 축원의 꽃다발이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지 않는가. 진정 순간의 휴식마저 미루시고 인민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불멸의 력사우에 새겨진 위대한 사랑에 목매여 우리는 만세의 환호성을 더 높이 올리는것이 아닌가.

바로 이 시각을 눈앞에 그리며 락원의 10명당원들도 《장군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전쟁만 이겨주십시오...》라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리며 언제나 한마음으로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승리와 미래를 위해 싸우지 않았던가...

전승의 축포 오르던 밤을 눈앞에 그려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간다.

축포! 그것은 다만 행복과 기쁨, 승리와 영광의 상징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우리 인민의 열화와 같은 충성으로 끓어번지는 마음의 분출이라고!

참된 삶

배민옥

생각할수록 안타까웠다. 남들은 글의 제목이 똑 떨어지자 필을 달려 써내려가는데 3일이 지나도록 나만이 이렇게 병어리 뺨가슴앓듯 망설이고있으니 말이다.

참 제목이 《나의 조국》이라든가 《번영하는 수도》라고 하였다면 나는 얼마나 본때있게 이 들먹이는 걱정을 쏟아부을수 있었으랴. 나는 바로 이 글에 이역만리에서 보고들은 모든것, 아직은 단발머리 달짝이던 철없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산 나물캐러 뒤동산에 올랐다가 산굽이를 에돌아 끝없이 뻗 심산속의 그윽한 오솔길을 보고 《우리 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쳐부실 때 바로 이 길에서 축지법을 쓰시여 구름을 타고 조국으로 가셨단다...》 보라. 애야, 저 길은 감나무 주렁진 고향마을의 고개길과 잇닿아있단다.》라고 말해주던 할머니의 그 신비로운 이야기도, 멀리 들려오는 렬차의 기적소리를 듣고 새벽잠에서 깨어서는 밤 하늘에 반짝이는 새별을 우러르며 그리워 속삭여 부르던 나의 조국, 바로 이 마음속 깊이 고이 묻어왔던 절절한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써내려갈것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그 품에 안긴 오늘 매일매시각마다 일사천리로 전진하는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한가슴에 받아안은 이 모든것을 마음껏 찬미하였을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된 삶》이라, 이는 필경 참된 인간의 삶에 대하여 쓰라는것인데 귀국한지 얼마 안되는데다가 줄곧 수도의 변화한 거리로 전차를 타고 직장에 오가는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실로 적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알고있는 참된 인간에 대하여 손꼽아 보았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인공인 영웅중대장, 민족아바이, 영육이 그리고 《그날의 맹세》와 《언제나 한마음》에서 나오는 정순직장장과 락원의 10명 당원들... 나는 그들이야말로 나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참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말이지 내가 만약 한 20년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바로 이 참된 인간들과 함께 불타는 고지에서, 불꽃튀는 용선로앞에서 싸워가며 그들의 불멸의 이야기를 시대의 거창한 교향곡으로 적어 나갔을것이다. 그러나... (에이, 이젠에 모든것은 이미 남이 써놓은것 이미 영화화면을 통하여 수천만 사람들의 심장속에 아로새겨진것이 아닐가?!)

안타까움은 어언간 원망으로 번져갔다.

(에, 참 어머니두, 왜 나를 좀 일찍...) 그러나 나는 허거픈 웃음을 웃고말았다. 글썽 내자신이 이젠 두 아이의 어머니로 되었는데... .

나는 드디어 실망에 빠졌다.

(아니, 틀렸어, 다 틀렸어!)

《엄마, 왜 그래?》

부지중 들려오는 딸애의 쟁쟁한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골몰해있던 내가 딸애의 손목을 잡았던 한손을 쑥 빼내어 뻗 내저었던것이다. 이제 네살밖에 안되는 딸애는 하늘색 나비리봉을 맨 머리를 잔뜩 쳐들고 두눈을 울롱해서 쳐다보았다.

《오, 아니야 엄마가 꿈꾸었어.》

《응? 걸으면서 꿈꾸나?》

《그래.》

혼자 걷기 싫증을 느낀 딸애는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야, 저것 봐, 저기서 영화한냈지? 우리 보자 응.》

《그래, 그래》

딸애의 응석을 받으며 머리를 돌려 영화광고판을 눈여겨보던 나는 불시에 점심밥팩을 넣어 들고 다니던 가죽가방으로 무릎을 탁 쳤다.

《아이구.》

《엄마, 아파? 누가 때려?》

불에 덴듯 무릎관절의 진통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나의 시선은 광고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광고판에서는 《군당책임비서》영화의 주인공 차석빈이가 빙그레 웃음짓고있지 않는가?

(아니, 내가 정말 바보로구나. 어제날의 영웅만 알고 오늘의 영웅은 모르다니. 그래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이야말로 참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 이렇게 뱅뱅 한곳에서만 돌아서야 어찌 참된 인간을 찾아낼수 있으랴. 옳지, 래일 출장신청서를 내여 군당책임비서들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 태성목이가 일하는 발전소에도 《80년대속도》창조로 들끓는 탄광에도 그리고 또...)

이렇게 속으로 련속 주어섬기니 마치 새로운 발견이나 한듯 온몸은 기쁨으로 달아올랐다. 걸음은 참된 삶을 찾아 내달리듯 빨라졌다.

딸애는 나의 손에 끌리어 잦은 걸음으로 달음박

질치였다.

전차정류소가 지척에 보이고 아침출근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질서있게 줄서선 모습이 보여왔다. 정류소에 서있는 잠시간에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초록색교복을 입은 대학생들의 모습도 그속에 드문드문 보이고 재미나게 뭔가 속삭이는 방금 샘치물에서 나온듯한 청신한 처녀들의 아릿다운 자태도 나에게 청춘을 되새겨주려는듯 눈이 시게 보인다.

《엄마, 비가 온다. 봐.》

딸애의 놀란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여름옷을 입은 어깨가 선득선득 해오며 얼굴에도 뭔가 떨어지는 감을 느끼게 되었다. 방금 문밖을 나설 때만 하여도 활짝 개인듯하던 하늘엔 어느덧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몰려오는것이 아닌가. 잠시사이에 하늘에서는 쿵알만쿵한 비방울들이 툭툭 돌기 시작했다. 요즈음은 장마철이라 비가 꽤 많이 내리는데 우산을 잊고 가져오지 못한 나는 제자신을 원망하며 딸애의 손목을 꼭 잡고 길옆에 있는 건재상점으로 달려갔다.

썩, 삽시에 대줄기같은 비가 깨어진 술에다 물을 퍼붓듯이 억수로 쏟아지더니 길바닥에 흰 물보라를 일쿠며 흘러 넘치기 시작하였다. 비물과 함께 떨어진 진록색의 나무잎사귀들은 외로운 쪽배마냥 비발속에 요동치며 물길을 따라 배수구로 향해 흘러간다. 머리칼들이 후줄근히 젖은 사람들이 뺨곡이 선 건재상점문이 방ışı 열리더니 《여기 들어와 비를 굶고 가세요.》 하는 아직 처녀티를 벗지 못한 새색시의 아련한 목청이 사람들을 따뜻이 불러들였다. 나는 딸애의 손을 친채 사람들속을 헤집고 상점안으로 들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따당따당, 비방울은 유리창을 모질게도 두드렸다. 뽕안 비발속에서 가로수들만이 푸른 잎사귀들을 짹짹 펴며 마치 목욕이나 하듯 시원하게 설레이고 있었다.

《엄마, 저 아지민 비가 오는것도 무섭지 않는게지? 응 엄마.》

호기심이 많은 딸애는 목을 빼들고 뺨스길을 살피는 나의 손을 잡아당기며 또 묻는다.

《누굴 보고 그러냐? 봐라, 여기에 비그으려 다 들어왔잖니?》

옆에 선 녀인을 가리키면서 나는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린다고 딸애를 일깨워주었다.

《응, 그런데 저 아지민 왜 비를 맞고있니?》

딸애가 비오는 밖으로 달려나갈것 같은 위구를 느낀 나는 어린것의 손을 꼭 붙어잡고는 못미더운 눈길을 큰길에 돌렸다.

무심히 가로수들 사이를 훑어보던 나는 불현듯 두눈을 크게 떴다. 정말 큰길엔 머리에 빨간 수건을 질끈 동인 한 녀인이 비발속에서 일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몸에 걸친 파르스름한 비옷이 폭 젖어든 작업복에 착 달라붙어있어 그런지 몸집은 펍 체소해보이는데 그 무서운 비발도 느끼지 못하듯 신다리까지 찰랑이는 물속에 두손을 잠근채 무엇인가 더듬기에 여념이 없었다.

《뭘 빠뜨린 모양이지?》

두발을 모두어 발뒤축을 든 나는 비물이 튀어 흐려진 창유리로 간신히 분별해보았다. 물끓이 거기로 쏠리는것을 미루어보아 틀림없이 거기가 배수구인것 같았다.…그 녀인은 모진비에 꺾여 떨어진 나무잎사귀와 애나무가지들로 메워지는 배수구그물철판을 씹없이 손으로 훑쳐내고있었다.

옆에 세워놓은 하늘색 위생밀차에 벌써 그득 쌓인 폐물들이 보였다.…

곳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씨에도 두렵없이 배수구를 지켜선 그 빨간머리수건의 녀인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엔 몇달전 어느 새벽길에서 무심히 지나쳐버렸던 일이 불시에 되살아났다.

엄동설한의 추위도 땡땡 머물어가는 어느날 밤, 방직공장에 취재차로 나갔던 나는 쓰고서도 못다쓸 직포공처녀들의 미담에 심취되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빠바빠 돌아오고있었다.

전차에서 내리니 뺨를 에이는듯한 한기가 숨옷갈피마다로 숨새여들어와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쥘하고 얼어드는 두볼을 싸친채 종종걸음을 쳤다. 그러나 나는 뜻하지 않던 일에 또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약 백미터 뒤흐한 길북판에 서로 마주앉은 두녀인을 보았던것이다.

《아니 무슨 사고라도 난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던 나는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기울였다.

《언니, 이 삽으로 길바닥을 치면 안돼요?》

《야, 이렇게 언 바닥을 삽으로 망탕 치면 어디 길에 쓰게 되니.》

《아니 그럼 봐두지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요까짓 작은 자갈을…》

《영애야, 그까짓거라니, 이 길은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나 현지도에 나가실 때 지나시는 큰길이야…》

여기까지 듣고난 나는 그들이 도로관리원들임을 알게 되었다. 아마 건설장으로 달려가던 어느 자동차에서 떨어진 자갈들이 저녁녘에 내린 눈비에 얼어붙은 모양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아, 삼경도 기운 이 깊은 밤에도 남들은 포근한 잠자리에서 꿈나라로 나래편전만 그들은 이 찬바람속에서 남몰래 땀흘리고 있지 않는가? 길위에 떨어진 몇알의 자갈을 놓고도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더 먼저 생각하며 저렇게 한알한알 불같은 심장의 열도로 녹여내고있지 않는가?...

남들은 명절을 맞아 쌍쌍이 때를 지어 아름다운 모란봉으로 흥겨운 발걸음을 옮길 때, 남들은 이른 아침 산뜻한 옷차림으로 하루의 보람찬 로동을 기약하며 출근길에 오를 때... 말없이, 남이 보건말건 바로 이 길에 그 뜨거운 심장을 바쳐가는 녀인들...

이렇게 생각을 톺아가는 나의 마음은 점차 뜨거운것으로 젖어올랐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 피로를 모르는 사람.) 나는 언젠가 새벽길에서 본 그 녀인을 지금 저 비속에서 일하는 녀인으로 혼자 단정해버렸다. 아니, 아니라면 또 무엇이랴. 그들은 모두가 것처럼 깨끗한 하나의 심장을 가졌음에야...

구경 그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듯 힘과 정열과 용기를 주는것인가...?!

《...그 아주머니 벌써 3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도로관리원으로 늙어옵니다... 전쟁이 끝난 바로 그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참화로 하여 폐허로 된 도시의 울퉁불퉁한 길들을 몸소 돌아보시며 안색을 흐리우시는 그 정경을 눈먼 포탄에 중둥이가 멍청 꺾인 가로수옆에서 멀리 지켜보던 그 아주머니랍니다.》 이것은 얼마전 한부서에서 일하는 김동무가 들려준 그의 옆집에 사는 한 도로관리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늘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바로 이 길을 지나셨다오.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닦아진 이 길이 마음에 드셨는지 창박을 내다보시며 밝은 웃음을 지으셨다오. 얼마나 좋은 일이요. 얼마나 우리 수령님께서 기뻐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은 십년전 어느날 그 도로관리원 아주머니가 이슬머금은 눈전을 편속 훑쳐가면서 한 감격에 찬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 그것은 그의 생활의 전부였고 기쁨의 전

부였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암흑속에 잠겼던 지난날에 여지없이 짓밟혔던 어린시절의 꿈도, 청춘의 첫 사랑도 되찾았으며 바로 여기에서 그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 아니 영원한 삶을 받아안았던것이다.

그들이 지켜선 이길, 이 길은 멀리 천리 이국땅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바라보던 백두밀영의 오솔길과 잇닿아 뻗어있고 조국을 그리는 남녘땅의 구두담이 어린애가 꿈속에서 그려보던 통일길과 이어져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이 이끄시는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미래에로 내달리는 탄탄대로와 통하여있지 않는가?

도로관리원, 그들은 바로 이 길을 가꾸고 꽃피우며 지켜나가는 친위전사이다.

아, 삶의 순간순간을 보람찬 사업에 바쳐가는 그들의 한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들의 삶은 얼마나 참된가?!

(그렇다, 그들이야말로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군대책임비서》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하는 참된 사람들이다!)

과도치는 원앙여선의 갑판우에 선 어로공들, 쇠물이 폭포되어 쏟아지는 용해장에 선 용해공들, 천길 비단필을 늘어가고있는 직포공처녀들, 그들에 비길 때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도로관리원들의 일터는 너무나도 범상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은 그 누구나 똑같은 삶의 위치를 갖고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의 위치에서 일하는 참다운 인간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이렇듯 번영하고 영원히 빛날것이다.

그런데 나는 참된 삶과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 어떤 특이한 생활에서만 찾으려 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귀여운 내 딸애의 검은 눈동자에 까지도 그토록 신비스럽게 비쳐들었건만...

나는 저도 모르게 창유리를 툭툭툭 두드리며 제장난에 여념없는 딸애를 냉큼 껴안고 능금알처럼 붉어진 불에 쪽 입맞추었다.

뿡 경쾌한 전차의 경적소리가 나를 사색의 심연속에서 깨워주었다. 나는 급히 딸애의 손을 잡고 비속을 뚫고 달려나갔다. 전차에 올랐다.

차는 떠났다. 이때 나는 얼른대는 차창밖으로 늘어진 가로수아지를 두손으로 받쳐주고있는 빨간수건을 쓴 녀인을 발견하였다. 나는 뒤창문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달리는 차에 몸을 실은 나의 시야엔 길가의 푸른 가로수잎속에 싸여 팔락이는 붉은수건만 멀리 안겨올뿐이었다.

월미도의 해당화

로승모

나는 아노라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
피어서 영원히 붉고붉은 꽃
월미도의 해당화야
네 뿌리 어디에 두고있는지

한떨기 해당화를 고향처럼 사랑해
한떨기 해당화가 조국처럼 귀중해
한모금의 물마저 부어주던 너전사
그 뜨거운 심장에 뿌리내린 곳이어

너는 억만의 꽃들처럼
하루아침 피었다 지는 꽃처럼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수 없었거니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피며 옮겨피며
영원한 그 모습 간직하지 않느냐
직포공들 너를 한번 보고는 잊을수 없어
흐르는 비단필에 새겨가지 않느냐

아 전사의 넋이 어린 월미도의 해당화
그 꽃의 주인처럼 그들도 살고싶어

그 꽃의 주인처럼 그들도 젊고 싶어
천송이에 만송이 비단필에 새긴다

너전사의 이름을 뜨겁게 불러보며
직기바다 헤쳐가는 불같은 마음들
포연서린 전호속을 달려나가던
그날의 너전사의 뒤를 따른다

불비에도 타버릴수 없었던 그 향기
포연에도 흩날릴수 없었던 그 빛깔
온 나라가 안으라고 사람마다 안으라고
억만떨기 비단필에 새겨나가던

흐르는 꽃비단은 천리해도 닿으리
만리해도 닿으리
너전사가 해당화 안고서 가고프던 고향땅
한줌 흙을 그토록 못잊던
그 땅에도 꽃비단은 흘러닿으리니

오, 식지 않는 심장에 뿌리내린 꽃
세월의 비바람에 지지 않는 꽃
온 나라에 피어서 그 모습 영원하라
해당화 해당화 아, 월미도의 해당화

리서기장

김진성

1

경치 아름다운 만경대 절벽에 이해따라 유난히도 붉게 타던 단풍잎들을 철이르게 떨어어버리며 박달령머에서 쿵-쿵 둔중한 포성이 울려왔다. 그럴 때마다 가을빛에 한껏 물들었던 풍요한 들판은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을 와슬렁거리며 놀란듯 몸을 부르르 떨곤하였다.

벼가울 때이지만 벌에도 마을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개들이 쾅쾅거리며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것 같았다.

마을 한쪽에 있는 어느 한 농가에서만이 다급한 암소의 영각소리가 들려올뿐이었다. 초가집이기는 하지만 퇴마루가 달려있는 이 8칸량통집에서는 지금 비상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다 후퇴하여 떠나간 이 급박한 시각에 이 집 외양간에서는 새끼를 밴 암소가 담장 분만을 앞두고있어 소도 사람도 함께 신고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뜨거운 콩여물이 문문 김을 올리고있는 구유앞에는 두개의 뿔이 보기좋게 앞으로 뻗어나온 암소가 무거운 배를 안고 서서 크나큰 진통을 이겨내느라고 물기가 번들거리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구원을 바라듯 부엌에 서있는 주인을 내다보고 있었다.

영삼은 어딘가 무뚝뚝하고 완고스러운데가 있는 흙빛 얼굴에 민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 복새통에 새끼를 낳는 암소를 지켜보고있었다.

암소는 이따금씩 물려오는 격렬한 고통을 참기 어려운지 울부짖었다.

영삼은 심한 아픔을 호소하는 집집승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차마 옆에서 들을수 없었던지 소앞에서 물러나 구들에 걸터앉아서 초조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쿵쿵 포성은 점점 더 가까와졌다.

영삼은 가까운 발에 와 떨어지는 포탄소리에 흠뻑 몸을 떨었다. 마음이 초조해진 그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영삼은 리서기장이 알려주는대로 여기서 지체 말고 어제 저녁에 떠났다면 지금쯤은 박달령골짜기에 들어가서 소가 마음을 놓고 새끼를 낳을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 성미가 급한 리서기장이 자기가 아직도 여기서 우물거리고있는걸 알면 또 야단을 낼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이때였다. 밖에서 대문이 누구인가의 성급한 손에 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청이

높은 거센 목소리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

《아니 이집에서는 상기두 소방울소리가 나다니. 영삼형님- 어디에 있소? 얼른 이리 나오우다.》

(이크 서기장이 왔구나.)

리서기장의 목소리를 들은 영삼은 놀라서 담배를 끄며 일어섰다. 문을 열고나서니 등에 큼직한 배낭을 지고 아래도리에 국방색 각반을 두른 리서기장이 가장집물들을 잔뜩 실어놓은 마당가의 달구지옆에 성난 얼굴로 서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이젠 박달령으로 소를 끌고 떠난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리고있으면 어떡하우. 미국놈들이 등너머에까지 왔는데.》

영삼은 당황히 변명하였다.

《가다가 길에서 새끼를 낳을것 같더라니 여기서 인차 분만을 하면 어미소에게 콩여물이라도 한번 더 먹여서 데리고 떠나려 했더니만 당장 낳을듯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애간장을 태울줄이야 알았소 글썄.》

리서기장은 부아가 치밀어올라 배낭을 훌 벗어서 토방우에 틀렁 놓았다.

《소두 그렇지오다. 대포알이 옆에 날아와서 팡팡 터지는데서 빨리 새끼를 낳으라구 두손을 뚝 받쳐들고있으니 무서워서 그게 바로 나오겠소.》

《젠장 그 안에서는 저 무서운 대포소리도 영 안 들는지. 아무리 우둔한 새끼집승이기로서니 이란리통에 뿔도 돋지 않은 머리를 세상에 내밀려고 발버둥칠건 뭐람.》

《그 송아지보다 형님이 더 우둔하우다. 미리 떠나지 않고 미국놈들이 당장 들어오겠는데 아직도 소꼬랑대기를 떡 붙잡고 앉아있으니 글썄 정신이 있소. 정신이...》

《제기랄 그럼 소가 새끼를 낳자고 발을 뚝 번티고 가지 않는데 난들 어떻게 하라고 서기장은 큰소린가?》

《형님은 뭘 잘했다고 또 투덜렁거리시우? 마을이 다 후퇴를 해가는 마지막 날까지 사람의 애를 태우니 이거야 어디 서기장을 해먹겠소.》

리서기장이 털썩 토방에 주저앉더니 묵직한 담배쌈지를 꺼내 성급히 한대 말았다.

그가 영삼이때문에 속이 타 담배를 태우게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원래 자주 성가를 한 자작농인 영삼은 개인타산이 많은 농민이였다. 그는 리인민위원회일꾼들이 농사를 더 잘 지으라고

해서 일러주는 말도 자기의 타산에 잘 맞지 않으면 귀찮게 들으며 외지밭으로 달아날사 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따라오는 오면서도 투덜거리기를 잘하는 그에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늘 뒤로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는 리인민위원회 서기장 정옥진이었다. 하기에 영삼은 지금 후퇴하는 날까지도 지긋게 따라다니며 욕질을 해대는 옥진이 앞에서만은 더 대 답질을 못하고있었다.

《그래 소가 새끼를 이내 낳긴 낳을것 같수?》

서기장이 영삼에게 이렇게 물으며 외양간앞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였다. 바다쪽에서 갑자기 적의 《썩썩기》 세대가 나타났다. 쇠를 가는듯한 소리를 내며 낮게 떠 날아오던 적기는 마을에 기총소사를 해대며 지나갔다.

땅에 납죽 엎드렸던 리서기장과 영삼이 옷의 흠을 털며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등너머에서 따쿵따쿵 하는 귀에 선 카빙총소리가 들려왔다.

서기장을 돌아보는 영삼이의 겁질린 두눈은 커졌다.

《서기장, 저게 무슨 총소리요?》

《……》

다시 따쿵거리는 총소리가 들렸다.

《미국놈들이 다 들어왔소.》

서기장의 음성은 좀 떨리는듯싶었다..

《아이구, 이거 야단났구나. 서기장, 어떡하면 좋소. 소를 그냥 팽개치구 갈수도 …없구》

서기장은 무엇인가 혼자 생각하더니 결심한듯 말했다.

《형님, 이렇게 함소. 내가 떨어져서 송아지를 받아가지고 인차 뒤따를테니 형님은 다리에 담이 성해서 잘 걸지도 못하는데 먼저 떠나시슈.》

옥진이의 시꺼먼 두눈을 이윽히 들여다보던 영삼은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그렇게는 안되네. 임자는 당원이고 리인민위원회 서기장까지 했었으니 그러다가 놈들에게 잡히기만 하는 날에는 큰 변을 당하네.》

《불잡히면 다 같습니다. 소를 가지고 떨어졌다가 욕을 보지 말구 떠나시우.》 《아무리 악한놈들이라 한들 당원도 모범농민도 아닌 나야 간대도…》

《그건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긴, 그저 그렇단말이지.》

예리해진 눈길로 영삼을 똑바로 바라보는 서기장의 얼굴은 엄해졌다.

《…나는 형님이 우에서 빨리 후퇴를 하라고 하는데도 왜 그처럼 몸이 무거워하는지 이제야 알았소.》

《아니 이사람 서기장, 자네는 어쨌다구 후퇴하는 날까지 사람을 쫓아다니며 못살게 구나?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지 않으리.》

《예? 내가 못살게 군다구요?》

리서기장에게는 그 말이 더없이 아프게 들렸다.

자기는 이때까지 비록 리인민위원장이나 리세로 위원장처럼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친절히 대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욕질을 잘해서 작품상 문제로 여러 비판을 받기는 했으나 그래도 제단에는 팔경대마을을 위해서 뛰여다니는 사람으로 자부해왔었다. 그런데 너무나도 몰리해한 영삼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쓰렸다.

《형님, 어쨌면 그렇게 말할수 있소. 내가 따라다니며 잔소리 한게야 다… 여하튼 좋수다. 내가 못살게 굴었다니 정말 섭섭하외다. 노엽수다.》

《……》

서기장은 토방우에 벗어놓았던 배낭을 쓸쓸한 마음으로 둘러봤다.

《그럼 따라오겠으면 따라오고 말겠으면 말고 마음 내키는대로 함소.》

《여보게 서기장!》

대문께로 따라나오며 부르는 영삼이의 미안스러운 말소리에 걸음을 멈춘 옥진이 천천히 돌아서는 데 그의 눈에서는 핑-물기가 돌았다. 지금 당장 놈들이 닥쳐들 마을에 영삼이와 분만하는 소를 남겨두고 가는 서기장의 심경은 복잡했다.

(리서기장인 내가 놈들이 들어오는 마을에 사람과 새끼를 낳는 소를 혼자 남기고 산으로 찾아간다면 당에서는 뭐라구 할것인가… 내가 진심으로 인민을 아끼는 일꾼이라면 그들을 어려울 때에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끝까지 이끌어줄줄 알아야 한다!)

이때 마침 영삼이네 외양간에서 누구를 부르는듯 마지막 진통을 이겨내는 암소의 다급한 영각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서기장은 그 소리에 이끌리듯 배낭을 등에 친채 달려가 찌쿠덩하고 외양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순간 힘을 주는 암소의 배 밑에서 무엇인가 목진한것이 털석 하고 직쉴데기우에 떨어지는것이 보였다

눈물겨운 고통을 이겨낸 어미소의 환희에 찬듯 영각소리가 외양간에 가득찼다.

얼른 배낭을 벗어놓은 옥진은 팔을 거두고 외양간으로 들어서며 뒤따라 들어오는 영삼에게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일렀다.

《형님, 빨리 가위를 가져옵소.》

영삼이 부엌에 돌아들어가서 가져온 가위를 받아든 서기장은 손수 태를 끊어주고 베실로 송아지의 배꼽태를 단단히 매주었다.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송아지의 배꼽아리에 달린 새끼손가락만한 무우꽂지같은것을 여겨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형님, 하나 달구 나왔소. 허허.》

《허허허…》

둘은 언제 다뤘던가실게 서로 마주보며 정겹게 웃었다. 어미소는 송아지가 쓰고 나온 《보자기》를

활았서 벗겨주었다. 그러자 음매-음매-하고 사랑스러운 새끼 짐승의 청신한 울음소리가 맑은 가을 공기를 진동시키며 떨림을 일으켰다. 그것은 포연 속에 잠긴 이 아름다운 팔경대마을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귀여운 송아지의 생신한 첫 울음소리였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그 맑은 울음소리를 듣는 리위원회 서기장의 해별에 그늘은 얼굴에는 그 무엇이라고 딱히 이름할수 없는 한없는 기쁨이 너울거렸다.

2

영삼이의 손에 고삐를 잡힌 암소는 포성에 쫓기듯 수레를 끌고 마을 등성이길을 오르고있었다.

재봉침이며 큼직한 열쇠가 잠긴 밤색 장농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장집물들을 무겁게 실어 더 걸음이 떠진 소달구지 뒤로는 리서기장이 말없이 따르고 있었다.

달구지 가운데 놓인 큰 광주리안에서는 작은 두코구멍 사이에 파란 얼룩점이 찍힌 귀여운 송아지가 청포도알같이 푸른 빛이 도는 눈방울을 말뚝거리며 음-매에-하고 울었다. 그러자 어미소는 순하게 생긴 커다란 눈을 슬며시거리며 부드럽게 영-아-하고 응대를 하였다.

옆에서 소를 물고가던 영삼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짓고 어미와 금방 낳은 송아지의 그 정다운 화답소리를 들었다. 그에게는 어미소의 그 낮은 영각소리가 마치도 《오 어쩌서 그러느냐, 엄마여기 있다.》하고 안심을 시키는 애기어머니의 목소리같이 들리며 어쩔지 가슴이 찌르르 해왔다. 걸음을 늦추며 옆으로 몸을 돌린 영삼은 그답지 않은 다감해진 눈으로 달구지우를 더듬었다. 그는 굵은 마디가진 큰손으로 이란리통에 용케도 세상을 본 황금빛 송아지를 어루만져보았다. 흙살이 오른 썩썩한 손바닥에 말큰말큰하고 따스한것이 잡히며 팔을 따라 찌릿한 감각이 가슴쪽으로 치받쳐오르는것을 느꼈다. 영삼은 묵묵히 달구지를 따라서는 리서기장을 돌아보며 좀 어색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아까 서기장이 어미소가 활아놓은 송아지를 넉넉 안아서 달구지우의 광주리에 앉혀주며 어서 떠나자고 할 때 인민의 새 정권이 자기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고마운 은정을 받는것만 같아 눈시울이 후터워졌었다. 영삼은 이날따라 거치른 속에도 뜨거운 진정이 있는 서기장의 모습이 더 미덥게 보였다.

영삼이 자기보다 나이가 꽤 아래인 리서기장에게서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사람들의 오장육부까지 꿰뚫어보는듯한 그의 시꺼먼 두눈이었다.

어려서부터 밭에 맨발을 묻고 자란 육진은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마음속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골짜기에서 나는 연기빛갈만 보고도 그 집 가마에서

무엇이 끓고있는지를 아는 일꾼이었다.

그는 농민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는 저녁이면 평화가 깃든 팔경대마을의 집골목들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입가에 만족한 미소를 짓곤하였다.

...저 집에선 당콩밥이 쫓고있구나

...어금이네는 꽃강냉이를 찌구

...쌍둥이네는 아까부터 군불을 숯을 때는걸 보니 초두부를 앓는 모양이지하지만... 영삼이가 누구도 속일수 없는 육진의 예리한 눈보다 더 두려워하는것은 잘못을 보면 눈감아두지 않고 나쁜 버릇이 똑 떨어질 때까지 못건디게 쫓아다니며 뿌리를 빼고야마는 그 무서운 성미였다.

지난해 봄에 있는 일이었다.

한창 보리파종을 할 때였다. 초봄부터 리에서는 소출이 적게 나는 토종보리를 심지 말고 다수확을 낼수 있는 개량보리를 심으라고 군에 가서 종자까지 실어다가 매 집에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밤이면 학교선생들과 민청원들이 나와서 왜 개량밀보리종자를 심는것이 좋은가 하는걸 가지고 해설선전도 하였다. 영삼이네 집에는 리서기장이 특별히 두세 번 들려서 집뒤 등성이밭에 새 밀보리를 심으라고 신신당부하였었다. 허나 속구구를 해봐도 영삼은 괜히 자기로서는 파악이 없는 밀보리를 심었다가 실패를 보느니보다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실속 있는 농사를 지어 안전한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냥 토종보리씨를 묻었었다. 그는 아무리 서기장이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군다고 해도 보리가 땅우에 돌아난 다음에야 제가 어쩔텐가 하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보리파종을 시작한 날 저녁무렵이었다. 물가에 나가 손을 씻고 있는데 한쪽팔을 거두어 올린 손에 호미가락을 든 리서기장이 집뒤 보리밭쪽에서 내려왔다.

《서기장인가. 어떻게 거기서...》

영삼은 속으로 찢끔하는것이 있어 눈을 허둥거리며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육진은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선채 영삼을 말없이 쏘아보았다.

(이 량반이 벌써 알고 있는게 아닌가? 제가 아직은 알 재간이 없을텐데 흥.)하고 속궁리를 해본 영삼은 엉큼한 눈으로 육진을 맞받아 견주어보며 좀 뻔뻔스러운 웃음을 흘리었다.

《왜 그렇게 쳐다보나?》

《형님, 저 뒤더저지밭에 우리가 실어다준 새 밀보리종자를 심었수?》

서기장의 눈빛은 엄했으나 턱에 약간 놀리운 그의 석엄한 목소리는 례외에도 낮았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더 가슴을 얼कु었지만 영삼은 짐짓 태연한채 하며 며칠후이면 다 알게 될 거짓말을 했다.

《그 씨앗을 시... 심지 않구...》

《그게 정말이겠수?》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던가. 정 믿지 못하겠으면 저 뒤더거지 보리밭에 가서 땅하구 물어보게나 땅하구...》

영삼이의 입가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뻔한 거짓말을 할 때 흔히 볼수 있는 좀 야유가 섞인 능청스러운 웃음이 언뎠거리고 있었다.

옥진이의 두눈이 성난듯 번뜩이었다.

《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요. 자, 이래도 새 밀보리종자를 심었소?》

옥진은 무엇인가 움켜쥐고 등뒤에 감추고있던 손을 영삼이의 앞에 내대며 탁 펼쳐보이었다. 그의 손바닥우에서 흙이 묻은 여러말알의 보리씨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 재래종 보리씨들은 거짓말을 한 자기의 주인을 말없이 고발하는것 같았다.

이젠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된 영삼은 쓰거운 입맛만 다시며 옥진이의 오른손에 들린 호미 끝에 묻은 젖은 흙을 보다가 갑자기 바튼 웃음을 웃었다.

《크흐, 그래 땅을 다 파보았나? 좌우지간 서기장은 무서운 사람일세.》

그의 말은 옳았다. 옥진은 밭에 씨를 뿌려두면 다 먹어든 농사로 생각하고 허풍을 떠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다. 그는 농민들이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제대로 갈고 제때에 씨불임을 하는가 늘 보살폈으며 풀이 돋은걸 보면 아무 집 밭에나 척 들어서서 호미로 뚝뚝 흙을 뚫다. 그리고 가을해들인 벼이삭의 무게까지 가늠해보고야 먹었다고 생각하며 우에 소출을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옥진은 방금 뜨려는 소처럼 눈을 홑뜨고 영삼을 무겁게 쏘아보았다.

《내 전번날에 새 밀보리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으라고 할 때 대답이 신통치 않더라니 좀 미타하다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농사군이 땅까지 속일 줄은 몰랐소.》

《내 생각이 짧아 잘못했네. 음.》

《잘못했다구 건성으로 한마디 하면 다요?》

《그럼 재판이라도 걸텐가?》

《그것두 말이라고 하우 말이라구, 이젠 꿈무늬에 나살이나 건사한 어른이 부끄럽지두 않소? 소출이 높은 밀보리를 심으라구 그만큼 말해주었는데두고집이 하눌소말통갈애가지구 귀에 대고 불어두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자는게요. 도대체 뭐 지금 반동이라는게 다르게 반동인줄 아우? 당정책을 반대하구 우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

《흠, 반동이구 오문동이구 꺾잡는게 매라고 농사를 잘 지어서 나라에 쌀을 많이 바치면 될거 아니요. 제 땅에서 제 농사도 마음대로 못짓게 하니 이거야 어디 ...》

《남의 보리밭을 파볼 겨를이 있거든 입자네 처나 좀 잘 도와주라구.》

《그건 무슨 소리우?》

《회의요 강습이요 수확관정이요 하고 맨날 돌아다니니 그 몸이 실하지도 못한 나인이 혼자 농사를 짓다싶이 하잖나. 어제도 타발거리며 혼자서 씨불임을 하느라고...》

《형님의 그런 쓸데없는 동정은 발잔말두 안하의다.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속이나 좀 태우지 맙소 속이나.》

《.....》

《나두 중뿔나게 나서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제집 농사나 걱정하면서 살면 좋은줄 알아요. 그렇지만 입을 다물고 가만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되는걸 어떡하우.》

그래서 말을 좀 하면 싫어들하구 관료주의를 부린다구 의견들이 있어하지요. 이거야 호미를 가지고 김이나 팡팡 매야지 속이 타서 어디 서기장을 해먹겠수 ...》

옥진은 진짜로 속에 불이 나는지 호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며 큰 섬돌 한쪽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독한 씨래기를 꺼내더니 정말 구식 《대포》만한 담배를 말아서 피우기 시작하였다.

속이 탈때마다 독한 씨래기담배를 굵직하게 말아서 한참씩 태우는것은 옥진이의 버릇이었다.

말없이 담배 한대를 다 피우고난 옥진은 담배불을 켜다.

《형님, 내가 이렇게 자주 말하면 형님이 시끄러워하구 싫어하는데 농사가 잘되어두 형님에 농사가 잘되고 잘살아도 형님네가 잘살게 될거 아니우. 이자 형님의 말 한가지로 제 농산데 왜 마치 남이 시켜서 할수없이 짓는 농사처럼 그렇게 좋은 농사법을 대주어두 두덜거리면서 그러시우. 그게 다 놈의 노예살이 하던 종살이근성이 남아있느게우다.》

《.....》

《나는 형님이 언제나 군소리를 모르고 수격수격 농사를 지으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말없이 나라를 받들고 진심으로 장군님을 따르는 그런 모범 농민이 한번 되는걸 보았으면 참이라도 추겠소.》

옥진은 일어섰다.

《영삼형님, 다시는 이러지 맙소.》

그는 흙묻은 손을 툭툭 털고 뒤없이 가버렸다.

달이 밝던 그날 밤, 저녁을 치르고난 영삼은 두루 생각이 많아져서 서기장이 파헤쳐본 자리가 그냥 남아있을 집뒤의 보리밭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자기의 보리밭에서 누구인가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달빛속에서 나머지 밭에 한고랑한고랑 씨를 뿌려나가는것은 뜻밖에도 서기장이었다. 옥을 해놓고는 구석이 마음에 없혀 제집 개랑밀보리종자를 가지고 와서 남의 밭에 정성껏 묻어주고 있는 리서기장을

본 영삼이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왕청같이 불부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누가 서기장더러 남의 밭에 씨를 묻어달랬나.》

하면서로 영삼은 리서기장의 손에서 팽이를 빼앗았다.

옥진은 달빛에 땀이 번들거리는 얼굴에 허거운 웃음을 짓고 말했다.

《내 형님이 고집스럽게 심은 저 토종보리씨를 다 파내고 새 밀보리종자를 심으려다가 그럴수는 없어서 나머지 밭에만 심었수다.》

《…………》

두 사람은 더 말이 없이 파종을 해나갔다. 영삼은 앞에서 팽이로 흙을 깨며 나가고 리서기장을 뒤따라오며 한줌 두줌 정성껏 새 밀보리종자를 심어나갔다. 그러는 서기장을 돌아보는 영삼이의 가슴은 후터워졌다. 그는 서기장이 부드러운 땅에만이 아니라 거칠어진 자기의 가슴속에도 그 무엇인가 새로운 량심의 씨앗을 심어주는것만 같았다.

… 가까운데서 포란이 작렬하는 소리에 놀라 상념에서 깨어난 영삼은 뒤에서 리서기장이 다그치는 바람에 소를 다 몰았다. 하지만 새끼를 금시 낳은 데다가 무거운 달구지명에 짓눌려온 암소는 식은 땀만 흘릴뿐 영 길을 축내지 못했다. 그런데 고개너머에서는 격전이 벌어진듯 총성이 더욱 요란하고 어디선가 땅크의 무한궤도가 땅을 옥물어뜯으며 굴러오는 소리까지 들렸다.

정황이 급박해졌다는것을 직감한 두 사람의 불안한 눈길이 소리없이 부딪쳤다. 기진한 암소에게 힘없이 끌리워가는 달구지우의 살림짐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서기장이 딱한듯 말했다.

《이제 아무래도 달구지길을 그냥 따라가다가는 안되겠소.》

《그러니 다른 도리가 있나?》

《형님, 이렇게 함소, 다시 돌아보고 인차 뒤따를테니 형님은 달구지를 벗어나고 어미소의 기르마에 송아지만 태워가지구서 저 오솔길을 타고 박달령으로 질러갑소.》

《아니, 그럼 저 재봉침서컨 장농이랑 새 이불이랑 다 길에다 버리고 가란말인가?》

《형님, 우리한테 자기 땅이 있고 인민정권만 있으면 그런건 다 다시 이루어놓을수 있수다.》

《그렇지만 어떻게?》

《너무 아까와하지 말고 이번만은 내가 일러주는대로 함소. 그러지 않다가는 큰 랑패를 볼수 있수다.》

리서기장이 어떻게나 절절히 말하는지 영삼은 더 고집하지 못하였다. 달구지우에 실은 짐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결심을 내리지 못하던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판인지라 일생용단을 내렸다.

《내 이번만은 서기장이 하라는대로 하겠네.》

리서기장은 영삼이 멍에 앞채에 비끄러맨 소목바를 푸는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떠 전선원호미와 종곡을 파묻어놓은 버들골로 향하였다.

한편 달구지길에서 좀 옆으로 비껴나 으스스한곳에 소를 끌고 와 멍에를 벗긴 영삼은 소와 송아지만 데리고 떠나려고 하였으나 밭이 떨어지지 않았다. 달구지우에 실은 귀중한 재산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좀체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던 영삼은 이끌리듯 그리로 가서 손때묻은 가장짐물들이며 해보에 싼 재봉침을 쓸어만져보았다. 안해가 그전에 시집을 올 때 가져온 장농을 두고 가는것도 아까웠지만 새 재봉침을 버리고 갈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영삼이의 눈앞에는 지난해 가을 읍장에 가서 새 재봉침을 사온 날 너무 기뻐서 자다기도 일어나 이 신기한 옷짓는 기계를 난생처음 돌려보고 또 돌려보며 웃고 울던 안해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이루어놓은 가산이라고 이걸 길에다 그냥 버리고 간단말인가. 서기장은 제 재산이 아니니까 버리고 소와 사람만 가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 간대도 무슨 일이야 생길라구.)

이렇게 생각한 영삼은 다시 소를 달구지 있는데로 끌고 갔다. 새끼를 금방 낳은 소에게 고쳐 달구지채를 메우더니 말못하는 집짐승이지만 안된 생각이 들었다.

(어찌했니, 조금만 견디여다구. 너하고 나하구 땀 흘려 벌여놓은 재산인데 가지고 가야지.)

영삼은 그러면서도 달구지에 《가서 두루 살펴다가 꽃단지들이며 술을 고을 때 쓰는 시루며 약탕관, 곱돌장사귀 등속이 들어있는 나무함지를 펼리는 손으로 안아내려 길옆의 수풀속에 감추어두었다. 그리고 땅에 내려놓았던 송아지는 팡주리채로 자기의 지게우에 올려놓았다.

《가자!》

영삼은 성급히 고삐를 쳤다.

달구지는 산기슭을 따라 다시 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마조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달구지를 몰아 작은 고개마루를 넘어서던 영삼은 아래서 들리는 요란한 굉음에 놀라 소를 멈춰세웠다. 이전에 본 인민군대의 땅크하고는 달리 얼룩덜룩한 색칠을 먹인 장갑차들과 자동차들이 저 아래 신작로로 끌어들어오는것이 보였다. 자동차우에서 철갑모를 번쩍이면서 알아들을수 없는 꼬부랑 말로 뭐라고 웨쳐대는 울부짖음소리가 들렸다.

(한발 늦었구나. 저게 바로 미국놈들이구나!)

영삼은 그만 속이 철렁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길을 막히운 영삼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3

영삼은 하는수없이 달구지를 끌고 마을로 돌아왔다. 와보니 마을은 벌써 평화롭던 어제의 마을이 아니었다. 집집엔 미군놈들과 피뢰군놈들이 들이닥쳐 저녁을 지어먹느라고 한창 분주탕을 피우며 돌아쳤다. 놈들은 우리안의 폐지들을 잡고 집뜨락의 닭들을 들쭉 쏘듯 하였다. 마을 어디서나 파괴와 약탈, 살인과 강탈의 피비린내나는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어구에서 피뢰군 사병놈들과 맞닥들인 영삼은 그놈들의 총창에 물리어 적들이 지휘부로 삼은 듯한 인민학교마당으로 달구지를 끌고갔다. 거기에는 먼저 끌려온 몇명의 농민들이 있었다.

미군장교놈과 함께 한쪽 손을 권총우에 올려놓고 서서 끌어온 농민들에게 뭐라고 일장 연설을 내리던 한 장교놈이 달구지소리를 듣고 영삼이가 스택스적 소를 물고 오는쪽으로 돌아섰다.

영삼을 본 피뢰군장교놈은 반색을 하였다.

《아, 이제 영삼령감님이 아니시우?

나를 모르겠소. 내 박주사의 아들이요.》

영삼이 소를 멈춰세우고 돌아보니 미군놈의 옆에 서있는 피뢰군장교놈은 뜻밖에도 해방후 땅을 몰수당하고 남으로 도망쳐나간 박지주의 맏아들 박일진이라는놈이었다.

박대위놈은 영삼이의 앞으로 다가서며 간교하고 독살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치안대장>, 조막도끼령감 아들한테서 들으니 령감도 토지개혁 하는데 한몫 들어 우리 땅 한덩어리를 빼먹었다더니 별로 살이 찢겼 같지는 못하구만. 하긴 리서기장을 했다는 그 육진이의 등쌀에 먹은게 제대루 살로 가지는 않았을게요.

령감이야 원래 그러지 않아도 제 밥술이나 먹고 지내더랬는데 빨갱이들한테 붙어서 그렇게 구차스레 살게 있소?》

《…………》

《이젠 자유세상이 왔는데 령감이 우리 말만 잘들으면 우린 령감이 제 땅을 가지고 돌피농사를 짓는 삶은 씨종자를 심든 관계치 않고 내버려두겠소. 그러니 우리 일을 좀 해주어야겠단 말이요.》

《…………》

《다른게 아니라 이제부터 령감이 앞장에 서서 마을에 남은 달구지들을 다 끌고 미군의 포탄을 날라주어야겠소.》

(…아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글썽 내 달구지로 제 사람들을 쫓 포탄을 나르게 되다니!!)

영삼은 무서운 나락에 떨어져내리는것 같은 자신을 느꼈다.

《령감, 왜 얼른 대답을 못하고 꾸물거려? 들었어 못들었어?》하고 대위놈이 소리쳤다.

《저 그런데 오늘 소가 금방 새끼를 낳아놔서 …

금시 새끼를 난 어미소에게 무거운 포탄달구지를 끌리어 험한 두루봉으로 갈수도 없구 …좀 사정을 봐주시요.》

《령감, 전쟁이야 전쟁, 우린 그런 암소 사정까지 볼 사이가 없단말야, 당장 송아지새끼는 코를 꿰서 외양간에 매두고 암소한테 달구지를 메워가지고 따라와!》

《오늘 금방 낳은 송아지를 어떻게 코를 꿰단말이요? 그리고 저렇게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어미의 젖을 빨아먹는 불쌍한 송아지를 떼어놓는건 차마 사람으로서는 …》하며 영삼은 애처로운 눈길로 마당 한옆에서 먼산을 바라보며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우고있는 암소를 지켜보았다. 세상을 모르는 누런 송아지는 이마로 어미젖통을 받으며 덤벼치면서 욕심스레 젖을 빨고있었다.

대위놈의 옆에 서있던 흉물스럽게 생긴 미군장교놈이 뭐라고 박일진에게 물어보는것 같았다. 대위놈이 그자의 물음에 꼬부랑말로 대답하자 농민과 소를 번갈아보던 미군장교놈의 흉포한 눈에 살기가 번득이었다. 그놈은 박일진에게 뭐라고 씨벌여댔다. 그러자 박가놈이 영삼에게 경멸적인 웃음을 보내며 야유를 섞어 말했다.

《령감, 미군장교님이 그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모든 걱정을 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

어리벉벉해진 영삼이 그 란포한 말에 담긴 무서운 뜻을 미처 이해하기도전에 미군장교놈은 터럭손으로 옆에 찬 권총을 꺼내어 질각 소리가 나게 장탄하였다.

그리고는 바들거려지는 연약한 다리로 겨우 땅을 벌디디고 선채 어미의 젖을 달게 빨고있는 갓난 송아지를 향해 그 총구를 겨누는것이였다.

《아니?!》

영삼이 소스라쳐 놀라며 송아지앞으로 뛰어가는 데 땅-타당! 하는 요란한 총성이 귀청을 찢었다. 영삼은 마치 자기가 총에 맞기라도 한듯 우뚝 그 자리에 멈춰섰다. 총에 맞아 펄떡 하던 송아지의 작은 입에서 빨강게 된 어미의 젖꼭지가 힘없이 빠져나왔다. 어린 송아지는 일시에 바들거려지는 네다리를 꺾으며 콩-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총성에 놀란 어미소는 피흘리며 쓰러진 송아지가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바르르 떨다가 사지를 뻗는것을 보고서야 앞에서 울린 그 총성의 무서운 의미를 깨달은듯 눈을 크게 뜨며 송아지쪽으로 돌아섰다. 어미소는 불안에 떨리는 방울소리를 울리며 옆으로 넘어진 송아지의 옆으로 다급히 다가서더니 갑자기 웅-어-하고 온 내장이 찢기는듯한 영각소리를 내며 비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말못하는 짐승의 그 가슴터지는 영각소리를 들은

영삼은 펄쩍 정신이 들었다. 송아지에게로 달려간 그는 두무릎을 꿇으며 꿇어앉아 와락 송아지의 목을 안아일으켰다. 금방 숨진 송아지의 몸은 아직도 따스하였다. 두 코구멍 사이에 파란 김같은 얼룩정이 찍혀있는 송아지의 발그레한 주둥이에 아직 어미의 흰젖이 묻어있었다. 불쌍한 송아지의 두귀를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는 영삼이의 흙빛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두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내 금송아지야- 세상에 나서 풀 한줌도 뜯어먹어보지 못한 너를 이렇게 쓰아죽이다니 예익, 이 귀축같은 놈들아!》

영삼은 몸이 식어가는 송아지를 땅에 내려놓고 움쭉 일어섰다. 흉포한 미국놈을 쓰아보는 영삼이의 두눈에서는 무서운 불꽃이 튀어났다.

《이 천하에 짐승만도 못한놈들아!》

영삼은 당장이라도 그놈에게 달려들듯 두주먹을 부르짖고 이악스럽게 웨쳐댔다. 하지만 미군장교놈은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하는지라 뻔뻔스러운 낯짝을 그냥 쳐든채 호기심을 가지고 소임자의 성난 모습을 흥미있게 구경하고있었다.

영삼은 그것이 더 부아가 났다.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털짐승같은 놈아! 어떤 양년이 그래도 너같은 악당놈새끼를 내싸구두 사람새끼를 낳았다구... 에이 똥!》

옆에서 바라보던 피뢰군사병놈들이 키들거렸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얼치같이 웃던 미군장교놈은 박대위놈에게 묻는듯한 눈길을 돌렸다. 박대위가 그대로 통역해주자 미군장교놈은 대번에 지랄발광이 나서 노란 눈알이 희뜩 뒤집어졌다.

권총을 다시 빼들고 달려드는 미군장교놈앞에서 영삼은 공포에 질려 암소가 있는 쪽으로 물러섰다. 하면서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웅얼거리며 토막져나오는 걸쭉한 욕질을 끊치지 않았다.

이 허슬해보이면서도 만만치 않은 조선농민의 공포에 질린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신랄한 비웃음에 가슴이 얼어드는것을 느낀 미군장교놈의 손에 든 권총이 떨리었다. 전률에 몸을 떨던 미제놈은 당장 쏠것처럼 쳐들었던 권총을 도로 내리어 앞에 찬 가족집에 지르며 박대위놈에게 악이 나서 소리쳤다.

《까뎌, 이 무지한 조선농민의 입에서 다시 욕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시오.》

《알겠습니다. 고문관님.》

그리하여 악독한 박대위놈의 지시를 받은 피뢰군사병놈들이 총탄을 들고 영삼에게로 달려들게 되었다. 하지만 영삼은 총탄과 구두발에 허리와 머리를 마구 채이면서도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저주에 찬 욕이 터져나오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놈들에게 끔찍이도 배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땅에 쓰러졌던 영삼은 그날 밤이 깊어서야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

빈 집에 돌아와 보니 암소가 먼저 돌아와 있었다. 중병으로 앓고있는 마누라때문에 후퇴를 하지 못한 이웃집 할아버지의 간호를 받으며 이틀동안 곱짝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음하던 영삼은 닳새만에는 놈들의 총창에 못건디여 소를 끌고 포탄 실으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얼굴에 온통 어혈이진 영삼은 다리를 썰뚝거리며 소를 끌고 놈들의 총포탄을 실은채 끌리어가고 있었다.

암소는 마치 무서운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뿔을 아래로 수그릴사하고 이리 지척 저리 지척 달구지도 겨우 끌며 두루봉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금방 낡은 새끼를 눈앞에서 죽인 암소의 거물사한 두눈 아래에는 두줄기의 눈물 자욱이 마르지 않은채 있었다. 며칠사이 몸이 늙어버린것 같은 어미소를 바라보는 영삼이의 가슴은 아팠다. 그런데다가 포탄 실은 달구지들을 호송해가는 무지막지한 미군병사놈은 가시가 돋힌 긴 장대기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영삼이네 소를 마구 두들겨팼다. 그럴때마다 영삼은 자기가 맞는것만 같아 눈을 감곤하였다. 참다못해 미군병사들이 다시 쳐든 장대기를 두손으로 잡고 막아나섰던 영삼은 악이 오른 놈의 군화에 채이고 총탄에 맞아 처참하게 되었다.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지칠대로 지친 불쌍한 어미소에게 자기 사람들을 쓸 미군놈들의 총포탄을 실리워 가지고 치욕의 길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영삼이의 가슴은 터져나가는 듯싶었다.

(아, 이 소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나. 그때 서기장이 당부할 때라도 말을 듣고 어미소와 송아지만 데리고 산길로 빠져나갔더라면 사람이고 소고 이런 욕된 일은 당하지 않았을걸. 이 우둔한놈의 고집때문에 그 고운 송아지를 죽이고 어미소까지 이 욕되고 죄많은 길을 걷게 하였으니 이제 누구를 탓한단말인가.)

영삼은 후회가 막심하였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한사람의 성난 듯한 얼굴이 얼른거렸다. 이 어려운 전시에든 따라다니며 적기파종을 해야 한다, 소위장을 꼭꼭 하라, 발머리에 사람과 소가 들어갈수 있는 대피호들을 파라 하고 정말 자심하다 할 정도로 잔소리를 하던 리서기장의 얼굴이 앞에 보이는듯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준 욕이었으나 왜 그때는 그 말을 고마운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지 자신으로서도 알수 없었다. 영삼은 어찌하

여 오늘은 이리도 서기장이 그리워지고 무슨 일을 잘못하면 눈이 꼭 나오도록 모질게 욕을 해주던 그의 석직한 목소리가 그리도 그리워지는지 알수 없었다. 영삼은 이제 그 서기장이 후에 다시 만난다 해도 자기 같은건 대면도 해주지 않고 질책의 말도 더는 해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서글퍼졌다.

건빵을 씹으며 포탄달구지를 호송해가던 미군병사 두놈이 물을 먹고싶었던지 달구지들을 세워놓고 길 옆집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어둠속에서 달구지군 차림을 한 웬 사람이 불쑥 영삼이의 앞에 나타났다. 그를 알아본 영삼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다름아닌 리서기장 정옥진이었던것이다.

《영삼형님!》

《아니 이게 리서기장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데를?》

《형님이랑 놈들에게 욕을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사람들이랑 소랑 구원해주려고 산에서 농맹위원장서컨 내려왔수다.》

영삼은 그 말을 들으니 고마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기장, 나 같은걸 구해주겠다고 이 험한 길을 찾아내려온단말인가? 이제 물 먹으러 들어간 미군놈들이 나오겠는데 어서 몸을 숨기게.》

《걱정 마시구 우리가 놈들을 제껴치우면 소만 끌고 뒤산으로 올려쬤시오.》

이렇게 말한 리서기장은 산에서 내려온 두사람과 함께 달구지 한옆에 총을 가지고 숨었다.

이윽고 물 먹으러 들어갔던 미군병사 두놈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순간 달구지옆에 숨었던 세사람이 비호같이 달려나오며 총탁으로 놈들의 대갈통을 들이쳤다. 한놈은 찌소리도 못하고 그자리에 쓰러졌으나 빗맞은놈의 손에서 총이 발사되었다.

옥진은 단말마의 발악을 하며 달려드는 놈에게 자동총 불벼락을 안겼다.

때아닌 총소리에 놀란 포진지의 미군들이 눈먼 총질을 하며 몰려왔다.

옥진은 소고삐를 잡은채 당황해하는 영삼이와 농민들에게 소리쳤다.

《빨리 소달구지들은 버리고 소만 끌고 농맹위원장을 따라 산으로 올려붙으시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영삼은 달구지 한쪽에 끼워두었던 낫을 빼들고 와서 소목바를 끊어버렸다. 멍에를 벗긴 영삼은 보습같은 손바닥으로 소영덩이를 찰싹 갈겨주었다.

《쩌어 켜- 빨리 산으로 뛰자.》

주인의 소리에 기가 오른 암소는 다른 소들과 같이 눈방울을 찢러덜거리며 산으로 올려뛰었다.

미군놈들이 산밑에서 소리를 치며 소방울소리가 울리는 쪽을 향해 추격해올라왔다.

영삼은 성한 몸도 아닌지라 마음뿐이지 이리저리 날뛰며 산으로 오르는 소를 다잡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총성은 점점 가까와졌다.

리서기장은 농맹위원장과 함께 아래서 달빛에 번쩍거리며 올라오는 철갑모들을 향해 연발사격을 해대며 영삼에게 웨쳤다.

《형님,우리가 소를 끌고 갈테니 고삐를 농맹위원장에게 넘겨주고 형님은 빨리 박달령쪽으로 빠지우다!》

《소는 내가 끌고 가겠네.》

《형님은 그 몸으로 안돼요.》

리서기장은 영삼이의 손에서 소고삐를 빼앗아 농맹위원장에게 넘겨주었다.

《농맹위원장동무, 내가 뒤에서 견지할테니 이소를 맡아줍소. 그리고 영삼형님은 놈들이 내쪽으로 쏠려오는 틈을 타서 빨리 산을 넘읍소.》

이 말을 넘긴 리서기장은 농맹위원장이 소를 끌고 가는 다른쪽 산봉우리를 향해 뛰어올라가며 그냥 사격을 해댔다.

《서기장-》

영삼은 몇걸음 따라가며 불렀으나 옥진이 사라진 쪽에서 자지러진 총성이 들려올뿐이었다. 그는 서기장이 달리는 쪽으로 추격의 총소리를 가슴조이며 들었다.

영삼은 하는수없이 서기장이 시키는대로 산꼭대기를 향해 허둥허둥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는 우뚝 그자리에 서버렸다. 그 무슨 쇠몽둥이같은것으로 한쪽 다리를 후려치는것과 함께 눈에서 시퍼런 불찌가 일었다. 영삼은 더 가지못하고 그자리에 폭 꺾꾸라졌다.

5

허벅다리에 총을 맞고 산에 쓰러진 영삼은 놈들에게 붙잡혀 리인민위원회 뒤에 있는 빈 종곡창고에 갇혀있다.

그날밤 영삼은 다리의 상처가 몹시 쏘는데다가 리서기장과 소에 대한 걱정으로 하여 한잠도 자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영삼이와 마을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창고에 전날밤 리서기장과 놈들사이의 치열한 격전을 목격한 길 옆집 로인이 붙잡혀들어왔다.

영삼은 그에게서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어제밤 리서기장이 마을사람들과 소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놈들을 끌고 다른 산봉우리로 치달아오르다가 그만 총탄에 맞아 정신없이 쓰러진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는 불행한 소식이었다. 걱정중에 그 가슴아픈 사연을 알게 된 영삼은 자기들과 소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제목숨을 내대고 놈들을 판데로 끌고간 리서기장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이 후터워졌다.마냥 가슴을 그 어떤 뜨거

운 불똥으로 지지는것만 같았다.

(리서기장은 가슴속엔 그런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영삼이의 두 눈은 눈물에 젖어들었다.

다음날 오후였다.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리인민위원회 마당으로 몰려나왔으며 무슨 일로 그토록 흥분하여 떠드는지 창고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후에 창고에서 멀지 않은곳에서 저희들끼리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누구인가를 총살한다는것을 알았다.

이윽고 《치안대》놈들이 와서 절걱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럭 열리더니 그전에 박지주네 마름질 하던 조막도끼경감의 아들놈이 살기쁜 눈을 희번득거리며 다 나오라고 고함쳤다.

영삼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앞에 있는 리인민위원회 마당으로 겨우 끌려나갔다. 그리 넓지 않은 리인민위원회 마당에는 놈들에게 억지로 끌려나온 마을 로인들과 부녀자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서있었다.

좀 있다가 저쪽 《치안대》사무실이 있는데서 맨발을 벗은 한 사람이 놈들에게 끌리어오는것이 보였다.

(아, 저게 누구야? 리서기장이?!)

영삼은 그만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얼굴에 피멍이 든 리인민위원회 서기장은 찢어진 옷자락과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며 가슴을 쭉 펴고 꺾듯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리인민위원회마당에 모여온 농민들앞에 나서던 때와도 같이 엄숙한 표정을 짓고 태연히 걸어오고 있었다.

저쪽 맞은편 언덕에서는 사형리들인 미군장교놈과 박대위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사람들의 다정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일별하며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리서기장은 《치안대》놈들에게 호송되어나온 영삼이네들이 서있는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얼굴이 찢기여 피가 흐르는 영삼이의 처참한 물골을 가슴아픈 눈길로 더듬어보았다. 그의 두눈에는 동정의 빛이 어리었다.

영삼은 이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는 리서기장의 입에서 마지막으로나마 좀 부드러운 말이 나올줄 알았다. 하지만 질책이 담긴 그의 거센 목소리는 여전하였다.

《형님, 그 버릇일랑 이젠 똑 떼버립소.》

육진이의 입에서 또 뜨거운 욕이 나오자 영삼이의 눈에서는 이상한 눈물이 콧 쏟아져나오려고 했

다.

《이사람 서기장, 임자는 마지막 길을 가 ... 가면 서도 내게 또 육인가...》

리서기장은 자기도 안된 생각이 들었던지 좀 갈린듯한 어조로 말했다.

《형님, 엄지소는 지금쯤은 김이 문문 오르는 여물을 먹고있을게우다.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읍소.》

《서기장! 우리 소때문에, 이 못난놈때문에 임자가...》

영삼은 코먹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서기장은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형님, 돌아오는 봄엔 저 뒤더거지 밭에다 소출이 높은 새 밀보리종자를 심읍소. 내 형님이 새밀보리종자를 심었나 심지 않았나 또 호미로 땅을 파고 불테요 허허.》

서기장은 큰 입을 좀 한쪽으로 비뚤서하고 웃으면서 말했으나 그의 말을 덤덤히 듣고있는 영삼이의 주름진 얼굴은 뜨거운 눈물에 젖고 있었다.

《서기장, 임자가 없으면 누가... 누가 날 그렇게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해주고 욕을 해주겠나.》

《형님!》

《서기장!》

시퍼렇게 멎은 영삼이의 불을 적시며 그에게 흔치 않은 뜨거운 눈물이 고랑져 흘러내리고있었다.

서기장은 몸을 돌려 포승줄에 묶이여 놈들에게 끌려나온 애국자들과 마을사람들을 돌아보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 나는 가지만 인민정권은 다시 옵니다. 산에서는 여기 마을에 남은 사람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일도 쓰게 하지 못하면서 싫은 소리도 더러 했는데 나를 욕 많이 합소. 그럼 모두 안녕히들 계십소.》

《서기장!》

《서기장!-》

《아저씨!》

일시에 터져나온 울음섞인 목소리들이 그를 따랐다.

잠시후 리인민위원회 서기장 정옥진이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며 서있는 언덕우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무서운 아픔으로 찢으며 몇방의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김일성장군 만세!》, 《인민정권 만세!》를 부르는 서기장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높았다.

총에 맞은 가슴을 부여잡은채 발이 커서 넘어지지 않을듯 우뚝 서있던 육진이 비칠하며 그만 땅에 쓰러지는것을 본 영삼은 다리를 상한것도 잊고 그쪽으로 달려가며 비통하게 불렀다.

《서기자-양-》

목메는 뜨거움과 마음아픈 뉘우침에 찬 그의 통곡이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터지며 사람들의 가슴에 메아리를 일으켰다...

그 이듬해 늦여름이었다.

영삼이네 집뒤에 있는 등성이밭머리에는 누구인가 정성껏 푸른 잔디를 곱게 입혀놓은 분묘 하나가 앞이 흰히 트인 동남향으로 놓여있었다.

여덟가지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아름다운 팔경대가 눈아래 굽어보이는 해빛 다양한 이 등성이밭머리에 안치된 《애국렬사 고 정옥진의 묘》 옆에는 지금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영삼이가 서있었다.

사형장으로 나가면서도 그렇듯 뜨거운 말로 타일려주던 옥진이, 자기는 죽으면서도 놈들이 체포된 마을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인차 학살하려 한다는것을 알고 산에 련락꼭지를 띄워서 인민 유격대에 의해 마을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구원되게 해주고 간 리서기장! 그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뻐근해지군하는 영삼이었다.

그는 묘앞의 누렇게 익은 밀보리이삭들을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며 마치 리서기장이 지금 살아서 자기와 함께 풍년든 보리밭을 내려다보며 그 탐스러운 이삭들의 설레임소리를 같이 듣기라도 하는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게 서기장, 저 보리밭을 보나? 임자가 일러준대로 새 밀보리종자를 심었더니 저렇게 잘됐네.

이 밭에서 올해처럼 보리가 잘되기는 처음일세.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오늘은 어쩐지 서기장생각이 더 나는구만...나는 지금도 우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좀 속으로 꿈꿌거릴사하다가도 뒤에서 서기장의 청높은 목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아 가슴이 뜨겁해지군하지.

내 늘 서기장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간 말을 채심하고 살아가네.

서기장은 우리곁에서 영 떠나간게 아니야...》

영삼은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전에 옥진이가 그렇게 한것처럼 독한 씨레기담배를 한줌 쥐여내며 끝이 엄지손가락만하게 말았다.

부시를 탁탁 쳐서 불을 일으킨 그는 그것을 담배 끝에 대고 힘있게 빨았다.

뜨겁고 독한 담배연기가 가슴이 뻐개지도록 폐부에 한꺼번에 쏟아들어 왔다.

영삼은 그전에 리서기장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 독한 담배를 그처럼 곱게 말아 연방 독한연기를 가슴이 터지게 들이그었겠는가고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다.

그는 담배를 한두모금 떠 빨아서는 정중스레 무릎은 구부리고 상돌 한쪽에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올려놔주며 목메며 말했다.

《서기장, 임자는 그전에 언젠가 내가 애를 태울때 한쪽에 돌아앉아서 독한 담배로 그 울퉁뻔을 애써 누르면서 내가 한번 모범농민이 되는걸 보았으면 춤을 추겠다고 했지. 내 금년에 봄씨볼임을 제일 먼저해서 난생처음으로 회의 주석단엘 다 올라갔었네. 서기장, 오늘은 속이 타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루 내가 말아준 이담배를 가슴 후련하게 한대 태우게나...》

젖은 눈을 습벅거리며 한줄기의 연기를 피워올리며 저절로 타는 담배를 조용히 내려다 보던 영삼은 담배불이 죽을만 하면 다시 맘껏 빨아서 상돌우에 올려놔주고 놓았다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들어 입에 물었다. 그는 가슴이 짝 메이게 그 독한 담배연기를 들이그어보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었다.

풍년바람을 안고 금파로 설레이는 밀보리밭은 영삼이가 그렇게도 듣고싶어하는 리서기장 옥진이의 석싹한 목소리처럼 무엇인가 끝없이 속삭이는듯 싶었다.

해방된 거리에서

문병익

△때 1950년 여름

△곳 해방된 남반부의 어느한 도시에서

△대역

정민 양어학자

은경 그의 처

미순 그의 딸(고녀학생)

덕삼 그의 장인

경수 그의 제자

어부로인

군관

전사 1, 2

제 1장

정민의 집이다.(판자로 울타리를 하고 퇴마루가 달린 단층집)

처마에 잇닿아 포도나무가 운치있게 뻗어있고 그 밑에 크고작은 어항들이 주련히 놓여있다.

△막이 열리면 해방된 거리의 벽찬 소음과 함께 행군하는 군인들의 힘찬 대렬합창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은경이가 어항에 물을 갈아주다말고 불안한 기색으로 밖을 살핀다.

△이때 장작단을 어깨에 멘 경수가 바깥대문을 열고 들어온다.

은경 아니 어디서 나무를 이렇게

경수 미국놈들이 도망치면서 굴러떨개친 트럭에서요 (장작단을 내려놓는다.)

은경 (겁을 먹으며) 군수품을 함부로 다쳤다 어쩔려구...

경수 뭐라나요 그것두 날랜 사람들이 다 뜯어가구 땅에 묻히게 좀 남아있던데요. 연탄공장두 돌아가질 않는데 아무거나 때야지 벌수 있나요. 걱정말구 이걸때서 아침진지나 끓이십시오.

은경 (한숨을 쉬며) 에그... 어떻게 해야 할지...

경수 이런 때일수록 때식은 제때에 끓여 잡수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직 들어오시질 않았는가요?

은경 예... 밤에 나가신이가 이젠 해가 중낮이 되여오는데 어떻게 된 일일가요? ... 혹시 단속이라두 된게 아닐가요?

경수 글썄요... 선생님이 양어장에 나가신건 틀림없는가요?

은경 그럼요, 벌써 사흘째나 밤이면 남몰래 나가서 양어못을 돌아보군 하는데요... 에그 글썄 관청에 다닌 사람들은 사돈에 팔촌까지두 잡아간다는데 그러다 어쩔려구 그러느지요...

경수 선생님이야 관청에 다닌건 아니니까 별일은 없겠지요.

은경 관청에 관상용물고기를 용달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양어장엘 다녔는데 마찬가지지요 뭐

우리 애 아버지가 관청이랑 고관들 별장들에 있는 수족관들까지 직접 맡아서 봐줬기때문에 이복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을거라구 리사장령감이 차까지 보냈댔어요. 자기들하구 함께 떠나자구요.

경수 선생님이 그런 일까지 맡아 하셨는가요?!

은경 (그자리에 주저앉으며) 에그... 리사장령감의 말대루 여길 떠났어야만 하는건데 당신마저 떠나면 양어못의 물고기들이 어찌겠느냐면서 끝내 우기시기에 더 말을 못하구 주저앉았더니 글썄...

경수 선생님이로서야 왜 안그러겠습니까. 그양어못엔 값비싼 관상용고기들두 그렇지만 선생님이 남모르게 넣고 기르면서 한생을 바쳐 연구해오는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금시 눈물이 글썽해지며) 하긴 그 고기들을 생각하면 글썄 애아버진 그것들때문에 왜놈들하구 재판놀음까지 벌렸었다오.

경수 저두 알고 있습니다. 일본놈 제지공장에서 선생님의 양어장에 오수를 흘려들게 해서 10여년동안이나 연구해오던 물고기들을 몽땅 죽였다지요.

은경 물고기뿐인가요. 그놈들이 제지공장부지를 늘꾸려구 짜고든걸 모르구 재판을 걸었다가 집마저 차압을 당하구 온 식구가 하루아침에 알려지신세가 되어 한지에 나앉았지요. 그런데두 글썄 애아버진 어떻게 하나 연구사업을 계속해보겠다구 온몸에 감탕을 뒤집어

쓰면서 숨죽은 양어못을 뛰지구 또 뛰져서 겨우 새끼고기 두마리를 얻어냈다우...엄동 설한에 남의 집 옷간에서 세방살이를 하면서 그걸 품에 안구 살려내던 생각을 하면 지금 두...(눈굽을 찌는다.)

경수 (한숨을 쉬며) 식민지인테리의 슬픔이지요. 선생님같이 이름있는 학자가 연구비를 마련 할길이 없어 기업주에게 고용되어 관상용고기나 기르고있는것두 마찬가지구요.

은경 글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무사할것 같지 않아요.

리사장령감이 봉변을 당할거라구 하며 갔다던데요.

경수 아마 이북에서두 양어학자 한정민이라면 학계들에선 아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은경 학계에서나 알면 뭘해요. 뒤가 깨끗치 못한데요.

난 정말 요새처럼 불안해선 살것 같질 못해요, 지난밤엔 글쎄 동무네 집에 잠간 다녀오겠다구 나간 계집애두 돌아오질 않지 온밤...

경수 고너에 다니는 따님말인가요?

은경 그 애두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분명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만 같은데...

경수

△ 이때 바깥대문이 열리며 작업복을 입고 진흙이 게발린 들가방을 손에 든 한정민이 치친 걸음으로 들어온다.

경수 (반기며)아니 선생님이 오시는구만요... 선생님! (달려가 인사를 하며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든다.)

정민 아니 그 면에서 경수군이 어떻게?! ...그래 집들에서들은 다 무고한가?

경수 예, 선생님이 여기 그냥 남아계신다는 소식을 어제야 들었습니다.

정민 자네네 회사에서두 물고기잡인 아직 못하겠지?

경수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정민 음. 그저 좀... (작업복웃웃을 벗어 은경에게 준다.)

은경 (받으며) 여보, 제발 지금이라두 여길 떠나자요. 난 정말 가슴이 떨려서 더는 못견디겠어요.

당신이 여기 그냥 남아있다는 소문이 온거리에 다 퍼졌다는데 이러단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정민

은경 여보, 제발 부락이에요, 촌에 있는 미순이 고모네 집에라두 가있자요, 네? 엇저녁에 집을 나간 미순이가 아직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엘 봐서라두 제발... 여보.

경수 (다가서며) 선생님. 당분간은 사모님 말씀대로 하는것두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급히 온건 선생님을 대신해서 학계와두 련계를 가지구 이북사람들이 선생님을 리해하도록 도움을 드리자고 했었는데 아직은 때가 좀 이른것 같습니다.

은경 (사정하듯) 여보, 그렇게 하자요 네?

경수 선생님이 연구하고 있는 고기들은 그동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 정민은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한숨을 쉬며 토방에 앉아 담배를 붙여문다.

은경 여보...

경수 선생님 전 제자로서뿐아니라 선생님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경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구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정민 경수군, 자네의 말뜻은 알겠네. 허지만 내 지금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유감스럽지만 군의 호의를 받아들일수가 없구만.

경수 아니 그건 왜서인가요?

정민 글쎄 뭐라고 할가... 아직은 나도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잘 모르겠소.(피로한 한숨을 쉬며 착잡한 생각에 잠긴채 어항옆의 물바게즈를 들고 집뒤로 간다.)

경수 선생님!

△이윽고 집뒤에서 낡은 수동뿔프로 물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경 (그자리에 주어앉으며) 예그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땐 계집애라두 옆에서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경수 사모님, 따님이 혹시 네거리에서 표목상을 한다는 그 외할아버지네 댁에 가있지 않아요?

은경 글쎄요, 난 이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경수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외할아버지네 댁에두 가보구 따님의 행처부터 좀 알아보구 올테니 사모님은 그동안 부엌에 불을 지피구 아침진지를 끓이십시오. 사모님마저 맥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은경

경수 그럼 제 얼른 갔다오겠습니다.(나간다.)

△은경, 그를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울

바자너머로 프랑카드며 수기를 든 청년들이 떠들썩하며 지나가는것이 보인다.
△새생활이 약동하는 거리의 벽찬 소음과 대조를 이루며 수동뿔프의 빼격거리는 소리가 서글프게 들린다.
△이윽고 바깥대문이 왈칵 열리며 너학생복 차림의 미순이가 뛰여 들어온다.

미순 (기쁨에 차서) 어머니!
은경 (놀라서 돌아보며) 아니 넌 어델 가있다 이제 야 오느냐?
미순 학교에 갔드랬어요.
은경 뭐 학교엘?
미순 (그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국해방성전에 참전시켜달라는 우리 해방지역 이남청년들의 한결같은 청원을 받으시고 패히 승낙하셨대요!
은경 뭐? 아니 우리 이남사람들두 군대에 받아주신단말이냐?
미순 네! 그래서 지금 대학들과 고등학교들에서는 물론이구 가두와 농촌청년들까지두 모두의용군에 탄원해나섰어요.
저 소리를 들어봐요. 지금 시인민위원회로들 앞을 다투어 달려가고 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청년학생들의 격동되는 구호소리와 노래소리.

은경 (이끌리듯 그쪽을 바라보다 금시 시름에 잠기며) 예그 남들은 저렇게 해방이 돼서 기뻐하는데...
미순 어머니, 우리 고녀에서두 어제밤에 탄원모임을 가지구 신체검사까지 다 했어요.
은경 아니 그럼 너두?
미순 네 엇저녁에 길너네 집에 가니 마침 학교에서 동무들이 데리러 오질 않았겠어요.
은경 예그 이 철딱서니 없는것아 동무들이 데리러왔다고 네가 거길 따라나서면 어찌냐? 체처지두 좀 생각을 해야지.
미순 아이참, 어머니두 내 처지가 어쩔단말이에요.
은경 넌 그걸 몰라서 묻니?... 예그 이제 정말 여길 떠나야지 안되겠다. 어서 방에 들어가 짐을 싸거라.
미순 (새침해서 돌아서며) 전 이제 또 시인민위원회로 가야 해요. 거기서 최종심사를 해요.
은경 애 미순아, 제발 너까지 이 어미속을 태우지 말아. 넌 그래 아버지가 잡혀가구 온

식구가 한지에 나앉는 꼴을 보구야 정신을 차리겠냐 응?

미순 어머니,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해방의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어요. 우리 이남민중들두 **김일성** 장군님의 정치를 받아야만 이복사람들처럼 잘살 수있게 된다는걸 모르세요.

△이때 물바게뜨를 들고 집뒤에서 나오던 정민이 그들의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춘다.

은경 그렇지만 너의 아버지진 나설수가 없는 몸이 아니냐? 너두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였다는걸 알면 군대에 받아주질 않아.

미순 아니예요. 그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예요. 어머니두 어제 우리 가난한 이남농민들에게두 이복농민들과 똑같이 나라에서 쌀을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보도를 듣지 않았나요. 전 믿어요.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두 이해해줄거예요.

은경 예그, 네 말대로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냐...
(눈금을 찍는다.)

미순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잘 말씀해주세요. 아버지진 저를 나무라지 않을거예요.
(나가려다.)

은경 (그의 팔을 잡으며) 아니 애야 가더래두 며칠만 더 있어보자꾸나 응?

정민 (나서며) 여보!

미순 (그제야 정민을 돌아보며) 아버지!...

정민 떠나거라. 어서!

미순 아버지- (무엇인가 말하려다 말고 그만 얼굴을 싸쥐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은경 (정민을 의아해서 보다 황급히 따라나서며) 아니... 애 미순아...

정민 여보, 그 애를 찾지 마오.

은경 아니 당신은... 당신은 정말 어찌자는거예요.
네? (그를 원망스럽게 쳐다본다.)

△정민은 말없이 포도나무밑 의자에 가앉는다

△바람에 포도나무잎들이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뒸다.

△사이

△이윽고 손에 수기(공화국기발)을 든 덕삼이 열려진 대문을 닫으며 들어온다.

정민 (일어서며) 아버님이 어떻게?...
덕삼 어떻게구 뭐구 여기선 왜 이러구들 멍청하
니 있느냐 응? 거리에 나붙은 광고를 보지
들 못했냐?
은경 광고요?
덕삼 하, 너희들은 집안에만 들어박혀있으니 바
깁게상엔 영 캄캄이로구나. 일체 시민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던 처소로들 나오라는
광고가 나붙었다. (안주머니에 간수했던
광고용지를 꺼내 정민에게 주며) 읽어보게.
정민 (그것을 받아 옆에 놓으며) 저두 보았습니
다.
덕삼 (놀라며) 어영?... 그래 미순 애빈 어떻게
할 작정인가?
정민
덕삼 자넨 아직도 그 알량한 고기새끼들때문에
마음을 쓰고있나?
정민 아버님, 전 그에 대해선 이미...
덕삼 그럼, 광고에 일을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
에 대해선 묻지를 않겠다구 써있지만 어디
사람이야 알겠나. 더우기 미순 애빈 여
느 사람들 하구는 다르네. 나같이 장사나
해먹구 사는 사람이라면 몰라라 공부를 그
만큼 한 사람이 관청일을 맡아 해줬는데
이북사람들이 가만둘리 만무하네. 괜히 여
러 생각 말구 당장 여길 뜨게. 이젠 광고
까지 내붙였으니 응하지 많은 사람들은 총
을 들고와서 잡아갈거네.
은경 (공포에 질려) 여보...
덕삼 미순 어민 빨리 방에 들어가 짐부터 싸거
라.
내 운송점에 다니는 장령감한테 가서 달구
지를 한대 부탁해보겠다.
은경 저 아버님, 미순이가 시청엘 갔어요.
덕삼 뭐? 그 애가 거긴 왜?
은경 의용군에 입대를 하겠다구...
덕삼 무슨 소릴... 아니 그 애가 지난 밤에 동무
네 집에 나간게 들어오질 않았다구 우리
집에 방금 사람을 보내지 않았었냐?
은경 이제 방금 집에 왔다갔어요.
덕삼 잘들은 한다... 정치에 대해서 어두워두 폰
수가 있지 음... 좌우간 그 앤 그 애구 짐
부터 싸거라. 이러구있단 너희들이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쯔쯔... (나
가려다 말고) 참 미순 애빈 여기서 머물거
리지 말구 우리 집 뒤고방에라두 가서 우
선 몸을 숨기게.
(황급히 밖으로 나간다.)

△사이

은경 (정민에게 다가서며) 여보 어서 방에 들어
가 옷을 갈아입고 떠나세요. 아버님하구
함께 짐을 싸가지구 뒤따라가겠어요.
△정민은 여전히 착잡한 생각에 잠긴채 말
이 없다.
은경 여보...
정민 (그제야 머리를 들고 그의 얼굴을 새삼스
럽게 쳐다보며) 여보, 여기에 와서 좀 앉
소.
은경 아이 이젠 제발 딴 생각 말구 떠나요. 네?
정민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당신두 이젠
퍽 늙었구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오.
공연히 나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구 한평생
번한 날이 없이...
은경 아니 새삼스럽게 그런 말은 왜 해요?
정민 (한숨을 쉬며) 내가 어리석었지. 이루지두
못할 꿈을 가지구... 그래두 내뎌엔 나라와
민중을 위해서 뭔가 보람이 되는 일을 해
보려구 했는데... 아...(그의 입에서 불같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은경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연구사업이
야 전쟁이 끝나구두 계속할수 있잖아요.
정민 글썄, 양어못 하나 마련할수가 없어 10여
년동안이나 새끼고기들을 길러 강에 내다
넣었으니 혹 운수가 좋아 그것들이나 살아
남는게 있을려는지...
은경 ... (가슴이 아픈듯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찌는다.)
정민 여보, 우리 미순이가 만일 의용군에 입대
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당신이 나를 대
신해서 잘 말해주오. 한생을 잘못 살아온
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은경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예요?
정민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보 난 이 광고를
가지고 법기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소.
은경 네? (아연질색하여) 아니, 당신은 그럼
《자수》를 하겠다는거예요?
정민 여보, 제발 나를 막지 말아주오. 아무리 생각
을 해도 달리는 할수가 없소.
당신이야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지 않소, 내
가 저 물고기들을 버리고는 그어데도 갈수
없다는걸 말이요.
은경 당신은 또 그런 말을 (그만 설음이 앞서
입술을 깨문다.)

정민 여보 용서하오. 난 차라리 관청에 드나든게 죄로 된다면 그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소.

은경 안돼요. 당신이 《자수》를 하겠으면 차라리 미순이두 저두 함께 데리구 가세요.

정민 여보...

은경 (울먹이며) 저두 당신의 심정을 모르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안돼요. 당신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린...우린 못살아요 (그만 얼굴을 싸지며 그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정민 여보 그만하오 당신마저 이러면 난 어찌란 말이요? 응?

은경 (북받치는 설음을 삼키며) 이건 너무도 가혹해요. 왜놈때는 그 물고기때문에 집마저 차압을 당하구 지지리두 고생만 하질 않았어요. 실상 연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당신이 기업주밑에서 일한게 아니에요. 리사장령감의 말을 들으면 그게 다 화근이 된다니 어찌겠어요. 해방이 되었다고 모두 기뻐들 하는데 우린 어떻게 하겠어요?

정민 으흑흑...

정민 모르겠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아... (자신의 곡절많은 운명파도 같이 우물거불타래쳐오른 포도나무줄기를 주먹으로 광황친다.)

△은경의 울음소리 더욱 높아진다.
△방창이 흐른다.

한평생 바치여 길러온 꿈이
피지 못할 한떨기 꽃이었던가
바람세찬 그날은 흘러갔어도
얼어붙은 가슴은 풀길 없어라.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은 터뜨리던 은경이가 얼굴을 싸친채 부엌으로 뛰어들어간다.
△이윽고 어깨에 고기그물을 멘 어부로인이 들어온다.

어부 선생님! 어이구, 댁에 마침 계시는구만. 선생님 이거 내오늘 큰 횡재를 했습니다.

정민 아니 로인님이 어떻게...

어부 아 글썄 이런 희한한 일이 또 어데 있겠소. 내오늘 앓고있는 우리 손주녀석이 자꾸 성화를 먹이기에 그물을 메구 또 앞강에 나갔댔수다. 아 그런데 일이 될 때라 첫 그물에 글썄 배개통만한놈이 한마리 걸려들질 않았겠소.

이게 웬 떡이냐 하구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놈의 고기가 생기는는 다른것들하구 비슷한데 비늘이 영 다르게 붙질 않았겠소.

정민 (직업적인 관심에서) 아니 그럼?

어부 (무릎을 치며) 옳수다. 그놈이 바로 선생이 10년전에 새로운 물고기종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그 새끼고기가 자란거드란말이웨다.

정민 (흥분하여) 로인님 그게 정말인가요?

어부 틀림없다니까요. 비늘이 붙은거랑 생김새가 선생이 늘 강에 나와 나한테 설명을 해주던 것과 신통히두 꼭 같더란 말이웨다. 내 그만 아쉽게두 너무 덤벼치다 그놈을 놓쳐버려와서...

△정민은 금시 직업적인 흥분을 가라앉히며 깊은 한숨을 쉰다.

어부 (그를 의하해서 쳐다보며) 아니 왜 그리 상심해하시오? 내말이 믿어지질 않아서 그러시오?

정민 아 아닙니다. 로인님...

어부 하여간 내 빈손으로 와서 할 말은 업게 됐수다만, 웬 점잖으신 간부어른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내려오셔서 보기까지 하셨수다. 그분은 무슨 중요한 일을 보시는 큰 어른 같은데 양어에두 껍 조여가 깊으십디다. 그래 내 그분께 선생에 대한 얘기를 죄다 말 씀을렸수다. 그분은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그 참 훌륭한 연구사업을 하는 학자선생이 돈이 없어 기업주밑에서 고용살이를 한다니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며 선생을 한번 꼭 만나보시겠다고 하십데다. 수첩에 선생의 주소성명까지 적어넣으셨으니 이제 수일간 선생을 찾으실게요.

정민 로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이틀두 아니구 10여년동안을 이렇게 하루같이...

하지만 로인님, 앞으로는 그 고기들때문에 더는 마음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전 이젠...

어부 (놀라며)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선생이 정 내 말을 믿지 못해하는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 다시 가서 어떻게 하든지 몇놈 건져오겠수다.(그물을 메고 일어선다)

정민 (난처해하며) 아,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로인님...

어부 하여간 내 해떨어지기전에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시우. (로인답지 않게 팔을 내저으며 나간다.)

정민 로인님...(따라일어섰으나 뜨거운것이 가슴에 흘러들어 더 말을 못한다.)

△이때 은경이가 부엌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려나.

정민 여보. 어텔 가오?

은경 미순일 데려와야겠어요.

정민 여보, 그만두오.

△은경은 아무 대답도 없이 헹하니 밖으로 나간다.

정민 (혼자소리로) 아, 어떻게 해야 한단말인가? 차라리 아무도 없을 때...(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 입고 나온다.)

△이때 덕삼 허둥지둥 덤비며 들어온다.

덕삼 (숨차하며) 이,이사람 미순 애비 얼른 몸을 피하게.

총을 멘 군대들이 지금 자네를 찾아 이리로 오고 있네.

정민 예?

덕삼 내가 운송점에 다니는 장령감네 집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옆집에 총을 멘 군대들이 와서 자네 이름을 대며 찾는걸 보고 뛰어오는 길이네.

자, 어서 뒤문으로 빠지게.

정민 아버님 전 이미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덕삼 뭐라구?

정민 아버님, 늙으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긴 면목이 없습시다만 처와 미순일 부탁합니다.

덕삼 (엄하게) 안되네, 지금은 법은 멀구 총알은 사정이 없는 세월이네.

씩 돌아서게 어서! (그의 등을 민다.)

정민 (피해서며 사정하듯) 아버님...

덕삼 글썽 안된다는데!

△이때 바깥대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는 소리가 난다.

△두사람 긴장하여 그쪽을 보는데 대문이 조심히 열리며 군관과 기관단총을 멘 전사 1, 2가 들어온다.

군관 (거수경례를 하며) 안녕들 하십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댁이 양어학자 한정민 선생댁이 아닌가요?

정민 (나서며) 내가 한정민이요. 그러지 않아두

당신들을 찾아가려던 참인데 걸음을 시켜서 안됐소. 자 감시다.

군관 (반기며) 아니 저희들이 찾고있는걸 아셨는가요?

정민 그렇소.

군관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최고사령부에서 왔습니다. 용무에 대해선 가시면 알게 될겁니다. (덕삼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정민 앞서고 군관과 전사1, 2 뒤따라 나간다.

△덕삼은 그들이 나가는것을 멍하니바라보고 섰다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이윽고 은경과 경수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온다.

은경 (사방을 둘러보다가 불길한것을 예감하며) 아버님, 그이가 어텔 가셨나요?

덕삼 (마뜩지 않은 음성으로) 총을 멘 군대들이 와서 데려갔다.

은경 (놀라며) 네? 아니 어텔 말인가요?

덕삼 전시에 총을 멘 군대가 데려갔다는데 물을 게있냐? 넌 도대체 어텔 나가 돌아다니느냐? 제남편이 잡혀가는것두 모르구 찌찌

은경 아니 그이가 잡혀가다니요? 그게 정말인가요?

경수 로인님, 좀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어데서 온 군인들이라고 하던가요?

덕삼 그건 알아 뭘하겠나? 난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아무튼 이제 끝장일세 끝장이야.

은경 여보...(달려나가려나)

경수 (그들을 막아서며) 사모님 좀 자중하십시오. 제가 가서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히달려나간다.)

△은경 그가 나가는것을 바라볼 때 서서히 압전된다.

.....

제2장

무대 밝아지면 전장과 같은 날, 역시 한정민의 집이다.

△은경이가 자그마한 보침을 한손에 잡으채 실신한 사람처럼 퇴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다.

△이따금 부는 바람에 포도잎들이 살랑달뿐 무대는 쥐죽은듯 조용하다.

△이윽고 밖에서 소달구지를 멈춰세우는 소

리가 나더니 손에 채찍을 든 덕삼 들어온다.

덕삼 (은경을 마뜩지 않게 보며) 아니 넌 왜 아직 두 그러구 앉아있냐? 소달구지를 얻어왔다. 어서 집을 내다 신자.

은경 아버님, 그 사람들이 그이를 정말 면회시켜주지 않을까요?

덕삼 아니 넌 아직두 그냥 그 생각이나? 참 답답은하다. 그만큼 알아들도록 말을 했는데두... 아, 이 란리통에 총을 쏜 군대가 데려갔는데 면회라는게 다 뭐냐?

은경 그래두 사정을 하면 그저 모른다고만 하지야 않겠지요. 그이가 지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아침진지두 드시질 못하구... (그만 눈물이 앞서 말을 못하고 눈곱을 찌는다.)

덕삼 제발 그 어린애같은 소리 이젠 그만되라. 옛날부터 전시법에는 용서라는게 없는 법이다. 다른 생각 말구 어서 냉큼 일어서거라. 집을 물수당하기전에 다문 옷가지 몇개라두 옮겨놔야지 이러구있단 알거지신세가 되구말아.

은경 전 아무데두 못가겠어요. 그이가 없는데 찾가지는 해서 뭘해요.

덕삼 (그만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지른다.) 뭐가 어찌구 어찌? 그래 다 늙은 이 애비가 울화가 터져 죽는 꼴을 보자고 이러느냐 웅?

은경 (울먹이며) 아버님, 아버님은 왜 저에게 화를 내시나요? 아버님은 그이가 양어를 하는 걸 늘 못마땅해하셨지요? 그런데...그런데 왜 미리 막지를 못했요. 왜놈제지공장때문에 양어장 고기를 다 죽이구 온식구가 한지에 나앉았을 때만 미련을 더 못가지게 했어두 이런 일이야 없었을게 아니나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이 없이 어떻게 사는가말이에요.(그만 쓰러지듯 담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을 터뜨린다.)

덕삼 (가슴이 터져오는듯 몇걸음 비척거리며 걷다가 가슴을 치며) 듣기 싫다. 푸념을 한다고 될 일이나.

△은경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거리에선 여전히 청년대학생들의 힘찬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덕삼은 맥이 빠진듯 그자리에 주저앉는다.

△이윽고 물초롱을 손에 든 어부로인이 들어온다.

어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두리번거리다가 덕삼에게 다가간다.) 저 난 한강에서 고기잡이로 늙어오는 어부웨다.이 댁 선생한테 약속한게 있어 왔는데요.

덕삼 (그를 유심히 보다가) 말씀을 하시오. 내가 그사람 장인이요.

어부 (반기며) 아, 그러신가요. 가만 그러구 보니 면목이 있습니다. 저 네거리에서 포목상을 한시는...

덕삼 (신경질적으로)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을 하시오.

어부 예, 참 세상엔 신비한 일이 흑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거야 말로 진짜 신비한 일이지요. 자, 이걸 보시우. (초롱안에 손을 넣어서 푸들 거리는 물고기를 들어보이며) 이제 바로 이 댁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한강에다 새끼고기를 넣은거웨다.그런데 글썽 그동안 그렇게 애써 살피두 보이질 않던게 해방과 함께 나타나질 않았겠습니까. 해방과 함께 말이웨다. 그러구 보면 미물인이 물고기두 우리 바깥세상을 아는것 같다니 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인장? 핫하...

덕삼 (가슴이 터져나와 더는 참을수 없는듯) 여보시오, 제발 그 물고기얘길랑 그만하시요. 이거야 어디 사람이 견디겠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몇걸음 앞으로 걸어나간다.)

어부 (의아해서 그를 보며) 아니 이거 선생님신상에 무슨 일이라두...

덕삼 잡혀갔소. 그 알량한 고기새끼때문에말이요.

어부 고기새끼때문에 잡혀가다니요? 이 댁 선생님이 말인가요?

덕삼
△은경이가 손에 작은 보침을 들고 부엌에서 나온다.

덕삼 (그를 보며) 아니 넌 어델 가려느냐?

은경 거리에라두 나가서 알아보겠어요.

덕삼 뭐? 알아보려 간 사람두 돌아오질않아서 그러는데 가긴 어델 간단말이나? 그만되라.

은경 아버님, 너무 노엽게 생각지 마세요. 전 그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전엔 정말 못견디겠어요.

△은경 나가려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진다.

△울바자너머로 어데론가 흥분되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끌리듯 모두 그쪽을 본다.

덕삼 무슨 일인가요?

어부 글썽요.

△사이
△이윽고 바깥대문이 활짝 열리며 경수가 뛰어들어온다.

경수 (흥분되여) 사모님 읍니다. 따님이 군복을 입고 저기….

미순 어머니!

은경 (놀라며) 아니 이게 누구냐?! 미순아!

미순 어머니! (달려와 그의 품에 와락 안긴다)

은경 네가… 네가 끝내 소원을 풀었구나. 그런데 너의 아버지진…(눈굽을 찌는다)

미순 어머니 기뻐하세요. 아버지진 방금전에(그만 감격에 목이 멘다.)

은경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단말이나? 응?

미순 어머니, 글썄 아버지가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뵈웠어요

은경 뭐?!…

덕삼 (놀라서 다가서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미순 할아버지, 제가 군복을 타입고 시민인위원회에서 나오다가 마침 저 경수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경수아저씨랑 같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경수아저씨랑 같이 아버지를 찾아 양어장쪽으로 무작정 뛰여가는데 글썄 아버지가 마주오지 않았어요.

덕삼 그래서?

미순 (바깥대문을 보며) 아이 저기 아버지가 오세요.

△모두 그쪽을 돌아보는데 한정민이 들어온다. 그는 몹시 흥분되여있다.

은경 여보!… (그의 손에서 보집이 떨어진다.)

덕삼 미순애비 이사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웠다는게 참 말인가?

정민 네…

덕삼 (그의 손을 잡으며) 미순애비, 좀 차근 차근 말을 해주게나. 난 통 뭔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구만.

정민 아버님, 저두 지금 꿈을 꾸고 있는것만 같습니다… 저희집에 왔던 군인들이 저에게 내가 일하던 양어장으로 곧장 가자고 하두만요.

덕삼 음.그래서…

정민 제가 그사람들을 따라서 양어못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던 류달리 풍채가 좋으신 젊으신 한분이 저를 마주나오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분이

아마 그중 직제가 높으신 법기관에서 나오신분이겠거니만 생각을 하고 무작정 그분앞에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법대로 처분해달라고 말씀올렸습니다.

덕삼 그래서?

정민 그러자 그분께서는… 아니 학자선생이 무슨 오해라도 하고있는게 아닙니까? 선생에 대해서는 시내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돌아보는 과정에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한 어부로 인한테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자선생이 돈이 없어 연구사업을 못하고 관상용고기나 기르는 일을 하였다니 마음 고생인들 얼마나 컸겠느냐고 하시며 자신께서 오히려 가슴아파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어부 아니 그럼 그분이 내가 강가에서 만나뵈웠던….

정민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였습니다.

덕삼 (머리를 끄덕이며) 음, 미순애비가 정말 귀인을 만났군그래…

정민 전 너무도 고맙고 뜻밖이여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드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문득 로인님한테서 들은 말이 생각나서 아, 이분은 법기관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학자임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나같은 사람의 심중을 그토록 환히 꿰뚫어보시는구나 하고 단정을 하였습니니다.

덕삼 음…

미순 (나서며) 아버지 그래서요?

정민 그래서 난 그분께 어느 분야를 전공하시는 학자이신가고 묻지를 앓았겠니… 그런데 글썄 우리 집에 왔던 그 부판어른이 웃으면서 그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라고

미순 (놀라며) 네?!

어부 아니 그분이 바로?!…

정민 전 그만 너무도 놀라고 꿈만같아 몸들바를 모르다가 그이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장군님!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습니다.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해 눈굽을 흘친다.

정민 글썄 법기관의 처분만을 바라고 왔던 제가 장군님을 만나뵈우리라고야 꿈엔들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울고있는 저의 손을 친히 잡아 일으켜주시며 우리는 적들을 위해 복무하였지만 선생처럼 먹고 살기 위해 할수없이 복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탓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광고까지 내붙이게 하였는데 선생은 왜 나오질 않았는가,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느냐고 가볍게 나무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덕삼 (그자리에 무릎을 꿇고앉으며) 장군님! 이 죄 많은 늙은것을 용서해주시시오. 제가 그만 미국놈들의 악선전을 끝이 듣고… 흑… (그만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을 터뜨린다.)

은경 여보, 이게 정말 꿈이에요? 생시예요?… 장군님께서서는 어쩌면… 어쩌면… (정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흑흑… 흐느낀다.)

△미순이와 경수도 돌아서 눈물을 흘린다.

정민 (은경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며) 여보, 이게 왜 꿈이겠소.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겠는가 하는걸 의논해보자고 나를 찾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험한 세상에서 퍼지 못했던 허리를 쭉 펴고 양어연구사업을 마음껏 해보라고 말씀하시었소.

미순 어머니,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해결해주시었대요

은경 너의 아버지를 위해 장군님께서말이냐?!

정민 그리고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양어못을 마련할 길이 없어 10여년동안 고기새끼들을 길러 강에 내다 넣었다는 말씀을 올리자 크게 웃으시며 옛말에 화가 복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야 말로 화가 복이 된셈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장군님께서 왜놈들과 싸우시던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구상하여오시는 양어사업방향이라고 하시었소.

은경 네?!

어부 아니 그럼, 장군님께서서는 그래서 강가에 몸소 내려오시여 그 물고기를 세심히 살펴보시었군요

정민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담수 양어와 함께 강하천양어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호수와 늪, 강하천 그 어디에서나 물고기가 육실대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어부 강하천에서도 말인가요?!

정민 장군님께서서는 저를 한 인간으로서만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주시었을뿐 아니라 과학자로서도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려 세워 주시었습니다.

어부 정민선생, 내 비록 늙기는 하였지만 선생이 시키는 일은 아무것이나 다 할수 있으니 선생의 밑에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게 해주시오.

정민 로인님, 고맙습니다!

경수 선생님 저두 함께 일하게 하여주시시오.

정민 경수군!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미순은 눈물이 글썽하여 그들을 바라보다 은경의 품에 안긴다.

△이때 밖에 승용차가 와 멎는 소리, 이윽고 군관이 들어온다.

정민 (마주나가며) 아니 부관동지가 어떻게…

군관 (거수경례를 하며) 선생님,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민 (놀라며) 네?!

군관 (가방에서 친서를 정중히 꺼내들며) 방금 전선으로 떠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달리던 차를 잠시 멈춰세우게 하시고 저에게 이 친서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였습니다.… 내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에게 양어학자선생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는 주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소.

그 마음어진 학자선생이 전쟁을 하고있는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뭘 제대로 요구하겠소. 연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것이 있으면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결하라고 하시오…

정민 장군님!… 저같은게 뭐라고 이렇게까지(그만 흑 하고 흐느낀다.)

군관 선생님, 장군님께서 친히 수표하신 신임장입니다. 어서 받으십시오. (손에 들었던것을 정중히 전한다.)

정민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오열을 터뜨린다.) 장군님!

△방창이 흐른다.

긴긴세월 어둠속에 필수 없던 꽃
태양의 해발아래 붉게 피었네
인민 위해 바치시는 높이신 뜻
충성의 한길우에 빛내여가리

△해방된 거리에 노을이 붉게 탄다.

△방창이 계속되는 속에 천천히 막이 내린다.

련시

해빛은 남해끝까지

김철

또다시 결전의 날 닥쳐온다면
전사여 가지고가라 이 노래를

탄창속의 총알처럼...
배낭속의 비상미처럼.

남진의 길

아, 부둥켜안고 부둥켜안고
오래 머물지 못하는것을
나무람 말라 동포들이여!
삭정이처럼 여윈 손으로
샘물 한바가지 받들어올리며
전사의 군복을 눈물로 적시는
남녘의 어머니시여, 당신의 백발우에
군모를 벗지 못하는것을 용서하시라

금강은 어디?
대전은 이제 얼마?
7월의 폭양아래
따바리총신 불처럼 뜨거운데
물통에 출렁이는 한바가지 샘물은

수원 지나 평택에서도
어이 줄지 않는가

아, 승리의 날 만나자 겨레들이여!
통일의 날 만나서
실컷 물어보시자 어머니시여!
남진의 길 천리는 결전의 길 천리-
우리 이 길을 다 가기전에는
대전을 지나 저쪽
대구도 지나 저쪽
부산, 진주, 제주도, 남해의 한끝까지 가기전에는
한바가지 이 샘물 다 마시지 못하리!

지평선에 은은한 포성을 맞받아

전선으로 뻗은 험한 길우에
승용차 한대 벗어나서더니
연회색 여름옷 가볍게 입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내리시었네

두손 허리에 얹으시고
이윽도록 바라보시는 들판
방금 미국폭격기가 쏘고 간 논배미에
초연은 자욱하고
뿌리채 뽑힌 파아란 벼포기들
물우에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푸른 섬광 번뜩이는 그이의 시야에
언뜻 비껴왔어라
《김두삼, 논 3천평》
먹글씨도 생생한 나무표말이
하마 넘어질듯
무너진 논뚝을 벌디디고 선것이...

어찌 넘어지랴

해방된 땅의 농민!
어찌 다시 빼앗기랴
수령님 주신 땅, 논 3천평!

내미는 손을 잡아주시려는듯
논뚝에 내려서시는 우리 수령님
기울어진 말뚝을 바로세워주시며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였어라

-동무들
우리
저 벼모도
다시 꽃아줍시다!

아, 뒤번져 흐려진 붉은 눈물
눈물이 더워서만
흩어진 벼포기를 모아주시는
그이의 손길 뜨거웠던가

그이께서 한걸음 앞으로 나가시면

이지러진 논판이 고루어지고
또 한자국 남쪽으로 옮겨가시면
푸른 빛도 남쪽으로 퍼져여가고

《김두삼, 논 3천평》

먹글씨도 뚜렷한 나무표말이
의젓하게 머리 쳐든 논배미마다
다시 뿌리를 내린 벼포기들이

서느러운 바람결에 하느적거리는데

지평선에 은은한 포성을 맞받아
그이께선 먼 길을 다시 떠나시여라
그 이를 따라
빛이... 삶의 푸른 빛발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지여라

따발총이야기

나이는 열여덟
이름은 남진
그것 참 신통하다
그래서 그 걸음 그리도 날쌔던가

그렇지만 아직은
채 크지 못한 키에 보총이 너무 길어
오늘도 중대장의 따발총 슬쩍 건드리며
응석 절반 줄라대는 우리 남진이
-중대장동지에겐 권총이 있잖아요
그 따발총이야 전사가 메야지요

-허어, 이 친구
이 총이 어떤 총인지는 알거나 하구 그래?
행군의 휴식참
중대장과 전사는 친형제같이
대추나무그늘에 나란히 앉았네

-남진이, 이 총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히 주신 총이야
-아니, 이 총을
장군님께서요?!

-그렇다네
이 총의 성능을 검사하던 날
그이께서 몸소
우리 부대 사격장에 오셨더랬지

나의 위치는 세번째 좌지
화력지휘관의 구령이 떨어지자
첫번 좌지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런이어 다음 좌지에서도 총소리 총소리

그런데 나는 쏘지 못했지
혹시 잘못 쏘아서
장군님께서 서운해하신다면...
느닷없이 갈마드는 이런 생각에
가슴은 활랑거리고

목표물은 흔들거리고

사격장엔 숨가쁜 정적이 깔앉아
방아쇠에 놓인 손가락은
점점 더 뻗뻗해지는데
나의 등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소
...일없소
맘 폭 놓구 쏘시오
그건 우리 총이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총이요

그전에 산에서 싸울적엔
왜놈의 총으로도 백발백중했는데
우리 총이 주인을 몰라보겠어

혁명의 원쑤
계급적원쑤들의 염통을
똑바로 겨누고
자신있게 쏘시오!...

부드럽고 따스한 손이 어깨에 놓이더니
지그시 힘을 주며 나를 부추기였소
그러자 가슴은 고요히 갈앉고
뿌영던 눈앞도 환히 밝아졌소

혁명의 총, 계급의 총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우리 총으로
나는 위대한 수령님 친히 가리키시는
목표물들을 똑바로 겨누었소

그것은 나의 아버지를
동발도 없는 갱도에 몰아넣던
왜놈 광주의 물골이였고
나와 나의 어머니를
눈 내리는 한지에 내쫓으며

개화장으로 사정없이 때리던

빛놀이군의 상관이였소

그것은 왜놈대신 남녘땅에 기여든
미제식인종들의 염통이였고
남녘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리승만피뢰의 골통이였소

...그렇지

...그렇게 겨누어야지!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방아쇠를 당기였소.

...잘 쏘는군!

잘 쏘단말이야!

창공높이 붉은기는 오르고 또 오르고
장군님 앞으로 사수들은 나아가고...
그이께선 그이께선 환하겐 웃으시며
우리 가슴에 꽃을 달아주시고...

...좋은 충이요!

동무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총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하오
동무들은 이 총으로
우리 당과 주권을 지켜야 하며

...조국을 통일 해야 하오!

아, 그날!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 하신 말씀이
어찌 그날의 사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소?!

어느새 모여왔는가

중대장과 남진이를 둘러싼 전사들
눈동자마다 피끓는 가슴마다
수령님의 영상 뜨겁게 모셨는데

혁명의 총, 계급의 총

수령님 안겨주신 무장을 굳게 잡은
이 땅의 수십만 남진이들을 부르며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높이 울린다

...좋은 충이요!

동무들은 이 총으로
우리 당과 주권을 지켜야 하며
조국을 통일 해야 하오!

우리의 최고사령관

오시였네

우리 수령님

전선사령부로

천리길을 오셨네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

-오, 동무들!

잘 싸웠소, 잘들 싸웠소!

치하해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앓지는 앓았는데

다친데는 없는가

다시 또다시 손을 굳게 잡으시며

-앓소

앓으라는데두

내가 이렇게 앓았는데

동무들도 앓아야지

반공격명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에도 몇번

전화로, 무전으로 방침을 받으며

자애로운 그 모습 우러러보왔건만

이렇게 몸가까이 다시 모시니

천만가지 시름이 다 가신듯

아름찬 기쁨만이 가슴에 넘치여라

-내 동무들에게

빈 손으로 오게 될가봐 걱정했더니...

부관이 들고 들어오는 바구니를

손수 헤치시며 웃으시는 수령님

전선사령부의 야전천막은

일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지고

바구니속에서는

빨강게 익은 복숭아가 드러나고

-자, 어서들!

이 무서운 때에 싸움하기 험찮지

마치 저택의 그늘질은 프락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시던 때처럼

손들을 잡아 끄당기시며

한알씩 쥐여주시는 신선한 과일이어

아 그전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계셨을 때엔
그이께서 손수 가꾸시더니
가꾸시여 알알이 열매가 익으면
바구니에 무드기 따이시고
몸소 군대병실로 찾아와주시더니

지금 녀사께서는 아니계시고
그이 계시지 않는 트랙을
수령님께서 자주 비우시거니
지금은 지금은
누가 가꾸시는가, 이 복숭아!

누가 가꾸셨기에
불구름밑에서도 흐리어지지 않는
조선의 아침노을을 알알이 담았는가
폭풍되성 몰아쳐도 끄덕없던
백전로장들을 울리고야마는
이 복숭아!

- 아니, 왜들 들지 않소?
전쟁이야 전쟁이고
생활이야 생활이지
그렇지 않소? 동무들...

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시선을
이슬 젖은 눈으로야 그 어찌 우러르랴
-수령님 먹겠습니다
전사들과 함께 먹겠습니다!

-동무들의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최고사령관도 어찌는수 없지...
혼연한 몸가짐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어버이 수령님
복숭아 몇알로
큰 작전지도의 네 귀를 누르시여라

-그래, 미국놈들이
대전에 기여들었다말이지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잠시나마 잊었던 전쟁의 불바람은
다시 전선사령부의 천막을 흔들고
일제히 일어선 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보는데
만리혜안을 순간에 달리시여
광대한 전선을 살피시는 수령님

붉은 연필 힘있게 틀어쥐시고
쭉-쭉- 화살표를 그으시여라

그러자 순간에 이루어진
대포위성멸전의 커다란 그물이
금강남쪽계선에 펼쳐졌어라

-미국놈들,
그 오만한 놈들을
한놈도 살려 보내서는 안됩니다
밀고만 나갈것이 아니라
모조리 잡아치워야 합니다

들어오는 놈들은 이렇게 나가 치고
도망가는 놈들은 이렇게 나가 잡고
토막을 쳐서 잡고
숨통을 눌러서 잡아야 합니다

낮에도 치고 밤에도 치고
큰 부대로도 치고 작은 부대로도 치고
산에서도 답새기고 벌에서도 답새기고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호되게 답새겨야 합니다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쥐고
놈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을 말그대로
그놈들이 살아서는 돌아 못가는
불퇴의 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 마디마디 불꽃을 뿜기는 그이의 말씀
그것은 단호하고 드팀없는 그이의 결심
그것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아성인
미제의 정수리에 내리시는 징벌의 선언!

그이께선 색연필을 작전대에 놓으시고
다시 불깃한 과일들 손에 드시였어라
-미국놈들은 미국놈들이고
복숭아는 복숭아지.
그렇지 않소? 동무들!
그러시고는 크게 웃으시면서
천막자락을 활짝 제끼시여라

오, 금강의 흐름이 내려다 보이고
그 저쪽 구름가에 대전도 지척인
여기 최전연 고지우에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시는데
그이의 사랑
그이의 믿음
그이의 명령 받아안고
부대로 달려가는 지휘관들은
알알이 노을빛에 물든
신선한 과일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노래처럼 노래처럼 듣는것이였어라

수령님 오셨으니
싸움은 벌써

이긴 싸움이지요
이긴 싸움이지요

이런 일도 있었다네

이런 일도 있었다네
장마비에 흠뻑 불어난 강우에
조명탄불빛이 얼빠진듯 헤살치고
강쪽에 총총한 화점들이
수천수백의 포구와 총구들을
북쪽으로 겨누채 쪽잡도 못드는
미제 《상승사단》 《불퇴의 선》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네

대양건너 기여든 짐승떼들의
노린내 비린내에 식욕이 동해선가
끓주렸던 모기를 집요하게 달라붙고...
개굴... 개굴... 개굴
먼 논란에선 개구리소리 청승맞더니
그도 똑 그치고...
그러자 와르르르! 이 무슨 소린가?
북쪽 기슭에서 높아오는 소음
다음은 첩병... 첩병... 저건 또 뭐가?
잡겼다 떴다 물우에 두둥실
불빛에 번들번들 빛나는것은?

(철갑모?)
(뭘라구?)
(도하인가?)
(그렇구나!)
(인민군대다-!)

방어에선 바위같다던
《바위런대》의 침착성은 어디 갔는가
육설과 웨침소리로 참호들은 왈각
화점들은 다투듯 우루룩 뚜루룩

종심깊이 도사렸던 지원포들까지
방수포자락을 벗어내치고
수백미터 강쪽을 란도질하듯
포탄 포탄을 쏘아대는데
어찌된 일인가 물우에 두둥실
불빛에 번들번들 빛나는것은
끝없이 끝없이 많아지더니

하! 하! 하!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런일도 있었지 하! 하! 하!
돌각담 허무는 소리도 가려듣지 못하고
흘러가는 수박도 가려보지 못하는
미옥한 미국놈들을 한껏 비웃으며
개구리들이 다시 소리 돌굴 때엔
우리 습격조 먼 여울 건넜다네
활개짓 훨훨 적구의 길 갔다네

하! 하! 하!
그런 일도 있었군
암, 있었구 말구
하! 하! 하!

정각 4시

정각 4시
이 시간은
우리 지휘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시계에 정확히 맞춘
전면도하의 어길수 없는 시간

정각 4시
이 시간은
세계가 땀을 쥐고 주시하는 속에서
제국주의 가장 큰 우두머리와
청소한 공화국의 무력이
금강을 사이 두고 결전할 시간

시침은 침착하게 4로 접근하고
분침은 정확히 12로 달린다
초침만은 아직도 단숨을 뿔으며
한바퀴 두바퀴 분침판을 도는데
적구로 들어간 우리의 습격조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땅크들은 날이 선 무한케도로
달아오른 땅을 번디디고
포들은 포마다 복수탄을 물고
어서 쏘자고 용을 쓰는데

정각 4시!

포대경과 쌍안경
수백수천의 눈동자들이
까딱않고 초점 모은 남쪽하늘에
불끈 솟아오르는 한덩이 불구름!

불구름이 보이자
폭발소리 울린다 폭발소리 울린다.
적의 포진지를 요정내는 굉음이
대전작전의 서막을 울렸다.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수령님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직사포들이 강변으로 나간다
대안에 들어박힌 화점들을 부시며
땅크들이 돌진한다
불과 불 쇠와 쇠가 부딪치는 속에서
강물은 끓어 올라 바닥이 뒤집히고
모래는 중천에 휘말려 오르는데
금강 물결우에 함성을 남기며
쏟알같이 건너가는 부대와 구분대들

하어
총창끝에 피가 튀고
총탁판에 뼈가 부스러지는
처절한 싸움 벌어졌나니

그것은
주인들과 강도들
인간들과 야수들
정의와 부정의
혁명과 반혁명이
틀어진 먹살을
그 어느쪽에서도 먼저 놓을수 없는
판가리싸움!

그것은
누가 누구를
네 아니면 내가
살든가 죽든가 끝장을 봐야 하는
필사의 대결!

알리 없으라
강철의 톤수와 화약의 재고량으로
전쟁의 운명을 점치고
발동기의 성능과 화력의 밀도만으로
전투의 승패를 예언하는 군사가들은
금강남쪽계선에서 벌어진
이 싸움의 결말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였나니

이튿날 새벽
정각 4시가 다시 올무렵
포성은 벌써
대전시가쪽에서 울려오는데
맑아진 흐름, 금강의 물가에선
우리 야전병원의 간호원들이
토드락토드락 방치소리 높이며
어느 병사시인의 서정시를 읊었더라
.....

못잊으리라 금강의 흐름아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내대며
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나아간
전사들의 모습이 네 우에 비꼈거니

민는다 새벽마다 4시가 되면
너 우리를 추억해줄것을
그 어떤 검은 구름 다시 질어 온대도
다시는 네 얼굴 흐리우지 말기를!

전사여 앞으로

더위는 밤을 물쿠고
어둠은 발목에 늘어진다
탄약만 아닌 포탄까지 지고가는
강행군 백리
험한 산발 타고 가는
야간 행군 백리

날 밝기전에 련대는 가야 하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신 목적지-
대전해방작전의
마지막섬멸전이 벌어질 그곳으로
짐은 어깨를 내리누르고

갈증은 목구멍에 겨불을 지피는가
앞서가는 동무의 배낭에 매여단
흰천만 희끗희끗 어둠속에 보이더니
아차 그만 그것마저 아주 사라지누나

-뒤로 전달 빨리 따라올것!
-뒤로 전달 빨리 따라올것!
허나 전사는 점점 떨어졌다.
한자국 두자국... 다섯자국 열자국...

그런데 이때 누군가 다가왔다
전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더니
그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주었다.

-남진이, 장군님께서 갖고오신 복숭아야!

전사는 제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복숭아!
겨드랑이에 팔을 디민 사람은
어찌 모르랴 중대의 로당원!

-정말 장군님께서요?
-그렇소 우리 수령님께서!
어린 전사는 당원의 어깨에서
제 짐을 넉넉 도로 빼앗았다

아, 가슴에 안고가는
가슴에 안고가는
복숭아 한알의 무게로 하여
어깨를 누르는 짐을 잊은 전사여
그대 하나만 아닌 온 련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날개를 달고
어둠을 직차며 날고 있음을 그대는 아는가

-앞으로 전달, 속보로!
-앞으로 전달, 속보로! 속보로!

벼랑이면 어떠랴 골짜기면 어떠랴
하나의 무서운 불줄기 되어
련대는 간다, 대전 동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오 길이어, 길이어
백번 쓰러지면 백번 일어서고
천번 쓰러지면 천번 일어서고
수령님 정해주시고 당이 이끌어주는
하나의 길에서 한걸음도 떨어져선 안되는
전사의 길이어, 혁명의 한길이어

표창도 영예도 귀찮하지 말라
가슴에 안고가는 가슴에 안고가는
이것이면
수령님과 당의 사랑 하나만이면!

아니가고 쓰러지랴, 전사의 이 한길
가닿는다 멈추랴, 전사의 이 숨결
싸워 끝까지 이길에서 전사거니
앞으로! 앞으로!
수령님을 위하여 전사여 앞으로!
우리 당을 위하여 전사여 앞으로!

미국식 《개선행진》

배불리 처먹고 값지게 길들여진
미국종 돼지들이
우리 전사들의 총창에 물려
바지밑을 적시며
대전거리로 도망쳐들어 갈때

동서방의 이름있는 통신들이
저마다 안테나를 높이고
부산과 포항을 떠난
미제중원사단들의 기동을 두고
목청을 돋우고 있을때

여기, 악마구리 뿜듯하는
미제 《조선전선사령부》에선
편이란 재수없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불행한 사령관이
연방 퍼담아붓는 부하들의 보고에
얼을 잃고 있었다.

-각하! 땅쿵니다 땅크
공산군땅크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

-각하! 북조선군 비행대의 폭격에
군용렬차가 몽땅...

《...?!》

-각하!
《.....》

-가, 가, 가... 각하-!
-듣고 있다-!

-도-동남쪽 수-수림속에 따, 따, 따-
-뿜이? 타-타-타?

-아닙니다! 따-따발총...
-닥쳐라-!

미국의 이름있는 소장은
가까스로 제정신을 차리었다
-네놈들이 환장을 했다, 환장을
인민군대는 저기 북쪽과 서쪽에 있다

놈은 자개바람이 인 손가락을
엠완(M-1)격발기처럼 빠딱 제끼며
시가 서북쪽을 가리켰다
-견지하라, 아니면 죽으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최후결전의 진두에 나설듯
 높은 비옷자락을 펼치며 밖으로 나가는데
 벼락맞은 등신들처럼 서있던 장교들은
 저희들의 로런한 지휘관이
 비옷밑에 끼입은 보통병사복을
 의심쩍은 표정으로 결눈질해보았다

허나 그것도 순간의 일
 휘영청 밝아오는 새벽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져내리는 줄포탄의 소나기에
 《사령부》의 지붕이 들보채 내려앉을 때
 구사일생 편을 따라나선 참모장교들은
 생에 대한 기발한 착상들을 드러내놓으며
 장갑차며 찌프에 매달렸다

하여
 10리길에 늘어선 패잔서열이
 북쪽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보기도문 《개선행진》을 시작했더라

-어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하드슨강반의 자유녀신이니시여
 거룩하디거룩한 합중국의 성조기여
 제발 우리들을
 이 저주로운 도시에 남겨두지 마시라

에서 우리는 단 하루밤의
 안식도 쾌락도 맛보지 못했거니
 잘있거라 《제2의 서울》이여
 마실 물조차 변변하지 못했던 가난한 거리여
 꼬물만한 미련도 없이 우리는 너를 버린다

이제는 팔라도 위스키도 귀찮아
 목숨이나마 붙어서 돌아감이 소원이건만

맙시사, 북조선군 전사들
 한조각 자비심도 베풀줄 몰라라

 흰자위만 남은 눈깔들을 해변뜰이며
 편이 행차가 대전-금산도로에 다달으니
 야닌게아니라 자비심이란 없었다
 총알마다 황천출입증을 단 일제사격이
 미련하고 렴치없는 도망군들을 맞았다 .

그리하여 또다시 회세의 《개선행진》은
 영동쪽으로 머리를 돌렸건만
 거기서도 돌과구를 얻으려는 헛된 발악은
 미국의 시라소니들을 무리죽음으로 떠밀었거니

오, 장쾌했도다!
 100년 피맺힌 원수들을
 가슴이 후련토록 쳐죽인 싸움이어
 불만했더라!
 다섯자 키작은 인민군전사의 날창끝에서
 룡척장승 알짜 미국인들이
 두세길씩 공중 뛰어오르는 그 춤판은

그 언제 보았더냐
 세계제패의 야망에 털가슴이 부풀은
 월가의 억만장자들이여
 병사복에 논바닥 개흙을 뒤집어쓴 편소장이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기어나올 때
 바로 그것이 세계 《최강》으로 공인되던
 미제의 물골이었음을 네놈들 보았더냐

그렇게 되리라
 그 언제 어디서
 우리와 겨루기를 원한데도
 네놈들의 행진은 패배자의 행진!
 처참한 종말만이 네놈들을 맞으리라

해빛은 남해끝까지

백두산 줄기 뻗어 남해끝까지
 금수강산 삼천리 우리 나라는
 민족의 태양 빛나는 나라
김일성 장군님 계시는 나라

.....

런런 뻗어내린 푸른 산발이
 락동강 물줄기를 조심스레 자래우며
 저멀리령 남 천리벌을 굽어보는곳
 비개인 하늘에 해는 빛나고
 포성은 동남으로 멀어지는데

리화령을 넘어선 야전승용차는
 노래높이 행군하는 대렬을 따라섰다

-동무들은 어디서 오오?
 -대전에서 옵니다!
 -오, 대전에서?!
 대전의 영웅들이구만!

반쯤 열렸던 승용차문이
 더 크게 열리는 순간
 -야, 최고사령관동지!

수령님을 알아본 중대장이
우뚱 뚫어서며 구령을 치려는데
그이께선 벌써
젊은 지휘관의 손을 움켜잡으셨다
-아니, 이게 누군가. 군관이 됐구만!

아, 몇해전
영광의 사격장에서
잠시 만나셨던 우등사수들
불구름 뭉게치는 전선길에서
첫눈에 알아보신 우리 수령님

붉은 꽃을 달아주시던 그 손으로
오늘은 불에 그슬은 위장망을 바로잡아주시며
-그래, 미국놈들과 맞서보니 어떻던가?
대견스레 물으시는 우리 수령님

중대장은 고개를 번쩍 들고
젊은 지휘관답게 힘차게 대답한다
-그놈들 코대만 높았지
정작 맞서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렇더라말이지!
호탕하게 웃으시는 어버이 수령님
-동무들도 그렇던가
동무네 중대장이 대포를 쏘는게 아닌가?
그이의 물으심에
전사들도 기운차게 대답올린다
-아닙니다
진짜 대포쟁이는 미국놈들입니다

-그렇지
그놈들이야말로 허풍쟁이라는걸
동무들이 온 세상에 보여주었지

못내 미더우시고 대견하시여
전사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대렬의 한끝에서 다른 끝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우리 수령님
대렬의 맨뒤에 수집은듯 서있는
키 작은 전사를 눈여겨보셨어라
-아, 어린 동무도 있었구만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자
대렬은 짙 길을 열었다
-그래, 동무는 어떻던가
미국놈들이 무섭지 않던가?

헌데 어찌된 일인가
우리 남진이
수령님의 물으심에 얼굴 붉힌채
아무말 못하고 머뭇거림은

(아니, 저 친구가?)
전사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중대장에게로 옮겨질 때에야
지휘관은 제 할바를 깨달았다

-최고사령관동지
이 동무는 입대한지 보름밖에 안되지만
놈들의 땅크를 타고앉아
륙크에서 기여나오는놈을
맨주먹으로 답새겼습니다

-맨주먹으로?
수류탄이 없었던가?
총이 없었던가?

-아닙니다.
미처
수류탄생각도
총생각도 못하고
그제야 분한듯 말을 더듬는 전사

-미처 생각 못했다?
잠시 흐려지었던 그이의 안색이
순간에 풀리며 물결치는 미소
-용소! 장하오!
영웅이 될 기백이요!
인민군대는 맨주먹으로도
미제국주의를 답새겼단말이요!

아, 흰 붕대가 감긴
그 손을 싸쥐신채
크나큰 신념에 넘치시여
마디마디 힘주시는 그 말씀이여

-동무들! 더 호되게 답새김시다
그놈들이 아주 뼈드러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종자가 영영 없어질때까지!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드팀없는 결심이요!

그러자 터졌다
-최고사령관동지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그러자 그 소리
높고 낮은 조국의 고지들과

령남 천리벌에 메아리쳤다
구름밖 멀리 남해 푸른 물결도
그 메아리를 받아외우며
끝없이 끝없이 설레이었다
아, 삼천리 통일된 삼천리에
수령님 모시고 조선아 빛나라

노래높이 부르며 진격의 길 이어가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바라보시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선
조국의 고지우에 서계시었다
아직도 먼길
더 큰 시련을 이겨내며 가야 할
그 길을 내다보시며... 헤아리시며...

맹세한다 조국이어

락동강 붉게 물든 혈전의 기슭에
우리의 중대장은 쓰러졌다
수령님 그어주신 화살표의 끝을 향해
그 또한 하나의 화살표마냥

감지 못한 눈에는 푸른 수평선
허나 그의 총 이미 내 손에 들렸거니
-수령님! 중대는 남해에 왔습니다!
그가 하려던 보고 누가 대신할것인가
더는 홀리지 말라 비분의 눈물

그가 바라던곳 가닿기전에는
우리 결코 조총을 울리지 않으려니

탄창에는 총알이
배낭에는 비상미가
그리고 심장에는
심장에는 뿜어쫓는 피가 있다!

영예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조국이어 그대 품에 전사들이 있다!

여름밤의 이야기

(한 지원군영웅에 대한 추억중에서)

김청남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여름에 있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강원도의 한 농촌마을에 살았는데 나는 열한살 소년이었다.

무더운 8월 어느날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빠져나와 목화밭너머에 있는 개울가에서 놀고있었다. 맑고 시원한 물속에 발을 잠그고 실버들 그늘 밑에 앉아있기란 여간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잔잔한 물속에서는 발가락을 간지럽히며 송사리떼가 헤엄쳐다니고 향기풍기는 풀밭에서는 이따금 메뚜기들이 툭툭 튀어날아와 내 등뒤로 기여올랐다. 나는 점심무렵이 지나 집에서 기다리고있을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날이 어둡기전에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어둡기전에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한테서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나는 그것이 싫었다. 아버지의 익숙하지 못한 리발기술에 기계까지 낡은것이어서 머리칼을 잡아뜯곤하였기때문이었다.

그때 일어덥호가 오בות게 모여사는 우리 마을에서 리발소가 있는 리소재지까지는 시오리길이 잘 되었고 읍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었다. 그래도 나는 거기로 가서 머리를 깎고싶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그곳으로 가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놈들의 폭격이 심한 거기로 장난꾸러기인 나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내 머리를 깎아주곤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꽤 우스운 일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 소년이었던 나는 그때 얼마나 야속하게 생각한지 모른다.

아버지는 한달에 두번씩 내 머리를 깎아주곤하였는데 나는 어찌나 빨리 머리칼이 기는지 막 속이 탈 지경이었다.

내가 그날 아침 일찍 집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온 것도 사실은 그때문이었다.

문득 내가 발을 잠그고있는 개울기슭으로 무엇인가 갑자기 풀숲을 헤치며 달려오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우리 집 복슬개였다. 나를 잘 따르는 복슬개는 하루종일 보지 못하던 반가움에 내걸로 쏘살같이 달려 이리저리 돌아치며 공공거렸다. 나 역시 퍼그나 반가와 털이 복실복실한 개의 잔등을 얼쓸어주었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 육먹을 시름에 마음은 하나도 즐거운줄 몰랐다.

내걸을 떠나지 못하고 꼬리를 흔들며 돌아치던

복슬개는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두귀를 쫓쫓이 세우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쾅쾅 짖어대기 시작하였다.

저편 아래쪽 개울로 보지 않던 마차 한대가 지나가고있었다. 마차는 마을로 들어가고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섯명의 지원군인들이 타고있었다.

순간 나는 마차를 타고 기분 좋게 읍으로 달려가 거뜬히 머리로 깎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며 실컷 놀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차는 벌써 한껏 푸르른 조밭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있었다. 개울가에는 차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복슬개는 내걸에서 조금하계 공공거리며 돌아쳤다.

개는 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독촉하는듯싶었다.

나는 개울가 실버들에 걸어놓았던 옷옷을 벗겨 들고 일어섰다.

목화밭머리의 우리 집에서는 가느다란 흰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키낮은 싸리울바자너머로 소여물을 썰며 일어섰다 앉았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나는 목화밭이며 조밭지경으로 신바람이 나서 달려갔다가는 다시 내걸에 달려오곤하는 복슬개를 앞세우고 실버들가지로 풀대들을 툭툭 치며 오솔길을 걸었다. 해가 떨어진 들길은 서늘해웠다.

벌써부터 맹렬히 울어대기 시작한 길가 풀숲의 귀뚜라미들은 불시에 푹 그쳤다가는 내가 지나온 등뒤에서 다시 고요한 들길을 쟁쟁 울리고있었다. 그리고 움푹움푹 패인 소밭자국에 등지를 튼 새들이 이따금 나의 발밑에서 푸드득 하늘로 날아오르곤하였다. 그러나 어느날에는 나도 알지 못할 생각에 잠기게도 하고 까닭모를 즐거움에 휩싸이게 하던 이 모든것들이 그날은 아무런 흥취도 돋구지 못하였다. 나는 줄곧 이제 집에 들어가 육을 먹어야 할 걱정을 하면서 걸었던것이다.

내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바라기 무성한 우리 집 프락에 들어서 맨먼저 만난것은 어머니이다.

《진수냐?... 에그, 어딜 가서 해종일 정신없이 장난이냐?... 배도 안고프던?》

어머니의 애정과 걱정이 뒤섞인 꾸중에는 심드렁했지만 불쑥 외양간에서 삼태기를 들고 나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의 마음은 막 죄어드는것만 같

았다.

(이제 곧 엄한 질책이 시작되겠구나!)

나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발로 땅을 툭툭 차며 말없이 서있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꾸중을 묵묵히 넘겨보기로 벌써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있었던 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때와는 판판 다르게 아무말 없이 내곁으로 다가오는것이였다. 어두운 저녁이어서 아버지의 얼굴표정이며 기분을 살필수 없지만 나는 무심결에 한열로 비켜섰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한채 내곁으로 다가와 썰어놓았던 여물을 삼태기에 그러모아 담아들고 다시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웬일인지 내 마음속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일까?…)

나는 그냥 부풀어오르는 불안을 안은채 아버지가 들어간 외양간쪽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문득 내 뒤쪽에서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뜨락이 서늘하니 예서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파니?... 얼굴이 막 까맣게 났구나!》

어머니는 뜨락에 퍼놓은 멍석우에다 밥상을 차려 주었다. 나는 밥상을 보는 순간 불시에 참을수 없는 배고픔을 느끼었다. 그러자 나는 순식간에 모든것을 잊고 밥상에 달려들었다. 웬일인지 희한하게 잘 차린 저녁밥상이였다. 금방 앓아낸듯 문문 김이 오르는 두부며 각가지 입맛 좋은 산나물을 정신없이 먹던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 모양이구나!-)

나는 얼른 밥상에서 머리를 들어 퇴마루를 올려다보았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옷방 퇴마루우에는 낫선 신발 한켠레가 나란히 놓여있었던것이다. (옳지, 그래서 아버지는 큰소리로 꾸중도 안하고...)

그러자 내 마음을 그렇게 조이던 시름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개울에서 놀던 유쾌하고 흥겨운 기분으로 돌아와 내곁에 쭈그리고앉은 북슬개를 한손으로 쓸어주며 순식간에 밥 한그릇을 말끔히 먹어치웠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아무 일도 없을테지!...)

그러나 나의 이러한 생각은 맞기도 하고 맞지않기도 한것이였다.

외양간에 여물을 주려 들어갔던 아버지가 어느새 마당 한쪽에 나와 모기불을 피우고있었는데 거기서 어머니에게 하는 나직한 말소리가 들려왔던것이였다.

《여보, 등불을 좀 내다주오.》

《왜 그러우?》

《오늘 저애 리발을 해주어야겠소.》

《래일 아침에 깎아주구려. 요즘 방학이니 노는

애인데...》

《.....》

아버지는 막 피여오르기 시작한 모기불을 후후 불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불시에 울상이 되고말았다. 나는 즉시 아버지께 자신이 말한것을 실행하리라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인민유격대에 참가하여 싸운 강직한 나의 아버지는 가정일에서도 말수는 적었지만 일단 한번 말한것은 어겨본적이 없었다.

내가 그날 저녁 얼마나 실망했던가!

지금은 철없던 그 소년시절을 저으기 유쾌하고 즐겁게 추억하지만 그때 나는 무엇인가 스스로 속히운것처럼 분하여 락심까지 하였었다.

나는 끝내 머리칼을 이따금 잡아뜯곤하는 리발기를 든 아버지앞에 앉게 되였다. 어스레한 등불이 타오르는 창고의 나무단우에 앉아 나는 아버지께 대한 야속함과 머리칼을 잡아뜯는 아픔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리발솜씨는 형편없이 서툴고 리발기도 류다르게 더 잡아뜯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것은 어느때같은 참을성이 없고 의지가 나약한 녀석이라고 엄하게 질책했을 아버지가 웬일인지 나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타이르는것이였다.

《진수야, 우리 집에 지원군영웅형님이 들어있다. 이제 크면 인민군대가 되겠다면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얼리느라고 하는 말인줄로 생각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켜기기도 하였다. 그것은 내가 개울가에서 놀 때 마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지원군형님들을 보았던 생각과 함께 퇴마루에 놓였던 낫선 신발이 눈앞에 얼핏 떠오른 그때문이었다.

《애, 어서 울음을 그쳐라. 부끄럽지도 않느냐?》

아버지는 다시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때였다. 우리 집 옷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누군가 내가 앉아있는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시에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그치고 얼른 눈물을 닦았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것한다.

《허, 용감한 꼬마가 리발을 하면서 울었구만.》

《?!...》

나는 그만 놀랐다. 아버지가 말하던 지원군영웅이 다가오려니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류창한 우리나라 말소리가 들렸던것이다. 나는 얼핏 머리를 들고 그 사람을 보았다. 그러자 나는 또다시 놀랐다. 그는 지원군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군대였다. 소박하고 착해보이는 얼굴은 어디선가 꼭 본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나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아버지가 말하던 지원군영웅이구나.)

나는 머리를 꺾으면서 소리를 내어 운것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놀라운 생각에 그를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그 시절에 우리 집에는 전선으로 나가거나 혹은 후방으로 가던 지원군인들이 자주 묵어가곤했었다. 하지만 나는 것처럼 우리 말을 잘하는 지원군은 그날 처음 보았던것이다.

그는 원래 사천성이 고향이지만 어릴 때부터 조선사람이 많이 사는 동북지방에서 별별 고생을 다하며 자라 우리 나라 말을 할줄 알게 되었다는것이였다.

물론 나는 그것을 후에 알았다.

《어디 내가 좀 꺾아볼까요?》

그는 정확한 우리 말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니, 원 별말씀을... 어서 들어가 폭 쉬시우다.》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만류하였으나 그는 종시 리발기를 넘겨받고야말았다. 그는 척척 리발기를 돌려보고 거기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리발을 하면서 울면 이다음 용감한 군대가 못된다.》

나는 어쩔지 그가 전혀 아프지 않게 머리를 꺾을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자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그의 리발솜씨는 아버지보다 좀 나은편이였다. 하지만 워낙 기계가 낡은것이어서 그런지 이따금 머리칼을 잡아뜯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나는 목을 움츠려뜨리기는 하였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지원군영웅에게서 머리를 꺾는다는 생각이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던것이다.

그렇지만 머리를 다 꺾고난후에 나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있었다.

뜨락으로 나오니 달이 떠오르고있었다. 나는 하늘로 날아오르는듯한 가벼운 기분으로 머리를 씻으려고 겨울로 내달렸다. 우리 집 복슬개가 영문도 모르고 쏜살같이 내뒤편을 따라왔다. 나는 푸르스름한 달빛에 은빛으로 번쩍이며 흐르는 개울가에 이르러서야 수건이며 비누를 잊고 온것을 깨달았다. 마당을 뛰어나올 때에 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던것도 생각났다. 아마도 비누와 수건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을것이다.

그런들 어떠랴. 그것을 잊고 온게 도대체 무슨 큰일인가!... 개울가에 쟁쟁 울리는 귀뚜라미소리며 앞산뒤산에서 울어대는 밤새들의 울음소리도 나에게 다 즐겁게만 들리였다.

나는 침방 개울물에 뛰어들어 몸을 잠그고 물장구를 치며 미역을 감았고 머리도 씻었다. 나를 따라

온 복슬개는 개울에 뛰어들가말가 바재며 기슭을 조금씩 오라가랴 뛰어나고있었다.

내가 휘익-휘파람으로 불렀으나 그래도 복슬개는 끝내 물속에 뛰어들지 못하였다.

얼마후에 나는 무슨 큰일이나 한것처럼 상쾌하고 거뜬한 기분으로 우리 집 뜨락에 들어섰다.

상긋한 모기쭈대가 풍기고 달빛이 그윽한 뜨락에서 내 머리를 깎아준 지원군영웅의 담담한 말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모기불가에 앉아 빠금빠금 담배를 피우고 어머니는 명석우에서 스투스투 망질을 하고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느라고 내가 들어서는것도 모르고있었다. 나는 이따금 기분이 썩 좋을때에만 담배를 피우곤하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있는것을 보는 순간 불쑥 개울에서 시간을 보낸것이 아쉽게 생각되었다.

그것은 나 없는 사이에 미국놈과 싸움을 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 지나가지 않았나싶었기때문이었다.

문득 지원군영웅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에게는 지금까지 잊을수 없는 한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겨울에 있던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때를 그려보는지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나는 슬며시 모기불가의 아버지곁으로 가서 앉았다. 복슬개도 나를 따라와 앞발로 턱을 고이고 엎드렸다.

《어느날 나는 료녕성에서 입대한 왕당무와 경찰 임무를 받고 적후로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지원군영웅의 말소리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나에게서는 얼마간 흥분한것처럼 들리였다.

...우리 경찰조의 임무는 아군부대와 대치하고있는 적군사단의 땅크들의 집결처와 그 대수를 알아내는것이다. 나와 왕당무는 아군포병대가 철도역부근에 있는 적군진지들을 때리는 순간을 리용하여 철도를 넘어 산으로 올랐다. 때마침 달밝은 밤이어서 역근처를 뛰어다니며 뭐라고 욕설을 퍼부어대는 적장교놈과 당황하여 갈팡질팡 정신을 못차리는 졸병놈들이 산우에서 뵈히 내려다보였다.

우리는 곧 산발을 타고 적땅크들이 집결해있을듯한 골짜기로 내려갔다. 오랜 시간 우리는 친구의 산골짜기들과 협곡을 훑아다녔다. 은밀하게 은폐된 적들의 땅크대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썩 오랜 후에야 우리는 적 땅크 스무대가 집결해있는 협곡을 찾아냈다. 묘하게 사발처럼 우묵 꺼져들어간곳이였다...

솔직히 말하건대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 그때 지원군영웅이 이야기한 그곳 지형을 나는 정확히 기억할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철원계선이 아닐가 추측된

다. 허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다. 아무곳인들 어떠랴.

...우리는 곧 철수하여야 했다. 정찰결과를 언제나 시간을 다룬다. 적들의 땅크가 언제 이동하려는지 알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될수록 직선길을 택하고 빨리 걸었다. 그러나 적후인만큼 은밀하게 행동하여야 했다. 어느한 야산을 내리던 우리는 환히 불이 켜져있는 외딴집이 불쑥 나타나는바람에 그자리에 신속히 엎드려 불의에 나타난 집주위를 긴장하여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제야 우리는 어느 작은 산간부락에 들어섰다는것을 알았다. 멀지 않은곳들에 드문드문 서있는 초가집들이 어슴푸레 보였던것이다.

우리는 불빛이 환히 내비치는 외딴집 피창으로 바짝 접근해갔다. 방안에는 적군장교 한놈이 자고 있었는데 옷목에는 너덧명의 졸병놈들이 세상모르고 코를 골고있었다. 지독하게 추운 겨울밤이어서 보초병놈도 어느곳에 틀어박혀 잠들었는지 주위는 고요했다.

왕동무는 나에게 놈들을 결단내고 가자고 손짓하면서 이제라도 당장 문을 열고 뛰어들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그를 제지시켰다. 한시라도 우리 부대와 지휘부에 정찰자료를 보고해야 할 우리로서는 불필요한 전투는 피해야 했던것이다. 정황은 그러하였지만 방안벽에 걸려있는 적장교놈의 가방을 감쪽같이 빼내여오겠다는 왕동무의 제기에는 나도 동의하고말았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불룩한 작전가방이 못건디게 유혹했던것이다.

우리는 집주위를 다시 살펴보고나서 프락우로 접근해갔다. 프락 한켠에 붙어있는 조짚단이 쌓인 작은 봉당쪽에서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왕동무는 최대한로 긴장하여 그쪽을 주시했다. 봉당에는 열살이 되나마나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인 듯한 녀인이 꼭 그러안고 자고있었는데 거기서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가 부스럭거리며 기어나왔다. 강아지는 추위에 입이 얼어붙은듯 짖지도 못하고 끽끽거리더니 다시 조짚단속으로 기어들어 갔다.

놈들은 집주인들을 밖으로 내쫓고 방안에는 제놈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놈들을 모조리 쏘아죽이고싶은 욕망이 불끈 거렸으나 지그시 입을 악물고 그것을 참으려니 이마에 진득진득한 땀이 솟았다. 나는 으스스리게 총을 틀어잡고 집주위를 살폈다.

그러는 사이에 몸이 날랜 왕동무는 소리없이 문은 열고 방으로 들어가 장교놈의 작전용가방을 벗겨들고 유유히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신속히 산간마을을 벗어나 부대를 향해 다시 걸어갔다.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불룩한 적작전가방까지 로획한 우리의 기분은 좋았다. 왕동무

는 적구라는것도 잊고 가벼히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랬지만 우리는 도중에 서로 한동안 말을 못하고 당황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적 작전문건이 아니면 무슨 기밀물건이 들어있으려니 생각하고 로획했던 가방에 뜻밖에도 돈이 한가득 들어있었던것이다. 실로 상상 못했던 정황이었다. 물론 그 돈은 강점지역 인민들의것을 약탈한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자리에 다시 걸어놓기로 했다. 이제 장교놈이 깨어나면 돈가방이 없어졌다고 집주인을 의심하면서 무섭게 행패질을 할것이고 보복으로 별별 악한짓을 다 감행할수 있었다.

우리는 곧 작별했다. 왕동무는 정찰자료를 가지고 부대로 떠났고 나는 온 길을 되돌아 산간마을을 향해 은밀히 접근해갔다...

문득 지원군영웅은 여기서 이야기를 끊었다.

그것은 나와 어머니가 일시에 환성을 질렀기때문이었다. 그러자 말없이 나와 어머니를 바라보던 지원군영웅도 곧 모든것을 깨닫고 와락 나를 끌어안았다.

《꼬마야!... 우린 끝내 만났구나!-》

그렇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처음 만난것은 겨울밤이었고 지금은 여름밤이다.

나는 어머니의 조용한 흐느낌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춥고 스산하던 겨울밤을 생각하였다. 한해전 어느날 겨울밤에 나와 어머니는 놈들에게 쫓기여 봉당의 조짚단속에서 덜덜 떨며 자고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인민유격대에 들어가고 집에는 나와 어머니뿐이었다.

날이 썰무렵에 나와 어머니는 느닷없이 옥설을 퍼부으며 고향을 질러대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추위에 얼어든 내 몸은 와들와들 떨리었다.

《내 돈가방을 어디다 감추었어! 내놓지 않으면 당장 너희들을 쏘아죽이고말겠다!》

장교놈은 권총을 빼들고 어머니를 구두발로 걷어차며 고향을 질러대는것이였다. 한동안 영문을 알수 없어 말을 못하고있던 나의 어머니는 장교놈에게 대들었다.

《이 악착한놈들아, 우린 모른다!...》

그러자 장교놈은 더욱 독이 올라 마구 차고 때리더니 철컥 권총을 쳐들었다. 나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그때 불시에 어둠속에서 땅!-총소리가 울렸다. 순간 나는 어머니를 겨누던 장교놈이 권총을 권채 철썉 언땅에 꺼꾸러지는것과 동시에 낮은 군대 한사람이 프락을 달려들어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련이어 방안에서 뛰어나오는놈들을 쏘아눅혔다.

그것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군복

을 입은 그 사람은 한켠에 놀라 우뚝 붙어서있는 우리들에게로 급히 달려오며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중국인민지원군입니다. 며칠후면 마을은 곧 해방됩니다!》

그는 어머니와 나의 손을 잡아 고무해주고 총총히 사립문밖으로 뛰어나갔다. 뒤이어 마을 여기저기서 소란스럽게 총성이 울렸다. 나는 그날밤 잠들지 못하고 봉당의 조짚단속에서 꼬박 밝혔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떠나간 그 지원군은 어떻게 됐는지?…며칠후에 마을에서 적들이 쫓겨갔다. 어머니와 나는 인민유격대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따라 다른 마을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춥고 스산한 그밤에 얼핏 만났던 지원군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곤하였다… 모기불이 타오르는 여름밤의 우리 집 뜨락에서 지원군영웅도 그 겨울밤을 그려보며 그윽한 추억에 잠겨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날밤에 어떻게 됐어요?… 마을에서 오래동안 총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내 머리를 쓸어주며 그후에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여기저기서 총을 쏘아대며 추격해오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리면서 나는 그 산간마을을 벗어났다. 그러나 문득 나는 주춤거렸다. 어지러히 날아오던 적탄이 나의 어깨를 불로 지지듯 못건디게 쏘시고 정신이 가물거리며 더 건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총알이 지나간 어깨의 아픔은 파도처럼 급격히 몰려왔다. 그보다 더 괴로운것은 강한 목마름이었다. 나는 못건디게 목이 타는것을 이겨보려고 눈을 한줌 쥐어 삼켰다.

그래도 갈증은 덜리지 않았다. 하늘과 땅이 맞붙어 빙빙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듯하더니 차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정신이 가물거리며 사라지는것을 희미하게 의식했다. 그리고 몸이 찻찻이 얼어드는것을 어렵듯이 느꼈다.

문득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지는 나의 의식속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으면 얼어죽는다!)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그러자 나는 의지의 힘을 모아 정신을 가다듬고 버쩍 눈을 떴다.

(일어서 걸어야 한다! 걸어야 한다!)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여보았으나 얼어붙은듯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서려고 거듭 몸을 움직여보았으나 도저히 뜻대로 되지 않았다.

뿌연게 흐린 하늘에서는 푸둑푸둑 눈이 떨어지고 날은 희뵈히 밝아오고있었다.

만약 이대로 있으면 정신을 잃고 얼어죽든가 아니면 날이 밝아 적들에게 발견되고말것이다. 물론 죽는것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

지만 나는 살아서 전우들이 기다리고있는 부대로 돌아가고싶었다. 나는 온몸의 힘을 모아 으윽-임을 악물고 비칭거리며 겨우 일어섰다.

그때였다. 가까이에서 푹-푹-나무껍는 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최대한 긴장한 나는 총을 틀어잡고 소리나는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잡관목이 듬성듬성 서있는 산중턱에 흰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얼핏얼핏 보였다. 자세히 보니 등이 구부정한 로인이 불 땔나무를 하고 있었다. 나는 힘겨웁게 그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그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한껏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할아버지-》

그 어떤 속삭임도 이보다는 더 낮을수 없을만큼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인은 몹시 놀라 들고있던 낫을 떨구었다. 아마도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놀라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나는 놀라 그자리에 굳어진 로인에게 나직이 말했다.

《할아버지, 놀래워서 안됐습니다. 저는 중국인민지원군입니다.》

로인은 말없이 그냥 서있었다.

나는 중국의 한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며 싸우는 조선인민을 도우러 나온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주었다.

《저의 고향에도 할아버지와 같이 늙으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제서야 로인은 마음이 놓이는 모양 내걸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이 추운 겨울에 여간한 수고들이 아니구만, 아니, 몸을 다친게나 아닌가? …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구, 우리 집은 예서 멀지 않다네.》

로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그의 집 문앞에 이르러 나는 그만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그때 만약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 바람이 세찬 산등성이에서 얼어죽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렵듯이 의식을 차린 나는 어디에 내가 있는것인지 인차 생각나지 않았다. 적땅크 집결처, 산간마을의 외딴집… 그다음에… 나는 차츰 정확하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문득 나는 가물거리며 타오르는 등불을 보았다. 그리고 뒤이어 흰히 밝아오는 피창박 어디선가 닭이 해를 치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나는 산등성에서 만났던 로인네 집 훈훈한 아래목의 두툼한 이불위에 누워있음을 의식했다. 로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나의 옷옷을 벗기어 상처를 싸매여주고 아래목에 눕혀준것이였다.

《이사람, 기어이 정신을 차렸구만.》

길다란 담배대를 물고 묵묵히 앉아있던 로인이 내걸로 다가와 뿔뿔 달아오른 이마우에 찬물에

적신 수건을 놓아주었다.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내 손을 따뜻이 잡아주며 말하는 로인의 목소리는 기쁨에 떨렸고 눈에는 물기가 스쳤다.

《그럴테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무심치 않는 법이지...》

로인은 축축히 젖은 눈을 들어 어딘가 띄창쪽을 바라보며 혼자말처럼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에게서는 로인이 무심히 한 그 말이 이상하게도 큰 감화력을 주었고 가슴을 뜨겁게 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손끝까지 주름이 조글조글한 로인의 손을 꼭 잡으며 인정깊은 그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원, 사람두... 별말을 다 하는군.》

로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언사과 세알을 사발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나는 로인이 권하는대로 군말없이 그 사과 세알을 다 먹었다. 단언하지만 나는 일생동안 아직 그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몸의 열이 내리고 차츰 어깨의 동통도 멎는 것을 느끼며 로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온 가족은 미국놈들에게 몽땅 생죽음을 당했네. 손자 하나만 살아서 지금 미국놈들과 싸우고 있지...》

로인은 말끝을 흐리며 후들거리는 손에 장죽을 들고 담배를 다쳐넣었다.

《할아버지, 손자는 백배천배로 무자비하게 복수하고있을겁니다.》

《물론이지. 록록치 않은 녀석이었으니까-》

로인은 깊숙이 두볼을 우무려뜨리며 장죽을 빨았다. 멀리 가까이에서 닭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날은 서서히 밝아왔다.

이틀이 지나서 나는 어질고 선량한 그 로인의 극진한 도움으로 몸을 회복하고 부대로 떠나게 되었다.

작별할 때 로인은 내 손에 무엇인가 자그마한 것을 쥐여주면서 말했다.

《몸성히 잘 싸우라구...》

로인이 나에게 준것은 칼집이 달린 조그마한 나무칼이었는데 묘하게 세공한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어리둥절하여 말을 못하고 로인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로인은 나에게 말했다.

《그건 복숭아나무로 만든 칼이네. 그걸 지니고있으면 화근도 막고 몸에 상처가 생겨도 쉬이 소생한다는 전설이 있지...》

《할아버지!-》

나는 불시에 몽클 가슴이 뜨거워 로인의 손을 꼭 잡았다. 로인의 그 정성과 지성, 따뜻한 사랑에 나는 목이 메여 말을 못하고말았다.

그후 나는 부대와 함께 전선을 따라 총총히 이동

해나갔기때문에 다시는 로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전선을 이동해다니면서도 항상 그 로인을 잊지 않았다. 로인의 온화한 목소리며 인정깊은 주름진 얼굴,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로인의 그 모습은 언제나 내 가슴 깊은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로인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깃든 그 귀중한 복숭아나무칼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다. 나는 조국에 돌아가면 고향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사연이 깃든 복숭아나무칼을 선물로 가져가리라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것이다.

별빛이 쏟아져내리는 우리 집 뜨락에는 아직도 모기불이 스러지지 않고 모락모락 피어오르고있다. 복슬개는 언제 잠들었는지 아무 기척이 없다. 어디선가 멀지 않은곳에서 점동새가 이산저산 옮겨가며 울고있다.

점동... 점동... 점동...

지원군영웅은 그윽한 추억에 잠겨 묵묵히 앉아있다. 이윽고 그는 말없이 안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에 싸두었던 자그마한 복숭아나무칼을 꺼내었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빼금빼금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도 유심히 그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그 복숭아나무칼을 손에 쥐고 오래동안 말없이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웬일인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서는 모든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할 아버지는 왜 나무로 만든 칼을 주었고 지원군영웅은 어째서 그 평범하고 범상한, 어찌보면 애들의 장난감같은 나무칼을 그토록 소중히 가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때문에 그렇게도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일까?...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지원군영웅은 우리 집을 떠나갔다. 우리 온 가족은 목화밭머리까지 나가 그를 배태었다. 그는 이삭이 핀 푸르른 조밭 둔덕너머로 손을 저으며 사라졌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총총히 흘러 32년이 지나갔다. 지금은 1983년이다.

생활에서 흔히 1년전에 있었던 일도 삭막하게 생각된다. 그러니 지금 나의 기억은 필경 많은것이 헛갈리고 뒤섞여졌으리라! 허나 추억이란 이상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내 눈앞에는 그 별 많던 여름밤의 우리 집 뜨락풍경이 생생히 떠오른다. 멍석우에서 망질을 하던 어머니, 모기불가에 앉아 빼금빼금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 잠든 복슬개, 그 상긋한 모기쭉 타는 냄새까지도.

그리고 열한살 소년시절에 본 자그마한 복숭아나무칼이 반디불처럼 파랗게 살아난다.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에 담긴 뜻과 사연을 뜨겁게 리해하기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지원군영웅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도 어디선가 그 별 많던 조선의 여름밤과 우리를 잊지 않고있으리라라는 것을...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중국) 위외

조선에서 보고 듣고 한 모든 사실들은 언제나 나를 벅찬 감격속에 잠기게 한다. 나의 사상과 감정이 지금 이 사실들앞에 너무나 억세게 뒤끓고있어 나는 이 모든것을 우리의 인민들에게 전하지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받는다. 이중에서 나는 무엇보다도먼저 나의 사상감정의 고귀한 체험을 전하고싶다. 이 체험이란 《누가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를 더욱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는것이다.

대체 누가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의 부대, 우리의 전사들인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것을 한두번만 느낀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병사들>에 대하여 말하지요? 그들은 보전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같은데요. 특별히 고명한 지식이나 또는 풍부하고 섬세한 생활감정을 그들이 소유하고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련다.

《당신은 우리 전사들과 깊은 접촉이 아주 적다보니 그들을 잘 알리 만무하지요. 당신은 아직 우리 전사들의 품성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상하며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 의하고 완강하며,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순박하고 겸손하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활달한가를 잘 모르고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가지 사실을 들겠다.

2차전역때였다. 지원군의 한 부대는 적의 후방에 돌진하여 군우리에서 적의 퇴각로를 차단하게 되었다. 우리 군대가 서당역에 당도하자 패주하던 적들도 한창 이 지대로 밀려드는 판이었다. 놈들은 자동차길로 빠져나갈 심산이었다. 지원군의 선두련대는 자동차길옆에 있는 나지막한 민둥산을 번개같이 점령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잇달아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악을 썼다. 그들은 32대의 비행기와 1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이 련대의 진지를 죽어라고 공격하여왔다. 산봉우리는 발각 뒤집혔다. 시뻘건 불길을 확확 내뿜는 휘발유탄에 온 진지는 불바다로 변했다. 그러나 우리 지원군용사들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이 산언덕에서 함성도 드높이 한사코 덮쳐드는 원수들을 진지앞에다 연해연방 끌어놓았다. 적의 시체는 곡식단처럼 너저분히 깔리었고 더러운 피는 온 산을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자기의 주력을 섬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산을 탈취하려고 결사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이 격전은 꼬박 8시간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우리의 용사들은 마지막 탄알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웠다. 벌떼처럼 밀려드는 적들은 산봉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용사들을 산기슭으로 내려밀려고 악을 썼다. 적기가 휘발유탄을 들붓는 바람에 우리 용사들의 옷에 불이 당겼다. 그렇지만 우리 용사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총을 내던지고 온몸이 확확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적에게 들이 덮쳤다. 제몸에서 타오르는 불로써 진지를 점령하려는 적을 태워죽였다. 이 영의 영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싸움이 끝난후 우리 진지에는 산산이 부서진 보총이며 기관총부속들이 온통 널려있었지요. 련사들의 시체는 여러가지 자살을 취하고있었습니다. 어떤 용사는 적의 허리통을 끌어안은채, 또 어떤 용사는 적의 숨통을 꼭 누른채 불타고있었습니다. 한 용사는 뇌수가 가득 묻은 수류탄을 거머쥐고 있었지요. 그걸을 보니 꼴이 목사발이 된 미국놈이 나가 빠드려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구 다른 한 용사는 놈들의 귀때기를 꼭 문채 쓰러져있었지요. 이 용사들의 시체를 안장할 때 그들이 적을 어찌나 꼭 부둥켜안고들 있었던지 좀처럼 손을 떼어낼수가 없어서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용사들은 놈들을 300여 명이나 끌어놓았지요. 그리고 이 련대가 아니었다면...우리 주력부대가 이렇게 적을 제때에 추격섬멸할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전선에서의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하나인 송고봉전투-서당역전투이다. 만일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적을 덮쳐죽이고 날창으로 원수들과 결사적인 전투를 하다가 장렬히 희생된 용사들의 이름을 반드시 새겨넣어야 할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왕금전, 령옥당, 왕문영, 웅관전, 왕금후, 조석결, 수금산, 리옥안. 정진대. 장귀생, 최옥량, 리수국이다. 이밖에 또 한 전

사가 있지만 그의 이름은 알길이 없다. 렬사들의 혁혁한 위훈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빛나리라!

당시의 정경을 이야기하는 영장은 비장한 감정에 목이 메어 말을 떠엽떠엽 엮어갔다. 그는 렬사들을 진지에 안장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때 눈물을 흘리었다. 그러나 영장은 인차 이렇게 침부하였다.

《내가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상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용사들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는 한없이 위대하고 더없이 사랑스러운 우리의 전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벗들이여! 이 영웅들의 사적을 들을 때 당신들의 감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전사들이 사랑스럽지 않은가? 당신들은 우리 조국에 이러한 영웅들이 있다는것을 자랑하고싶지 않은가?

우리의 전사들은 적에 대해서는 이같이 무자비하다. 그러나 조선인민에 대해서는 그처럼 뜨거운 사랑에 불타고있으며 숭고한 국제주의감정으로 충만되어있다.

한강북안에서 나는 한 청년전사를 만났다. 그전사의 나이는 금년에 21살이고 흑룡강성 청강현출신인 마옥상이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얼굴이 검붉고 키가 후리후리하였다. 그가 서있는 모습은 마치 가을의 전야에 붉게 무르익은 수수를 보는듯한 인상을 주어 여간만 순박하고 정답지 않았다. 방금 진지에 돌아온탓인지 좀 피로한 기색을 띠고있었으며 눈에 선 피발이 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원래 포병련대에 소속되어있었다. 어느날 밤 그는 때아닌 통곡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다. 뛰여가보니 한 조선할머니가 산등성이에 홀로 앉아 목놓아 울고있었다. 원래 이 할머니는 놈들의 폭격에 집을 잃어버리고 이 산골짜기에 움집을 짓고 살아왔었는데 그 움집마저 적기의 폭격에 무너지고말았다. 그는 돌아오는길로 련대지휘부에 달려가 보병련대에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보병련대에서 사람이 요구되던차이라 그의 신청은 비준되였다. 내가 《포병련대에 있어도 적을 무찌르는데야 매일반이 아닐가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닙니다. 갈을리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놈들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놈들을 통쾌하게 칠수 있고 또 복수도 마음껏 할수 있거든요!》

한강남안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날 그는 진지에서 마을로 밭지으러 내려왔다. 마을에 막 들어서자 적기 몇대가 습격해오더니 기총소사를 한

바탕 하고는 커다란 소이란 두개를 내리던졌다. 마을집에는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불기둥이 확확 치솟고 연기가 짙 들어차서 가까이 다가갈수가 없었다. 이때 그는 연기와 불길속에서 어린애의 자지러진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대뜸 시커먼 연기속을 꿰뚫고 불붙는 집으로 달려갔다. 앞마당에는 한 중년남자가 넘어져있었고 집안에서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앞문으로 달려갔다. 문장치가 모조리 타고있을뿐만아니라 앞문에서 불길이 흑흑 내쏘는바람에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었다. 어린애의 울음소리는 타래타래 사려져오르는 연기를 타고 애처로이 들려왔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이렇다구해서 뛰여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아니, 안된다!> 그대 내머리엔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조국에서 이런 경우에 부딪혔다면 나는 서슴없이 뛰여들었을것이다. 조선이라고 해서 다르게 뭔가? 조선인민이 우리 조국인민과 다르단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나는 문을 박차고 방안으로 뛰여들었지요. 현대 방안은 시커먼 연기천지구 어린애의 울음소리만 앙앙 들릴뿐 애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시다. 연기때문에 나는 눈을 뜰수도 없었고 얼굴도 마치 인두로 지지는것 같았습시다. 몸에 불이 달려지만 언제 그런걸 돌볼새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맨 처음 더듬어낸것은 어른이였습니다. 막 끌어당겼지만 움쭉이나 해야지요.

그래 그걸을 더듬어보니 어린애의 다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제격 어린애를 그리안고 문밖으로 막 뛰어나왔습시다. 참, 얼마나 귀여운 어린애였겠습니까? 어린애는 저고리를 입었는데 새빨간 다리를 가동거리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습시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울지말아. 울지말아. 엄마를 빨리 구해야지 누가 널 돌봐주겠니!> 이때 불길은 더욱더 사나와지구 가장집물마저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어린애를 땅바닥에 내려놓구 또다시 불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어린애어머니를 그리당겼지만 한마디 신음소리를 내고는 끝끝내 꼼짝도 못하더군요. 바싹 다가가서 들여다보니 얼굴에서는 선지피가 흘러내려 흰저고리를 시뻘겋게 물들였구 눈은 벌써 감겨져있었습니다. 아,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를 안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와 몸에 달린 불을 껐습시다. 그리고 부모 잃은 그 어린애를 품에 꼭 그리안았습니다.》

벗들이여! 이 영웅사적을 들을 때 당신의 감정은 또 어떠한가? 우리의 전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사랑

스러운 사람들인가?

누구나 다 알다싶이 조선의 싸움터는 간고하다.

그러나 우리의 전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

어느날 나는 한 전사가 방공호에서 미시가루를 한입 떠놓고는 눈을 한술씩 떠먹고있는것을 보았다.

《고생스럽지 않습니까?》하고 물으니 그는 눈을 한술가락 떠서 입에 넣으려다가 멈추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혁명전사들이 라구 해서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는 술가락을 내려놓고 흥분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왜 눈을 먹는지 알만하십니까? 우리 조국인민들로 하여금 눈을 먹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조국의 인민들이 넓고 환한 방에서 따뜻한 난로를 둘러싸고 차물을 마시며 먹고싶은것을 마음대로 먹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는 또 험착하고 누기찬 방공호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그리구 우리가 이 방공호에 들어앉아있는것 역시 마찬가지지요. 밝은 해빛을 뻥히 내다보면서도 쬌지 못하구 또 넓디넓은 신작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다닐수 없으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방공호속에 들어앉아있으면 조국의 인민들이 방공호신세를 지지 않구 대통로를 활개치며 다닐수 있단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싶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걷고싶은 사람은 걷고 또 산보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수 있을것입니다.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는것, 이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그렇기때문에...》하고 그는 또 눈을 입에 떠넣으며 종결을 짓듯이 말을 계속하였다.

《내가 여기서 피를 흘리는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지요. 하물며 이까짓 고생이 다 뭐니까. 문제도 안되는것입니다.》

《동무는 조국이 그림지 않습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조국이 그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림지 않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구해서 돌아가고싶지는 않습니다. 만일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인민들이<우리들이 맡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습니까?>하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일 <조선의 절반은 아직 해방되

지 못하였습니다.>하고 대답한다면 그게 어디 될말입니까?》

《동무들은 위험과 곤난을 수없이 겪었는데 조국과 조선에 요구할것이 없습니까?》

그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떼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요구되는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은 소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요만하게 단 한개 요구될뿐이지요.》 그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동전일만한 동그라미를 만들어보였다.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할가봐 한마디 더 보태는 것이였다.

《조선전선에 참가한 기념휘장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달고 조국으로 돌아가렵니다.》

벗들이여! 번거롭게 레를 자꾸 더 들어서는 무엇하랴. 당신들은 이미 든것으로도 우리의 전사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품성을 가졌으며 그들의 녀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알수 있으리라.

그들이야말로 력사상에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전사들이며 으뜸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위대한 인민의 우수한 꽃이며 우리의 자랑인 조국의 꽃이다! 우리는 우리 조국이 이와 같은 영웅들을 가진것을 땀땀이 자랑하며 이 영웅들과 한 나라에서 태어난것을 땀땀이 자랑한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당신들이 아침일찌기 첫전차로 공장에 나갈 때, 당신이 쟁기를 메고 밭으로 나갈 때, 당신이 콩물 한사발을 천천히 마시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갈 때, 또 당신이 사무실에서 하루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또는 당신이 어린이들에게 사과와 과자를 사먹일 때 그리고 또 안해와 함께 산보할 때 당신들은 지기가 행복하다가 느끼고 있는가? 당신은 깜짝 놀라며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선에서 돌아온 사람은 당신들이 행복속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인차 느끼게 될것이다. 당신들도 이 행복을 가슴깊이 느낄것을 바라마지않는다. 오직 이 행복을 느껴야만 비로소 우리의 전사들이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는 까닭을 더욱 깊이 알수 있다.

벗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수령님을 사랑할줄 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이와 함께 더욱 깊이 우리 전사들을 사랑해줄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바란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여야 될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역사를 반영한 독창적인 구성형식

김홍섭

주체적문제이론은 수령형상창조를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수령형상창조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주체의 혁명문학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으며 그 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열어놓았다.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주체적문제이론은 총서《불멸의 력사》의 창작과정에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귀중한 창작적경험을 축적하였다.

총서창작과정에 거둔 창작적성과의 하나는 위대한 역사를 반영하는데 맞는 독창적인 구성형식을 개척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작품의 구성은 내용의 조직이며 형상요소들의 배열이므로 그것은 내용의 요구에 어울리게 조직되어야 한다. 거대한 내용은 그에 맞는 거창한 구성형식을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인류문학사가 알고있는 그런 구성형식을 가지고서는 수천년 인류사에 아직 있어본적없는 위대한 역사를 소설작품에 원만히 담을수 없는것이다.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력사를 여러 장편소설에 재현할때 대한 역사적과제를 제시하면서 당중앙에서는 그 구성형식을 총서형식으로 할데 대한 독창적리론을 밝혀주었다.

위대한 역사를 폭넓게 반영하는 총서형식의 대장편소설권을 창작하는것은 참으로 인류문학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발견이며 불멸의 거대한 역사를 진실하고 폭넓게 예술적으로 재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적합한 구성방식이다.

총서형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장편소설들에 반영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담겨진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할수 있게 되었다.

원래 총서란 질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내용을 체계성있게 서술한 여러 저서들의 묶음을 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총서형식으로 장편소설들을 묶는것은 작품들의 사상적내용에서 공통성을 보장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반영할수 있는 구성형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으로 대장편소설권을 이루게 창작함으로써 대 장편소설은 총서의 한편으로서 호상 공통성이 있으면서도 매 작품의 종자나 소재, 주체사상적내용에 맞게 독창적인 구성형식을 끝없이 다양하게 탐구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총서형식으로 장편소설권을 형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시기별로 구획이 뚜렷하게 반영할수 있게 되었다.

사실 총서《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구성상 공통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독창적인 구성형식을 보여주고있다.

총서작품들의 구성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모든 구성수단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높이 모시는데 집중하고있는것이며 력사적사건에 기초해서 인간학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는것이다.

총서《불멸의 력사》의 구성상특성과 독창성은 무엇보다 모든 구성수단과 요소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높이 모시는데 돌리고 거기에 집중시키고있는데 있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형상적화폭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집중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모시는데 모든 구성수단을 동원시키고 집중시키는것은《불멸의 력사》의 인식교양적목적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총서작품의 중요한 인식교양적목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에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소설의 중심에 정중히 모심으로써만 소설을 통하여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고싶어하고 모시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해결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총서작품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모든 구성수단들을 집중하는것은 또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혁명투쟁의 본질적이며 합법칙적인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도 의의가 있는것이다.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발전하는 투쟁, 다시말하여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에 의하여 조직전개되는 투쟁이다. 따라서 수령형상창조에 모든 형상수단들을 집중하는것은 전반적인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총서《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을 총괄하여 보면 구성의 기본요소인 인물선과 감정선, 사건선과 갈등선이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부각에

돌려지고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돌리지 않는 구성요소란 찾아볼수 없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이 이러저러하게 다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구성의 기본인 인간관계조직에서 나타나고있다.

매 장편소설들에는 흔히 당대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수십명의 인물들이 나오고있으나 그들은 다 한사람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의 어느 한 측면을 부각하는데 바쳐지고있다. 다시말하여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적인 형상의 뒤편은 자체의 성격형상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부각하는데 있다.

여기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의 인간관계조직에서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충성의 화신들이 오중훈, 리성립, 최장호, 손녀 등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어떻게 위대한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셨는가를 보여주는 인물형상들이다.

오중훈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전형적성격의 소유자이며 주체형의 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다. 그러나 그의 형상과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오중훈의 형상의 의의는 또한 사령관동지의 전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의리, 끝없는 인간성과 배려고매한 인품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은 사실 작품에서 오중훈과의 관계속에서 더욱 심오하게 그려지고있으며 그것은 그가 전사한후에도 계속 깊이있게 묘사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각성하고 혁명의 길에 나서는 최인관의 형상도 인테리의 혁명화과정을 보여주는데만 그 형상적기능이 있는것이 아니다.

최인관의 형상과제는 중요하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믿음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확증하는데 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데 있다.

칠성 어머니의 형상과제도 인민들이 장군님을 어떻게 받들고 모시는가를 보여주면서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는데 있는것이다.

군국주의가 뼈속까지 차있는 악종 마에다놈의 형상을 읽으면서조차 우리는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마에다의 선도 작품의 주선을 더욱 생동하게 부각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마에다는 일제의 대대적인 《도벌공세》의 참패를 보여주면서 놈들의 패망상을 확증하는 인물이며 자기의 멸망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

주는 인물이다.

작품은 일제의 침략성과 포악성을 여지없이 폭로함과 동시에 장군님의 전략전술의 현명성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준엄한 전구》의 모든 인물형상들의 중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모든 성격형상들은 장군님의 형상을 더욱 생동하게 부각하는데 복무하고있다.

인물선뿐아니라 감정선의 조직에서도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발현되는 사상감정선을 기본으로 감정을 축적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갈등선의 조직에서도 당시의 기본모순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적대적갈등을 설정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에 의한 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매개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가적품모와 고매한 인간애가운데서 주로 어느 한 측면을 뚜렷이 살리는 방향에서 형상을 집중하고있다.

《준엄한 전구》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상을 모시면서 중요하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술, 큰 담력과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 위대한 사랑을 부각하고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모든 구성수단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부각하는데 돌리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보여주고있는 독창적인 구성형식의 다른 하나는 그 모두가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장편소설의 중요한 사건줄거리로 하고있는데 있다.

총서작품은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작품구성의 중심에 놓고 구성을 조직하고있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령형상작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에 관한 주체적문제이론을 지침으로 하여 총서작품들은 력사적사건에 기초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다.

총서작품들에 반드시 력사적사건을 반영하여야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 할 작품의 사명으로부터 제시되는 사상미학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는 그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 거대한 력사적사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묘사하지 않고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진실하게 폭넓게 반영할수 없는것이다.

총서《불멸의 력사》의 중요한 특성은 그의 력사 문헌적성격에 있다. 총서작품들은 소설작품이면서 동시에 력사문헌으로서의 의의도 가지고있는것이다.

총서작품의 력사적문헌적성격은 필수적으로 해당시기의 의의있는 력사적사건을 반영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재현하지 않는다면 력사문헌적성격을 가질수 없는것이다.

총서작품들에 력사적사건을 그리게 되는것은 반영하게 되는 력사적사건자체의 거대한 의의와도 관련되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에는 당대뿐아니라 오늘에 와서도 현실적의의가 큰 정치군사적문제들과 사회적문제들이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총서작품이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진실하게 보다 깊이있게 재현하기만 한다면 작품의 사상에술성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는것이다.

총서작품들은 흔히 이야기줄거리발전의 계기들을 주로 작품에 반영되는 혁명발전의 각이한 력사적단계들에 립각하여 그 매 단계들에 실재하였던 력사적사건들을 따라가며 설정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흔히 환경전개는 당대를 폭넓게 보여주는것으로 되고있으며 사건발생은 해당 혁명단계에서 시초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으로, 절정은 그 단계에서 정치군사적의의가 가장 큰 력사적사건으로 설정하고있다.

특히 절정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혁명로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 고대한 덕성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력사적사건으로 설정하고 그를 심도있게 분석묘사함으로써 혁명소설로서의 풍격을 높이고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있으며 위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재현하고있다.

장편소설《백두산 기슭》은 남호두회의 직후부터 그해 5월까지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운동에서 전반적으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불려일으키기 위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기슭으로 진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있다.

소설은 1936년 3월에 미혼진에서 있었던 조선인

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와 전투들, 마안산에서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신 돈 20원을 헐벗고 굶주리는 아동단원들을 위하여 내놓으신 력사적사실과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리시는 력사적사변을 로정을 따라가면서 반영하고있다.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간고한 행군길에서 몸소 조국광복회창립을 구상하시고 그 10대강령을 준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6년 5월 력사적인 동강회의를 여시고 조국광복회창립을 선언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사르시는데서 이야기줄거리의 절정을 이룬 소설은 여기서 거대한 여운을 남기면서 결속된다.

《백두산기슭》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호두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화폭이며 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에 대한 예술적화폭이며 조국광복회를 창립하던 시기의 력사적사실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조국광복회가 어떻게 창립되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생활화폭이다.

총서작품들이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는데서 주목되는것은 해당시기의 중요한 력사적사건들을 빠뜨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작품에 해당시기의 중요한 력사적사건들을 다 반영하고있기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재현할수 있었으며 그 력사적사건들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 현명한 령도와 고대한 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력사적사건들을 빠뜨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총서작품들의 력사문헌적성격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사건줄거리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총서작품들은 사건선이 굵고 크며 폭이 넓다.

작품마다 중심에는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는 시대적사변들이 놓여있으며 그를 둘러싸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생활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에 대한 묘사들도 참신하고 생동하며 시대를 거대한 폭으로 일반화하고있는 전형적인것들이다.

총서작품들은 거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분석묘사하는것으로 하여 사건줄거리가 방대하고 폭이 넓다.

사실 총서작품들은 다 장편소설들이긴 하지만 반영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의 혁명력사를 묘사대상으로 하는 장편소설들의 중요한 특징이 시간적으로 보아 적어도 한시대를 반영하는것이 보통이었으며 그런 작품들에서는 대부분 몇년 혹은 몇십년의 생활이 폭넓게 반영되어왔다. 그러나 류레없이 위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할것을 목적으로

로 하는 총서작품들서는 그렇게 오랜 시기를 포괄하여서는 한 작품속에서 혁명투쟁의 다양하고 풍부한 화폭들을 충분히 다 그려낼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총서작품들은 반영하는 기간은 짧으나 폭을 넓히고 깊이 묘사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1932년》은 1932년 6월부터 12월까지, 《백두산기슭》은 1936년 3월부터 5월까지,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1월부터 100여일간, 《준엄한 전구》는 1939년 9월부터 1940년 3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총서작품들은 조선혁명의 주류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일어난 거대한 역사적사건들을 기본흐름으로 하면서 주체위업수행의 합법칙적로정을 심오하게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장편소설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작품내용의 주선으로 끌고가면서도 주선에 복종되는 다양한 부선들을 통해 해당시대를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도적흐름과 함께 전반적인 시대적조류를 광범한 범위에서 그려내고있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1930년 여름부터 1931년 초봄까지의 시기를 반영하면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5.30폭동과 8.1폭동의 후과를 가시고 조선혁명을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주선으로 끌고가고있다.

그러면서도 교루한 봉건념새를 피우는 박찬우의 선, 민족주의자 립계선의 선, 리상촌건설의 제창자이며 고려공산당출신인 변태익의 선, 《소작혁명》을 한다고 떠돌아다니는 하연성의 선, 두만강지구 책임자 오석하의 선, 변절한 신재림과 행세식마스주의자들의 선, 후쿠다를 비롯한 적들의 선 등을 통하여 시대를 거대한 폭으로 전면적으로 그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이끄시는 혁명의 주류와 함께 당대를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장편소설은 비록 반영하는 기간은 길지 않으나 그 시기가 얼마나 거대한 역사적사변들로 가득차있으며 의의깊었는가를 심오하게 전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총서작품들은 의의깊은 역사적사건을 사건줄거리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건성과 그의 논리성이 강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는 길에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역사적사건들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담겨진 위대한 역사적사건들을 그의 인과관계와 합법칙적 발전로정대로 작품에 반영한다면 사건줄거리의 내

적련관성과 발전의 타당성이 일관한 논리로 관통될수 있는것이다.

이런데로부터 총서작품들의 사건줄거리는 논리성이 강하고 진실하며 전형적이고 그 발전의 필연성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어있다.

이것은 총서작품의 역사적논리성뿐아니라 생활론리의 타당성도 담보될수 있게 하였으며 갈등의 명백성과 구성의 립체성도 보장되게 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은 높은 형상수준으로 하여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창작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는 대작들이다.

총서작품들의 높은 형상성은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주고있는 구성조직의 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총서작품들의 구성은 종전의 사건중심의 구성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주고있는 인간중심의 구성론에 기초하여 조직되고있다.

총서작품들이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구성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킨데 있다.

거대한 역사적사건을 이야기줄거리의 기초에 놓아가면서 거기에 사랑과 충성의 감정선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짜고 있는데 구성이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된 중요한 묘술이 있다.

총서작품들은 역사적사건을 따라가면서도 사건 자체에 매달리지 않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떻게 인민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기울이시고 인민들이 어떻게 충성의 사상감정을 수놓아왔는가를 사건과 밀접히 결합시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다.

《준엄한 전구》의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은 대부대선회작전의 역사적로정에 스며있는 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뜨거운 감정, 사색과 심뇌를 기본으로 묘사한 이 장편의 감정조직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중훈은 대부대선회작전의 개막을 세상에 알리는 룡과송전투에서 전사했으나 주체적인 감정리론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여 감정조직을 줄기차게 한 결과 대부대선회작전의 종막을 알리는 흥기하전투까지도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살아있으며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있다.

오중훈이가 남겨놓은 수첩이나 제강, 통솔임이나 찰살, 기관총 등의 기물들을 보는 사령관동지와 대원들의 사상감정을 진하게 묘사하고 생활의 갈피마다에 스며있는 오중훈에 대한 감정을 찾아 축적과 폭발을 섬세하게 조직하고있다.

최인관의 선을 보아도 그가 어떤 역사적사건에 주동적으로 참가하는것은 없다. 그는 거대한 역사적사건의 관찰자, 체험자의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그의 형상은 내면심리세계의 축적과 발전과정의 묘사로 주로 이루어지고있다.

참으로 《준엄한 전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역사적으로정에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사랑과 충성의 서사시적화폭이다.

《백두산기슭》의 리경준부부선, 장기령의 선이 그토록 생동한것은 감정선을 잘 살려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사건줄거리로 하면서도 그것을 감정선과 일치시키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는 총서작품들은 바로 그로 하여 단순한 력사기록이나 력사문헌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력사를 생동하게 엮은 품위 높은 예술작품으로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과정에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성가운데서 구성조직에서 거둔 창작적성과는 참으로 귀중하다.

그것은 문학사에 특기될만큼 가치있는것이며 앞으로 혁명소설 특히 장편소설창작의 튼튼한 밑천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총서작품을 계속 창작하여야 하고 재현대상이 위대한 력사이며 독자들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총서작품창작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총서작품구성조직에서 이룩한 공고한 성과를 발전시키며 류형과 반복을 극복하고 종자와 내용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구성형식을 끊임없이 탐구하여야 할것이다.

가을밤에 느낀바 있어

리득원

나의 굴 나의 칼을 무엇에 쓰랴
머리 다 희도록 설자리 없거니

농사짓재도 물려 받은 땅 없고
몸을 의탁하긴 남의 집 세방일세

가을이라 가슴아픈 생각 많은데
밤이면 풀벌레 울고 또 우는구나

허전한 창문아래 쌓이는 시름에
달도 지고 새벽 은하 다 기우네

고향을 지나며

김효일

길가던 나그네 옛일 그리며
날 저무는 성돌에 기대섰노라

짜을 잃은 새는 숲으로 돌아가고
가을 산뿔을 떠처럼 감도는 시내

올해는 몇집이나 벼방아를 찧는지
내가엔 고기잡이 해불만 환하구나
추억에 잠기며 정든 흙을 안으니
집없는 설움이 자꾸만 복받치네

102자루의 총을 메고

송천구

내가 왔다고
원한의 밤나무골 화약창고안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내가 왔다고
군복자락을 부여잡고 놓을줄 모르느냐

런꽃봉
102어린이 무덤가
피터지게 저머오는
나의 마음속에
앞다투어 달려와
매달리는 아이들아!

벌써 서른몇해
세월은 흘러
나는 이렇게 자랐는데
어엿한 초병이 되어
총을 메고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아이들 그대로이란말이나

불러보자
푸른 잎 움트는 따뜻한 봄동산에
들꽃을 꺾으며
범나비 쫓으며
엎어지며 덩굴며 해 저무는줄 모르던
나의 어릴적 동무들아!

내 정녕
한순간인들 잊을수 있었으랴
해를 향해 무럭무럭 자라오르는
그 어린 싹들이 두려워
천진란만한 우리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미제원수놈들...

온몸을 휘감는
사나운 불길속에서
총탄이 우박치는 그속에서

그 작은 손과 손을 모아
창문밖으로 나를
떠밀어주더니

꽃망우리처럼 부풀어오르던
그 넓은 희망과 꿈을 앞에 두고
차마 그대로는 죽을수 없어
철천지 원수 미제
이세상에 남겨놓고서는
진정 눈을 감을수 없어
원한의 불이 되어
살아있는 아이들아!

내가 왔다고
이 땅의 복수자가 왔다고
군복자락을 놓지 못하느냐
천백배로 원수를 갚아달라
복수의 탄창을 재워주며
한자루 또 한자루...
이 어깨우에
서리발 총창을 덧없어주느냐

아, 더는
이 자리에 서있을수 없구나
멸적의 탄창
102자루의 시퍼런 총창을
내 어깨에 메워주며
초소길로 떠밀어주는
나의 어린 복수자들아

믿어다오
그 어느때든
조국이 명령만 내린다면
내 방아쇠를 당기는
그 총구에서
102줄기
분노의 총탄이 터져나가리라는것을!

사랑의 불빛 외1편

권래여

별무리 물우에 내려앉아
단꿈꾸는 밤
고요히 흐르는 어촌의 불빛
내 마음의 정다운 등불이어

날바다 헤쳐가는 먼 배길
만선기 날리며 돌아오리라
기다려 잠 못드는 포구의 미소
사랑의 눈배여

파도를 헤쳐가는
원해선단 어장의 밤에도
그물추는 이 아들의 가슴에
꿈속처럼 비쳐오는 저 불빛

어촌마을의 한점 불빛을 두시고도
어로공 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수령님
머나먼 배길 포구로 들어서는 밤이면
불켜진 제집 창문이 제일 기쁘다고
불밝은 아빠트를 세워주신
아버이 그 사랑을 속삭여주는가

아 이 아들을 안아주는 어머니 품이런듯

마을도 집도 바다를 향하여
창문도 마음도 바다를 향하여
언제나 웃음짓는 저 불빛
이 아들의 가슴속에
행복한 삶의 미소를 안겨주신
사랑의 불빛이어

바다의 등대는 안개속에 가리워도
이 아들을 기다려
꺼질줄 모르는 저 불빛 안고
풍어의 향로우를 가고오나니

기다리는 그 물이기에
떠나는 배길에 노래가 있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기에
돌아오는 배길에 만선기 날리는
보람찬 새생활의 광명이여

이 밤도
바다의 아들을 기다려
감돌지 않는 포구마을의 불빛
아 어머니조국의 다정한 미소여

그물을 낚네

해당화 송이송이
머리마다 따서 꽂고
서호라 포구의 아낙네들
그물을 낚네 그물을 뜨네

긴 장대 열기설기
고기그물 펼쳐걸고
갈피갈피 누벼가는
그 모습이 그림인가

큰 그물 작은 그물
그물폭이 풀려나면
고기만 샌다더냐 마음도 샌단다
오리오리 읊매여라

철따라 오는 고기

그물이 팔릴가
물목마다 뭉친 고기
그물폭이 모자랄가

망망한 바다우에 고기배 띄워놓고
그물마다 그 마음 수놓아갈제
고기두는 남정네야 알기나 할가

한두기망 당기여도
배전이 넘치게 하는 그 그물에
열두번 손이 가고 마음이 간줄
바다와 백년가약 인연을 맺고
바다에 시집온지 삼년열두달
비바람 피해가며 일을 했더냐
날씨 몰라 모래불에 그물을 널었더냐

사시절 그들이 없는 백사장에서
 말없이 근로의 열매를 키워가는
 그 마음에 받들리어
 천리어장에 만선기 날리나니
 한뼘두뼘 깎는 그물
 정성담아 뜨는 그물
 원해선단 남정네들 일욕심을 채워주며
 어깨걸고 퍼올리는 바다의 재부여

몸은 비록 물에 있어도
 바다에 사는 마음
 명사천리에 그물을 펼친 그 모습
 먼바다 님의 수고 말없이 받쳐주며
 문발속에 숨어 웃는 정다운 얼굴인가
 서호라 내 고향의 꽃다운 모습이어

씨앗을 뿌려간다

김정철

먼 산엔 아지랑이 피고
 발밑에선 논벌을 적시는 보드랑소리
 화창한 봄빛 안고
 3대혁명소조원
 나는 씨앗을 뿌려간다

꽃바람아 불어라
 푸른 하늘 기울어진 저 들꽃엔
 내 떠나온 공장이 있다
 기대를 다루던 이 손으로
 나는 씨앗을 뿌려간다

이른새벽
 첫 이랑 타고 가며 뿌리고
 달뜨는 밤
 씨레도 함께 쳐가며 뿌리고

씨앗은 대지에만 뿌려진다더나
 발머리에 포전길에
 찾아가는 집집에 뿌려져
 주체의 농법대로 농사짓는
 그 일숨씨 자래워가노라

분조의 살림밖에 보지 못하는
 그 좁은 가슴의 울타리도 열려져
 농장살림 나라살림 먼저 보는
 밝은 눈 환히 띄워가노라

내 뿌려가는 새 씨앗은
 대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는 쉽게 자라진 않으리
 빈포기 하나를 두고
 때로는 내 비판 준절해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진정앞에
 마음의 문들이 열리리라

기계화작업반
 새 도면 마주한 불빛아래서
 손뿔금 울리는 논머리에서
 봄 가을 계절없이 뿌려가며
 들도 사람들도
 세 폭의 붉은기로 물들여가리

내 뿌려가는 이 씨앗엔
 공장구내와
 하나로 이어지는 벌이 있고
 이 세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노을 비낀 언덕우에
 농장원들을 세워보는
 그 기쁨이 있어라

아 수령님 높이 모시고
 영원히 당을 따르는 그 마음을 가꾸어
 씨앗을 뿌린다
 3대혁명의 씨앗을
 가슴마다에 뿌려간다

시를 탐구하고 운률을 살리는것은 시창작의 본성적요구

-최근의 일부 서정시들을 읽고

현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생활은 빨리 전진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더욱 아름답고 힘있는 예술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같이 오늘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사상미학적수준이 더욱 발전 풍부화되면서 보다 아름답고 힘있는 시작품을 요구하고있다.

힘있고 아름다운 시란 시대가 안겨주는 새로운 정서세계를 탐구하여 그것을 사람들의 호응에 거슬리지 않게 운률적으로 표현한 시작품을 의미한다.

1

시의 탐구란 작가가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함으로써 남달리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느낀 철학적이고 감동적인 정서세계를 개척하고 확충하고 승화시킨것을 의미한다.

시는 아무리 절박한 시대적과제를 토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나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체험할수 있는 사상정서세계를 노래한 것이라면 시로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시의 견인력은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하는 정서의 깊이와 여운에 있으며 인민들의 시대적감정을 새롭게 개방하고 넓혀주고 승화시켜주는 탐구와 발견에 있다.

시의 서정에서도 그 정서적알맹이가 새로운 발견과 확충, 심화로 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예술이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오!

하늘의 성좌들이 내려 네 마루에 명멸하는가
누리를 밝히며 활활

온 하늘에 타오르는 글발이어

(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이라》 김정곤 《조선문학》 1982년 9호)

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지붕우에 밤이면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명멸하는 장식등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발에서 새로운 시세계를 발견한 작품이다.

시의 탐구는 탁상우에서 추상적인 《명문구》나 《명문장》을 지어내는 과정으로는 될수 없다.

시인은 오늘의 그 장식등을 보면서 지난날 집없

는 어린이가 장대재의 교회당 추녀밑에 잠자리를 정하고있었을 무정한 세월을 그려보았다.

그때 교회당의 종탑에서 흥물스럽게 울린 종소리는 마치도 《천당》에로 빨리 가자고 재촉한 소리로만 생각되였다.

그러나 오늘의 장대재는 밤이 오면 오히려 더욱 변화한곳으로 된다. 명멸하는 장식등은 과거를 저주하는듯 《세상에 부럼없어라》라고 더욱 번쩍거리면서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은 네 창문에
노래가 되어 터져울리고
지금은 네 층계에
기쁨이 되어 물결치고
지금은 마음속에 눈빛속에
어리며 깃들며 안기며
지금은 공기를 마시듯
그처럼 레사로와진 이 말을
.....

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뛰어난 걸작품은 아니나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것은 그 정서세계에 새롭고 진실하며 여운있는 사색의 세계가 깃들여있기때문이다.

창작에서 새로운것이란 항상 희귀한것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일상적으로 흔히 보고 지나가는것 가운데에도 거기에 새로운 시대적의의를 부여하여 제기하면 얼마든지 새로운것이 될수 있다.

시의 탐구도 리치는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소재는 결코 희귀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형상속에는 독자들의 감정을 후덥게 해주는 새로운 시적정서세계의 탐구가 있다.

서정시 《사람의 지평선》(권태여 《조선문학》 1982년 5~6호)은 간석지개간사업에 청춘의 심장을 안고 펼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시대적사상감정을 노래하였다.

금산포 포구마을의 총각이 섬치너를 사랑하였다.
어로반장인 그 총각은 가끔 바다에 나가 만나게 되는 처녀더러 물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처녀는 풍년든 미역밭은 어찌하고 물으로 오겠는가 하면서 돌아가군하였다.

그러나 뉘가 알았으랴! 수평선이 지평선이 되고
땅이 바다로 뻗어나갈줄이야!

섬과 섬을 합치고
 섬과 물을 합치며
 사랑의 지평선을 펼쳐준
 당의 해빛이 하도 고마와
 환희로 뿜던 감격의 그날
 처녀와 총각은 큰 잔치 차렸다네

잔치를 한 총각이 행복에 겨워 처녀더러 《보라구, 제발로 나한테 오고야만걸》 하고 빈정거리자 처녀는 《아이참, 내가 시집을 왔나요. 물이 섬으로 왔지.》 하고 싸주었다.

동화문학에 오랜 세월 갈라졌던 형제바위가 간석지개간으로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이 섬에게로 《장가든》 이야기도 만일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이 그를 옛말처럼 자기 시에 담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담시로 될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의 미학정서세계에는 서정시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같은 혁명교양, 계급교양 주제의 보다 무게있는 양상을 띠는 작품이 필요한가 하면 서정시 《사랑의 지평선》과 같은 사회주의건설주제의 보다 밝고 량만적인 양상을 띠는 작품도 필요하다.

시인이 시대정서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한다는것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낄수 있는 감정세계를 열정만 더 높여 토로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창작세계이다. 전자는 새로운 질적달성이라면 후자는 단순한 량적달성에 불과하다.

시인은 누구나 짐작하고 느낄수 있는 감정세계를 심화확충시킨것도 없이 토로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시대적정서를 새로 탐구하고 심화시키는 사상가, 철학자, 심리학자로 되어야 한다.

시는 한번 읽고난 다음에도 다시 읽고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며 그 정서세계에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 두고두고 음미하면서 사색할수 있게 하는 그런 여운이 있어야 한다.

서정시 《새해에 드리는 축원의 마음》(차영도 《조선문학》 1983년 1호)은 새로운 감격속에 맞는 1983년 새해 첫날 아침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들의 만수축원의 인사를 개선문에 내리는 눈송이에 대한 감회를 통하여 독창적으로 노래한 좋은 작품이다.

온 겨레의 념원을 담아 수도의 한복판에 승엄하게 건립된 개선문에 내리는 첫 설날 아침의 눈은 그대로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들의 축복의 꽃송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 만수무강 축원의 인사
 삼가 드리는 새해의 이 아침
 아, 력사의 개선문지붕우에
 눈이 내립니다. 꽃눈이 내립니다.

시인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맞으신 그 많고많은 백두의 눈보라에 대한 느낌이 있었기에 개선문에 내리는 올해의 첫 눈송이는 여느때의 흰 눈송이로 생각되지 않았으며 축원의 눈꽃보라, 눈아닌 꽃송이로 느껴졌다.

여기에는 시를 형상적으로 쓸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시창작리론이 훌륭히 구현되어있다.

서정시 《만수대언덕우에서》(전초민 《조선문학》 1983년 1호)는 만수대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순간 시인이 받아안은 승엄한 정서를 개성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우주의 한복판에 오르시여
 억만 유성들을 지휘하시는듯
 승엄하신 영상
 이 땅우에 아침해를 받들어올리시고
 락원의 봄을 불러오신
 아, 위대하신 그 손길

그 손길 하늘 한끝을 짚으셨는가
 그 손길 가리키는곳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신비 한눈에 안겨오는듯

그 손길 따라서면
 천만산악이 두렵지 않고
 그아래 머리숙이고 서있으면
 맺혔던 모든 생각 단숨에 풀리는듯

시인은 우리 수령님 높이 서계시는 만수대를 조선의 언덕이라 자랑높이 부르면서 거기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주의 한복판에 서시여 억만 위성들을 지휘하시는 천지태양계의 령장으로 우러르며 그러기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르면 사람들은 그 어떤 신비도 천만산악도 뛰어넘게 된다고 노래하였다.

시인은 이 세상 대위성계의 상상봉인 만수대언덕우에서 받아안은 사람들의 승엄한 정신은 무엇보다 백전백승하는 인간애의 기치, 주체의 기치라는것을 새롭고 품위있는 시형상속에 감명깊게 시화하였다.

서정시 《조선아!》(김철 《조선문학》 1983년 1호)는 바로 시인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장검을 빼어드시고 수없이 넘나드신 그 조종의 상상봉에 올라 빛나는 해와 별을 가장 가까이 이고선 무상의 행복을 감회깊이 토로한 작품이다.

세상에 너보다 큰 땅은 있어도
 그 신념 너처럼 크고
 그 전도 너처럼 양양한
 영원한 아침의 나라 어디 또 있으랴

시인은 백두의 산밭을 새로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 노래불러온 자신의 모든 시작품들은 한낱 입속말에 불과한것 같이 느껴졌으며 우주공간 대자연계의 최고 절정에 오른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조선의 참다운 면모를 더 없는 민족적환희속에 느끼게 되었다.

터치라 노래여
백두의 명동소리처럼
저 광막한 공간에 가득히 차서
위대한 주체의 나라
위대한 항도성의 시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자

조국의 성산 백두산 상상봉에 오르니 미처 느낄 수 없었던 조선의 크기, 조선의 영광과 미래를 새롭게 한가슴 받아안게 되었다는것은 시인의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이며 그로하여 송가풍의 서정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적정서를 안겨준다.

서정시 《나의 신념》(오영재 《로동신문》 1983년 2월 16일부)은 구체적인 시적소재나 세부를 토대로 하여 창작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작품의 허두부터 사람들을 진실한 서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시형상을 창조하였다.

조용히 귀기울며
내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듣는다
깨끗한 아침이슬을 밟고
태양을 향해가듯
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소리

그 누가 꽃피워준 나의 삶이나
그 누가 지녀준 이념이나
시각마다 환희로이 높뛰는 가슴으로
볼러보는 은혜로운 그 이름
영원히 안겨살 당의 품이어
(1~2절)

시인은 영광스러운 당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오늘의 은혜로운 자기의 삶과 녀에 대하여 깨끗한 아침이슬을 밟으면서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소리 인듯 느낀다.

죽어서도 변치 않을 마음의 기둥, 인간신념에 대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시작품의 허두는 그 표현이 자기 정서에 알맞게 사색적이며 새롭다.

혁명가의 신념이란 결코 베꿀어준 은혜의 대가로만 지니게 되는 도덕윤리적관념만도 안기고 자기한생을 욕됨이 없이 지켜가기 위한 정신적지력만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가가 스스로 택하게 되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사상적지조이며 의리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죽음앞에 자신을 내대는 혁명

전사의 심장이기도 하며 그 목숨이기도 하다.

시인은 우리 인민들이 엄혹하고 준엄한 시각에도 오로지 영광스러운 당을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쳐 싸울것을 다짐하는 그 신념이 얼마나 뜨거운것이며 그런 신념을 지녔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환희와 용맹이 생기게 되는가를 깊은 철학적사색과 절절한 서정속에 노래하였다.

서정시작품이 사람들에게 주는 사상미학적의의는 이상과 같이 시의 새로운 탐구와 발견에서 온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새것의 탐구나 발견만으로서는 아직 의의있는 시를 낳지 못하며 새로 탐구된 정서가 바로 우에서 본 작품들과 같이 얼마나 시대적의의를 가지는가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2

시창작에서 새로운 정서의 탐구와 발견은 그의 운률적표현과 불가분리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그것은 운률이 정서적내용에 기초한것이기도 하고 정서적내용에 반작용하는것이기도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농촌은 가는곳마다 문화주력이 준비하게 늘어섰고 높고낮은 언덕은 그 어디에나 열매가 주렁진 과일나무로 덮여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찌 시적감흥이 안생기고 흥겨운 음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의 운률은 무엇보다 현실속에서 생긴 시적감흥에 기초하며 그 내용의 시다운 특성을 전제로 한다. 시의 내용이 시로 되지 않는 한 그 형식이 시적으로 다시말하여 운률적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운률이 시창작의 전과정을 통하여 항상 서정에 종속되지만 하거나 수동적인것이기만 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당에서 밝혀준 운률과 정서의 호상관계에 대한 주체적시창작리론에는 정서적내용과 운률적표현의 불가분리적통일에 대한 심오한 원리가 밝혀져있다. 그 명제속에는 운률이 시적정서의 존재방식이며 표현방식이라는 사상이 밝혀져있으며 운률이 살아야 정서도 살며 반대로 운률이 살자면 무엇보다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변증법적호상관계가 명시되어있다.

시의 운률은 시문학이 본성적으로 가지고있는 음악적성격의 표현이다. 시와 노래가 한뿌리에서 나와 《시가》로 불려온것도 이때문이다.

당에서는 옛날부터 훌륭한 시는 인민들의 사랑속에서 그대로 노래로 되어 불려워졌다고 가르치였다.

시의 운율은 시가 본성적으로 가지고있는 이런 음악적성격을 살리려는데로부터 나온 고유한 특성이다. 시작품은 소리없이 읽는 대상의 문학이 아니며 랑송을 목적으로 한 문학이다. 이것은 시기로 불려온 과거의 시작품의 경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자유시인 경우에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 자유시의 랑송적성격을 홀시하는것은 시에서 이른바 《지성의 미》, 《시각적미》만을 인정하는 부르조아주의주의시론이다.

주지주의자들은 시의 음악성을 소홀히 하고 그를 《목독》대상으로 보면서 소설과 시가의 고유한 본성적차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자유시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시는 제아무리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하더라도 음악적속성을 띠고 랑송되어야 하며 운율로 하여 더 사색적이고 철학적인것이 되게 해야 한다. 가요는 선율만으로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사상감정을 얼마든지 표현한다.

음악은 사람들의 사상감정상태를 직접 표현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철학적이다. 그러므로 주지주의자들과 같이 시가 지성을 추구하게 되는 때 그문장도 음악적으로가 아니라 산문식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고 하는것은 전혀 무근거하고 비과학적이며 자의적인 견해이다.

최근 서정시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작품들은 그운율에서도 좋은 창작적경험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매우 필연적인 현상이다.

금산포 금산포는
서해의 한끝-
금모래 은모래 뜨거운 바다가에서
포구마을 총각은 섬처녀를 만났네
(1련)

이 시련에는 《금산포 금산포는/ 서해의 한끝//》과 같이 두개의 음절군으로 된 한 호기의 시문장이 두 부분으로 반절대응하면서 일정한 음조를 형성시킨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그 음조가 기본음조로 되어 시 전반에 주도적으로 흐르고있다. 레컨데 《금모래 은모래/뜨거운 바다가에서//》, 《포구마을 총각은/섬처녀를 만났네//》도 모두 그런 운율조직이며 《처녀의 귀여운 대답/하늘도 반기는가//》 《아득히 바라보며/기쁨에 겨웠네//》도 그런 기본음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른 시행들도 될수록 허두에서 형성된 이 기본음조에 어울리게 읽히울것을 요구한다. 다만 자유시는 이 기본음조를 전반에 걸쳐 하나의 격식과 같이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그 특성이 있을따름이다.

그러나 그 뉘 알았으랴
바다를 밀어내며
물이 섬으로 뻗어가고
무쇠기둥이 걸음 옮기며

아득한 창파우에 콘베아를 돌릴줄이야

이것은 그 내용의 보다 격동적인 성격으로 하여 기본음조와는 다른 보다 박력있는 음조를 보여준 부분이다. 이것은 자유시에서는 시전반의 운율에 기본음조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해가는 격식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 한 작품내부에서의 음조의 변화는 기본음조에 거슬리게 작용하거나 대립되지 말아야 하며 그의 변조된 운율표현자체도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자유시도 운문인 이상 이런 규범에서조차 자유롭다면 그것은 시의 본성을 저버리는것으로 될것이다.

우에 레증된 서정시에서 운율이 잘 살게 된 요인 가운데는 운율조성의 보조적수법들이 적극 리용된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있다.

《금산포 금산포》 《금모래 은모래》 《그 언제수평선을 지평선으로 만들어 보았더냐 그 언제 땅이 바다로 흐르게 했더냐》 《섬과 섬을 합치고 섬과 물을 합치며》 《꽃피는 지평선 사랑의 지평선》

여기에는 자음반복, 시어반복 시행머리반복, 시행꼬리반복, 병렬적반복 교차적반복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복법이 적극 리용되고있다. 이런 표현들은 결코 시인의 목적의식적인 운율적탐구와 떼여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운율의 기초는 비슷한 현상이 비슷한 시간적간격을 두고 반복되는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반복법이 없는 운율적인 시를 생각한다는것은 힘든 일이다. 력사에 전해지는 이름있는 시가작품을 돌이켜보면 거의 예외없이 그것은 반복법이 잘 쓰이고있는 시들이다.

시인들은 각종 반복법이 운율을 살려 시를 암송하기에도 쉽게 하며 말은 적으나 사상정서는 더욱 풍부하게 하고 깊이있게 하는 미묘한 작용을 수행한다는것을 깊이 리해해야 한다. 운율조성에서 반복법은 시문장의 까다로운 문제도 평이하고 정서적인것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시에 《지성》만을 절대화하고 그를 《목독》의 대상으로 간주한 주지주의 시에 반복법이 거의 없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리해하여야 한다. 그런 시는 읽기가 매우 힘들고 외우기는 더욱 어렵다.

우에 레증한 시에는 다양한 반복법과 뒤바꿈법 뿐아니라 수사학적수법들이 운율을 살리는데 효과있게 리용되고있다. 시는 《만났네》 《갔네》 《아졌네》 《다네》 《말했네》 《겨웠네》 등 수사학적감탄과 《있으랴》 《줄이야》 《왔더냐》 등 수사학적감탄 및 물음을 정서가 가지는 랑만적양상을 살릴수 있는 경쾌한 운율을 조성하고있다.

우에 레증된 서정시작품들의 허두시련의 사상 예술적성과는 시작품의 내용이 서정으로 충만되어있고 그런 서정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발현될 때

그 운물도 자연히 좋아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우에서 이야기된 시들은 제외없이 그 허두가 특별히 운물적이다.

눈이
내립니다 개선문 지붕우에
흰눈이 내립니다
(《새해에 드리는 축원의 노래》)

여기서 빛을 뿌리어라
위대한 태양이
여기서 흘러내리어라
사랑의 해빛이
우리 수령님 높이 서계시는
만수대-조선의 언덕이어
(《만수대언덕우에서》)

푸른 산발은 산발들을 거느리고
누른 등판은 등판들을 불러
《아-!》 소리를 치면
삼천리강산이 한달음에 안겨오는
여기는 백두산 조선의 상상봉
(《조선아!》)

시작품의 허두시련들이 일반적으로 운물적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들이 자기가 노래할 대상에 대하여 뜨겁게 받아안거나 느낀 서정을 무엇보다 작품의 허두에서 터치거나 절절하게 표현하게 되기때문이다. 그것은 조용하게 노래된다고 해도 서정의 바탕은 팽배한것이며 절절한것이다.

그러므로 운물이 살아있는 때 시작품의 허두시련들에는 아래 시련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뚜렷하고 고르로운 음조가 형성되어있으며 시어표현에서도 보다 많은 반복법, 뒤바꿈법, 수사학적수법들이 쓰이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시문학이 모두 이런 허두시련들만큼 폭과 깊이를 가진 서정과 풍부하고 세련된 운물을 구비한다면 시창작에서의 산문화영향은 극복될것이다.

이상의 좋은 운물창조경험들은 자유시의 경우에도 우리 민족시가에는 운물적기초의 유일성이 작용하며 그 운물적기초의 다양한 발현형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 운물적표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운물적기초에서의 민족적특성은 한시행 또는 두시행에 걸쳐 형성되는 두부분 음절군의 성음상 발전적인 대응이다. 조선사람은 문장흐름에서 이런 성음상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거슬리게 감수하는 운물적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습은 그 누가 주관적으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서정시작품들에 아직도 문장을 토막으로 끊어 절로 나누었으니 이처럼 보이지 연결해놓으면

산문이 되고마는 경향이 가서지지 않은다면 그것은 문제시되어야 한다.

시라고는 하지만 문장을 연결해놓으면 보통글이 되고마는 이런 시는 사실상 들을 맛이 없다. 시형상에서 이런 서술문장은 금물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운물적문장은 서정적내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귀결이기는 하나 생겨난 운물적문장은 그 내용의 서정성을 돋구는데 크게 반작용한다. 그것은 시어의 의미론적역할이 없이 문장에 흐르는 음조, 운물자체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능히 일정한 정서를 받아안게 된다는 사실이 더 잘 말해준다.

사람들은 두박자나 세박자의 박자소리 자체만으로도 서로 다른 정서를 느낀다.

이로부터 시의 운물은 그자체가 거슬리지 않고 류창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그 선률색같은 내용의 정서적성격을 살려줄수 있는 양상을 띠게 해야 한다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요구가 제기된다.

서정시 《사랑의 지평선》의 허두시련에는 그 서정의 낭만적성격에 알맞는 명랑하고 경쾌한 운물이 주어지고있다. 이것은 그 운물이 단순한 류창성뿐 아니라 내용과 통일된 음조미를 조성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서정시 《새해에 드리는 축원의 마음》에는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인민이 삼가 드리는 만수축원의 경건한 정서에 어울리는 정중하고도 송가적인 양장의 운물이 형성됨으로써 그 서정적내용과 운물적형식의 통일을 잘 보장하고있다.

서정의 성격에 따라 운물의 양상을 살리고 운물의 양상에 의하여 그 서정의 성격을 더 살려주는 시창작적요구는 우리 시창작가들에게 매우 높은 과제를 제기한다.

사실 우리의 시작품들은 자기 시의 서정적내용의 성격에 맞게 시의 운물적양상을 살리도록 시행을 가르고 시어를 고르는 동시에 시운물적기초와 보조적운물수법들을 탐구하는데서 새로운 질적높이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문학사에서 명작품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 남아있는 시들은 모두가 제외없이 자기 내용에 알맞는 음조를 가지고있어 그것이 사람들의 표상에 오래도록 외워지고 기억되고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유한 운물적양상을 못가진 시는 그 생명력이 그만큼 짧아진다. 이것은 운문시가의 특수성이다. 우리 시창작가들은 반드시 이창작적과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시는 지성적으로뿐아니라 호흡상으로도 쉽게 읽히우고 외워지고 기억속에 남도록 자기의 운물색깔, 운물투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시의 창작과제는 완수되었다고 말할수 없다.

소설에서도 그 내용에 어울리고 작가의 개성이 보이는 문제적특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시에 그 시

에만 고유한 운률투가 있어야 하는것은 너무도 엉당한 일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서정시문학은 그 주제나 시어의 의미적내용이 다름뿐 운률은 유사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결국 비슷한 시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자유시의 역사에는 사람들이 시문구에 앞서 그의 운률적인 음조만 기억함으로써 해당 시작품의 정서세계를 어느 정도 되살리게 되는 작품의 실례가 적지 않다. 이것은 시의 운률투, 음조가 가지는 특별한 의의를 강조해준다.

티없이 깨끗하게 당을 받들며
고이 간직하리 신념이여
베풀어준 은혜의 대가로만
내 지닌것 아니여라
더우기 한생을 욕됨이 없이
조용히 자기를 지켜가기 위해서만은

서정시 《나의 신념》의 운률은 영광스러운 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영생하는 삶을 이어가려는 사상적내용에 알맞는 정제되고 각근한 음조미를 풍겨주는 작품이며 작가의 시문체론적특성을 시의 정서적특성에 잘 어울리게 순응시킨 작품이다.

시의 이와 같은 운률적성과를 결코 범상한 일로 간파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시작품가운데는 정서적표현을 많이 쓰면서 시의 사상을 너무 로출시키는 결함, 노래를 직선적으로 씌으로써 형상을 저하시키는 부족점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시의 이와 같은 결함은 시의 산문화의 기본원인으로 된다.

시적표현이 직선적인 설명을 피하자면 그 언어표현이 형상적인 표현수법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수법인 각종 비유법을 적극 쓰지 아니 할수없다.

일반적으로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의 언어표현수법은 비유법을 쓰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창작에서 형상적비유를 현실의 본질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잘못 쓰는것을 반대하는 동시에 결코 비유일반을 간파하는 경량을 경계하여야 한다. 시창작에 적절한 비유법이 쓰이지 않고는 직선적인 표현적결함과 서술문장을 극복할수 없으며 시가 길어지는 현상을 막아낼수 없다.

최근 적지 않은 가사문학에서 보여주는 귀중한 창작적경험의 하나는 세련되고 적중한 비유법을 잘 씌움으로서 작품의 형상을 간명하고도 정서적으로 심오하게 그리고 운률적으로 강조한것이다. 가사문학에서 그렇다면 서정시문학에서야 그것이 더 잘 켜여야 하리라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시문장의 운률은 그 언어표현이 한마디의 말로 열백을 헤아리게 하는 함축성을 지닌것으로 되었을

때 깊고 넓은 서정의 여운을 안겨준다. 언어표현의 이와 같은 함축성은 바로 형상적비유를 기초로 하고있다.

우리의 시작품들에 반복법이나 뒤바꿈법 또는 각종 수사학적 수단, 수법들이 많지 못할뿐아니라 형상비유도 많지 못하여 시문장을 보통문장, 서술문장이 되게 하고 여운있는 함축성도 구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안될것이다.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감정을 노래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는 그에 대한 시를 쓰지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인들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시를 깊이있고 눈물이나게 형상적으로 써야 한다,

당에서는 시형상을 직선적으로 하지 말며 시에서 정치적표현을 로출시키지 말데 대해서와 시문장을 서술문장과 같이 길게 산문화하지 말며 시창작에서 유사성을 범하지 말데 대하여 언제나 간곡하게 가르치고있다.

우리의 시인들이 당의 이 방침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시대의 가수, 당의 문예전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당에서는 형상수법은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시작품에서 사상적내용은 개별적시어의 직선적표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형상에서 깊이있게 나타나야 하며 그럴 때만이 그것이 참다운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창작에서는 시의 형상전체보다 개별적시어에만 더 큰 주의를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시인들이 시대정신에 대한 심오하고도 참신한 체험을 토대로 깊이있는 서정세계를 탐구하여 그를 능숙하고 정확한 형상적비유를 통하여 풍부한 운률적시문장속에 노래하기 위해서는 시의 형상성에 대한 리해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와야한다.

이와 같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든 시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시창작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그를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시창작리론에는 시형상의 특성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작시법의 제반요소들과 운률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해명이 주어져있다.

혁신은 항상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법이다.

우리는 시창작에서 온갖 낡은 보수주의적, 형식주의적 잔재를 과감하게 극복하고 최근 우리 서정시문학에서 나타난 좋은 창작적경험들을 계속 더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시작품이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더 훌륭한 길동무로 되게 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출근길

김명익

내가 사는 룡흥거리는 공장지구의 한끝과 잇닿아 있었다. 나지막한 산기슭의 무성한 가로수들과 공원의 울창한 숲들로 하여 다층주택들은 마치 별장들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었다.

늦은봄의 새날의 밝아왔다. 간밤에 내린 비로 하여 나무들은 한결 신록이 짙었고 거리는 밝고 생신하였다. 이맘때면 우리 룡흥거리는 출근전 한때의 정적이 깃들곤한다. 문여닫는 소리도 가끔 들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드물다. 잠을 깬 새들은 조용히 지저귀고 산골이를 예도는 렬차의 경적소리만이 아득히 먼곳에서 은은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몇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집에서나 먼저 문소리가 나고 층계를 내리는 발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다투어 문들이 활짝 열리는것이였다.

나는 서두르며 가방을 챙겨들고 안해와 더불어 거리에 나선다. 출근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간다. 나는 이들과 함께 출근길을 걸어가는 것을 몹시 즐겨했다. 한 지붕아래 사는 우리 다층주택의 이웃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새소식을 주고받는 유쾌한 시간이였다. 그들은 모두 일터와 초소가 달랐으니 그만큼 새소식도 많았다. 영웅용해공아바이의 출강시간 단축에 대한 기쁜 소식도 혁신으로 이름난 식료가공연구사처녀의 새살림 꾸린 소식도 여기에서 듣게 되는 되는것이다.

나는 또 이 출근길에서 청춘의 기백이 넘쳐흐르는 불그스레한 얼굴에 언제나 초조한 빛을 담은 한 청년을 늘 만나곤 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제대군인인 그는 기계공장에서 대형선반을 돌리는데 차동무라고 불렀다. 그는 언제나 제일 먼저 출근길에 오르곤하였으나 출창 뛰다싶이 걸어갔다.

나는 그가 모름지기 어느 학교운동장에서 제포래 청년들과 축구경기라도 한창 할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다. 왜 하면 그는 늘 그물망에 넣은 축구공을 앞세우고 출근했던것이다.

그런데 나는 뜻밖의 일에 놀랐다. 어느날이였다. 출근길을 한절반 지났을 때이다. 한무리 청년들이 길가의 공지에 축구공을 깔고앉아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있는 차동무를 둘러싸고있었던것이다. 축구에 대한 새 작전을 연구할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치던 나는 들려오는 말소리에 자연 걸음을 멈췄다.

《아니야. 우린 계속 이 상태를 지연시킬수 없어. 자 한번 더 시험을 냅다 미는게 어때? 간석지건설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 기계인가...》

《차영수 또 큰소리, 연구가 그리 간단한줄 아니...》

《야, 우리 힘으로 안되면 이번엔 연구소에 가서 토론에 붙여 보잔말이야. 마침 잘 됐다. 저 연구사 선생이...》

열변을 토하면서도 어느결에 기웃이 머리를 들이밀고 보는 나를 보고 차동무는 반색했다.

그들은 선반기에 새로운 지구를 창안도입하여 대형부속품을 가공할 방법을 찾고있었다. 그때 그 공장에서는 간석지건설에 시급히 요구되는 새로운 대상설비생산을 맡고있었는데 대형부속품생산에 애를 먹다나니 생산실적이 제자리에서 뱅뱅돈다는것이였다.

이리하여 나도 이 《축구단》에 말려들었던것이였다.

얼마후 환성을 지른 청년들은 우르르 공장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며칠후 그들의 혁신적성과를 축하하는 방송이 우리 룡흥거리를 들었다놓았고 매일 출근길에서는 이 새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되였었다.

그후부터 나는 우리와 함께 한 출근길을 가고있는 사람들을 무심히 보지 않았으며 즐겁게 생기에 넘치고 사색에 잠겨 드바빠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뜨거운것을 느끼곤하였다.

그러나 내가 룡흥거리를 지나 유쾌한 출근길에 오르던 이 모든 이야기는 죄다 지난일로 되버렸다. 나의 출근길은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그것은 서해안의 룡매도에 새로 건설되는 대간석지공사장으로 나는 연구기지를 옮겼던것이다. 룡흥거리에서 자주 만나곤하던 기계공장청년인 차동무를 여기서 다시 만난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도 간석지 30만정보개간으로 부르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용약 탄원하여 나왔으며 청년돌격대장으로 일하있었다.

우리는 룡흥거리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자주 출근길을 함께 걷곤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출근길은 도시에서처럼 새들이 조용히 우쭐고 빠스들이 오고가는 포장도로가 아니였다. 아니 그보다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출근길조차 없었다. 문을 열고 나서면 갈숲이 우거지고 파도가 넘실거렸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은 그 갈숲에 천막대신에 숙소를 지었고 지방을 쌓아나갔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출근길은 바다 한가운데로 뻗어나갔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멀지 않은 그 길에 노래를 부르고 기발을 날리며 걸어갔다.

출근길이 생겨지며 나와 차동무는 종종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없는것이 우리에게는 아쉬웠다.

《이제 이 제방이 저 바다 건너 룡매도와 잇닿게 되면 우리는 아마 지루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거요.》

나는 출근길의 이야기가 중단되는 때면 이런 말로 끝내곤하였다.

그러면 차동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렇게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출근길은 다시 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테니까요.》

《아, 그렇게 되겠구만!》

우리는 서로 유쾌히 웃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새 출근길은... 그러나 우리의 새 출근길은 수월히 이어지는것이 아니었다. 자연과의 투쟁이었으며 바다와의 투쟁이었다. 때로는 하루밤사이에 며칠을 싸놓은 제방뚝이 파도에 쓸려버리기도 하였다. 그때 우리에게는 장석을 입힐 채석원천이 없었다. 그래서 세멘관블로크로 제방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마저 70 리도 더 먼곳에서 자동차로 운반해와야 했다. 관블로크 운반은 쌓아지는 제방삭도에 따라서 지 못하였으며 힘겹게 쌓아놓은 제방은 자주 파도에 류실되었다. 제방은 차츰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돌격대장 차동무를 비롯한 청년들은 제방속도가 늦잡아지는것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방도는 나지 않았다. 골재원천이 해변가 가까이 있다면 모든것은 다 해결될것이었다. 누구도 운반수단을 늘이는 방법외에 판도리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우에서 설비와 자재를 대주지만을 앉아서 기다리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이 곤난앞에서 굴할줄 모르고 언제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며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 기술과 재능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차동무를 둘러싼 청년돌격대원들은 우등불앞에 모여앉았다. 자력갱생, 간고분투! 이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내세운 전투적구호이다. 어찌 난관앞에 주저앉고서야 혁명의 계승자라고 말할수있는가. 그들은 주먹을 흔들며 맹세를 다지였다.

가까운 해변가에서 골재원천을 찾아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감탕을 헤치고 산기슭을 돌아가며 파보았다. 낮에는 작업량을 넘쳐 완성하고 밤에는 어둠속에서 탐구로 지새웠다. 끝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으로 쌓아져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를 그들은 1930년대 김혁,

차광수의 모범을 통하여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당화뒀불이 우거진 도래곶에서 골재원천을 마침내 찾아내었다. 강도도 좋고 원천도 만족했다. 파도앞에 잠시 멈춰섰던 제방은 다시 앞으로 뻗어나갔다. 룡매도를 향하여!

검푸른 바다는 우리앞에 품을 열어주었다.

제2호제방의 마감막이를 하는 그날 나는 차동무와 나란히 파도가 출렁이는 제방길을 걸어갔다. 그것은 이곳 제방에서의 마지막 출근길이였다.

《참 얼마나 좋은가요. 청춘의 땀과 로력으로 조국의 바다우에 출근길을 쌓아가는 우리 간석지건설자의 보람은 비길데 없지요.》

청년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기서는 갈매기가 유유히 날고있었다.

《그렇소. 이제 머지 않은 래일에는 농업근로자들이 기계화군단을 앞세우고 우리가 처음으로 걸어온 이 출근길에 오르게 될거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우리가 살던 룡흥거리와 잇닿인 아름답고 아늑한 새 거리가 꾸려질거요.》

나의 가슴도 하냥 부풀어올랐다.

그날 청년돌격대원들은 마감막이공사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바다의 마지막폭을 막는 이 작업은 치열한 전투장을 방불케 했다. 제방을 단숨에 삼킬듯이 밀려드는 물결, 파도, 순간순간에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어려운 작업이였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몸으로 가슴으로 파도를 막으며 제방을 이어나갔다. 마침내 바다는 길이든 맹수마냥 제방기슭에서 공손히 찰랑거리고 만세의 환호성은 바다 멀리로 울려 퍼졌다.

돌격대장 차동무는 나를 데리고 룡매도에 올라서쪽기슭으로 갔다. 해빛으로 하여 망망한 바다는 수은판처럼 번들거렸다. 그 한끝에 안개속에 잠긴 물이 아득히 보이였다.

《우리의 출근길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방은 저 특지 한끝과 맞닿게 되고 여기에는 수만정보의 새 땅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충성의 보고를 안고 우리는 걸음걸음 툇아온 출근길을 힘차게 걸어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가닿게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저 드넓은 바다를 향하여 새 출근길을 닦아나가지요.》

아, 우리의 출근길. 바다로 바다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조국의 제방길! 멀리 저 멀리 가고 갈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있는 평양으로 가까워만지는 우리의 출근길은 얼마나 좋은가, 나도 그들과 더불어 충성의 이 출근길을 걷고 또 걸으리라!

친선의 다리

한원희

마주 잡은 전우들의 손과 팔이
더운 피 뿜는 혈맥과 같이
두 나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국경의 강 압록강 철교

잠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마음처럼
하루에도 그 몇번 부르며 찾으며
이 다리위에 목메이누나
기쁨신고 달려가는 기적소리
행복신고 달려오는 기적소리

가는 정에 넓게도 열렸던가
오는 정에 억세게 뻗었던가
영원히 비껴있는 무지개처럼
눈시울 뜨거이 안겨오네

중국을 위하는 길이
조선을 위하는 길이어서
우리 수령님 건느신 다리
조선을 위하는 길이
중국을 위하는 길이어서
귀중한 분들이 건너오는 다리

언제나 오가는 정 영원하라고
흐르는 물결도 은구슬 금구슬로
교각을 높이 떠받들어올리고
불어오는 바람도 두 나라 정을 담아
란간을 소중히 어루만지네

이 다리를 건너가면
우리의 광활한 후방이어서
이 다리를 건너 오면
형제들의 미더운 전방이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가는 정

기쁠 때면 기뻐서 찾고
어려울 때면 어려워서 찾는
서로의 믿음이 다리가 되었던가
흐르는 물결위에
흐르는 세월위에
높이 솟아 빛나는 다리!

아, 마주 잡은 형제들의 손과 같이
더운 피 뿜는 혈맥과 같이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친선의 정에는 지경이 없구나!